

한국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적색자료집 포유동물

Red Data Book of
Endangered Mammals in Korea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한국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적색자료집
포유동물

Red Data Book of
Endangered Mammals in Korea

발간사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범지구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UN은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CBD: Conserva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을 채택했고, 2010년 5월에는 ‘제3차 세계 생물다양성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조류 1만여 종, 양서류 6만여 종, 포유류 5천여 종이 멸종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생물의 멸종 속도는 이전보다 1,000배 정도 빨라졌다고 경고했습니다. 생물다양성의 손실 속도를 줄이고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 고자 UN은 2010년을 ‘생물다양성의 해(IYB: International Year of Biodiversity)’로 정했으며 2011년부터 2020년을 ‘생물다양성 10년’으로 선포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세계적 동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의 감소는 단순히 동식물의 감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생물다양성은 예로부터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해주었고 지금도 유용한 자원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물다양성의 감소는 의식주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건강성을 무너뜨려 인류의 생존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에서는 야생생물의 멸종을 방지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멸종위험이 높은 생물을 선정하고 종별 위험 정도와 기준에 따라 적색자료집(Red Data Book)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중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은 IUCN의 권고에 따라 자국의 적색목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1년 처음으로 ‘조류’, ‘양서·파충류’, ‘어류’에 대한 적색자료집을 발간했으며 올해에는 ‘관속식물’과 ‘포유류’에 대한 적색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IUCN에서 자연보전,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4년마다 개최하는 세계자연보전총회(WCC: World conservation Congress)가 올해에는 9월에 제주도에서 개최됩니다. 이러한 뜻 깊은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야생동식물을 멸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적색자료집을 지속적으로 발간한다는 것은 개최국의 자존심을 지키고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관속식물과 포유류 적색자료집이 발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순천향대학교 신현철 교수님, 한림대학교 김영동 교수님, 제주대학교 오홍식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나라 모든 생물에 대한 적색자료집이 조속히 완성되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야생생물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립생물자원관장
안연순

1. IUCN 적색목록 범주와 지역적색목록 범주	7
2. 우리나라 포유동물 연구 현황	11
3. 적색목록 선정 과정	12
4. 적색목록	13
4.1. 개요	13
4.2. 적색목록	13
4.3. 범주별 증명세서	17
절멸(EX)	18
지역절멸(RE)	20
위급(CR)	30
위기(EN)	32
취약(VU)	41
준위협(NT)	60
관심대상(LC)	62
정보부족(DD)	84
미평가(NE)	92
미적용(NA)	100
5. 연구진	102
5.1. 참여 연구진	102
5.2. 자문진	102
5.3. 집필진	102
6. 적색목록 분류체계	103
7. 참고문헌	105
8. 찾아보기	112
8.1. 국명 찾아보기	112
8.2. 학명 찾아보기	112

RED DATA BOOK OF

E N D A N G E R E D

B I R D 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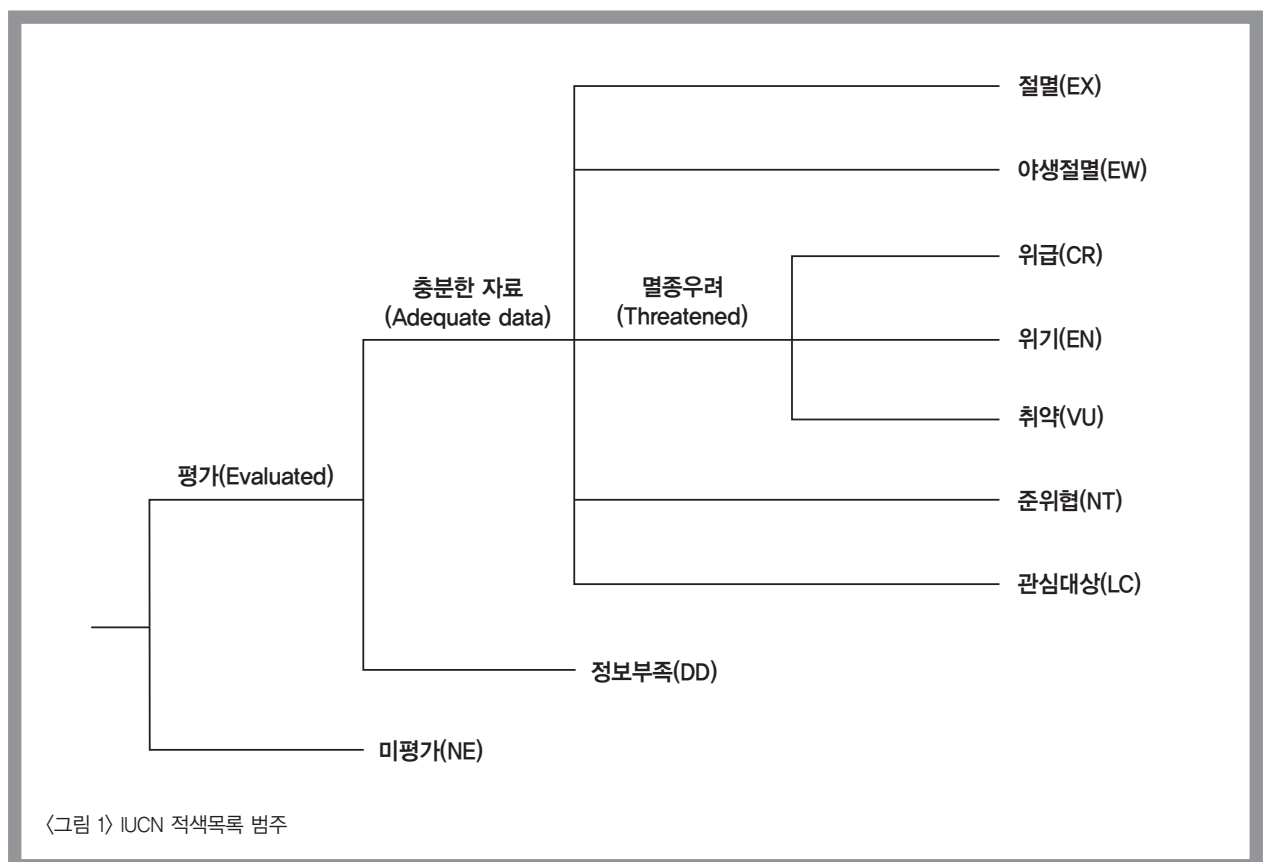
I N K O R E A

1. IUCN 적색목록 범주와 지역적색목록 범주

1.1 전 세계적 범주와 기준

전 세계적 IUCN 적색목록 범주와 기준은 6년간에 걸친 연구와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정해진 뒤 1994년 처음 발행되었다. 1994년판 IUCN 범주와 기준은 종의 보전 상태를 평가할 때 객관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고자 개발되었고, 따라서 사용자들의 일관성과 이해를 증진하고자 했다. 그리고 1996년도판 적색목록 작성을 위해 많은 종을 대상으로 범주와 기준에 맞추어 평가해 문제점을 검토하고, 1998년부터 1999년에 걸쳐 검토가 진행되어 IUCN 적색목록 범주와 기준 3.1판(2001년)이 새롭게 발표되었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전 세계에 분포하는 분류군(미생물은 제외)을 9개 범주로 규정하도록 했다(그림 1). **절멸(Extinct, EX)**은 마지막 개체가 죽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야생절멸(Extinct in the wild, EW)**은 분류군이 자연 서식지에서는 절멸한 상태이나, 동물원이나 식물원 등지에서 생육 또는 재배하는 개체만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위급(Critically Endangered, CR)**은 가장 유효한 증거가 위급에 해당하는 기준 A부터 E까지의 (표 1) 그 어떤 하나와 일치한 상태로, 위급으로 평가된 분류군은 야생에서 극단적으로 높은 절멸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간주한다. **위기(Endangered, EN)**는 가장 유효한 증거가 위기에 해당하는 기준 A부터 E까지의 그 어떤 하나와 일치한 상태로, 야생에서 매우 높은 절멸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간주한다. **취약(Vulnerable, VU)**은 가장 유효한 증거가 취약에 해당하는 기준 A부터 E까지의 그 어떤 하나와 일치한 상태로, 야생에서 높은 절멸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간주한다. 위급, 위기, 그리고 취약 범주를 합해 **멸종우려(Threatened)**라 하나, 멸종우려는 IUCN 적색목록 범주는 아니다.



준위협(Near Threatened, NT)은 기준에 따라 평가했으나, 현재에는 위급, 위기 그리고 취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 상태로, 가까운 장래에 멸종우려 범주 중 하나에 근접하거나 멸종우려 범주 중 하나로 평가될 수 있는 상태이다. **관심대상(Least Concern; LC)**은 기준에 따라 평가했으나, 위급, 위기 그리고 취약 또는 준위협에 해당하지 않은 상태로, 널리 퍼져 있고, 개체수도 많은 분류군이 이 범주에 해당한다. **정보부족(Data Deficient, DD)**은 확실한 상태 평가를 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한 분류군을 강조하기 위한 범주이다. 그리고 **미평가(Not Evaluated, NE)**는 적색목록 기준에 따라 아직 평가하지 않은 분류군에 적용하는 범주이다. 정보부족과 미평가 범주는 분류군의 위협 정도를 반영하지 않는다.

〈표 1〉 분류군이 속한 위협 범주(위급, 위기 또는 취약)를 평가하는데 사용하는 5종류 기준(A-E)에 대한 요약

사용가능한 기준 A-E	위급(CR)	위기(EN)	취약(VU)
A, 개체군 축소	지난 10년 또는 3세대에 걸쳐 측정된 하락		
A1	> 90%	> 70%	> 50%
A2, A3 & A4	> 80%	> 50%	> 30%
A1. 축소 원인들이 아래 사유 중 어떤 한 가지에 근거하거나 특정할 수 있도록 명백하게 역전되고, 이해되며, 중단되는 지난 과거에 관찰된, 추정된, 추리된 또는 추측된 개체군 축소; (a) 직접 관찰 (b) 분류군에 적합한 풍부도 지수 (c) 점유면적(AOO), 출현범위(EOO) 그리고/또는 서식지 질의 하락 (d) 남획의 실질적 또는 잠재적 수준 (e) 도입 분류군, 잡종화, 질병원, 오염원, 경쟁자나 기생자의 영향 A2. 축소 원인들이 A1에 따른 (a)에서 (e)까지의 사유 중 어떤 한 가지에 근거해 중단되지 않거나 이해되지 않거나 역전되지 않는 지난 과거에 관찰된, 추정된, 추리된 또는 추측된 개체군 축소 A3. 미래에(최대 100년까지) 기준 A1에 따른 (a)에서 (e)까지의 사유 중 어떤 한 가지와 부합된 투영되거나 추측된 개체군 축소 A4. 축소 원인들이 기준 A1에 따른 (a)에서 (e)까지의 사유 중 어떤 한 가지에 근거해 중단되지 않거나 이해되지 않거나 또는 역전되지 않으며, 시간 간격에 과거와 미래를 반드시 포함한(최대 100년간), 관찰된, 추정된, 추리된, 투영된 또는 추측된 개체군 축소			
B, B1(출현범위) 또는 B2(점유면적) 중 한 가지 유형의 지리적 영역			
B1. 출현범위	< 100km ²	< 5,000 km ²	< 20,000 km ²
B2. 점유면적	< 10 km ²	< 500 km ²	< 2,000 km ²
그리고 다음 3가지 중 2에 해당			
(a) 심각한 조각화 또는 지역 수	= 1	≤ 5	≤ 10
(b) (i) 출현범위, (ii) 점유면적, (iii) 서식지 면적 그리고/또는 질, (iv) 지역 수 또는 아개개체군, (v) 성숙한 개체수의 지속적인 하락 (c) (i) 출현범위, (ii) 점유면적, (iii) 서식지 면적 그리고/또는 질, (iv) 지역 수 또는 아개개체군, (v) 성숙한 개체수의 극단적인 변동			
C, 소개체군 크기와 하락			
성숙한 개체수와 C1과 C2 중 하나	< 250	< 2,500	< 10,000
C1. 최대 100년간 과거의 추정된 지속적인 하락	3년간 또는 1세대에 25%	5년간 또는 2세대에 20%	10년간 또는 3세대에 10%
C2. (a) 그리고/또는 (b)의 지속적인 하락			
(a i) 가장 큰아개체군의 성숙한 개체수	< 50	< 250	< 1,000
(a ii) 한 아개체군에 있는 성숙한 개체수 % =	90–100%	95–100%	100%
(b) 성숙한 개체수의 극단적인 변동			
D, 극소 또는 제한된 개체군			
(1) 성숙한 개체수 또는	< 50	< 250	< 1,000
(2) 제한된 점유면적	na	na	전형적으로: AOO < 20km ² 또는 지역 수 ≤ 5
E. 정량 분석			
최소한으로 일어날 야생에서 절멸 확률을 나타냄	10년 또는 3세대 내에 (최대 100년간) 50%	20년 또는 5세대 내에 (최대 100년간) 20%	100년에 10%

1.2 지역 적색목록 범주와 기준, 평가

IUCN 적색목록 범주와 기준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절멸 위험에 처한 종들을 분류하기 위해, 즉 전 세계적 수준에서 평가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따라서 일부 지역이나 국가 또는 지방에 분포하는 분류군에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적색목록 범주와 기준 그리고 평가 방법이 개발되어 지침으로 보급되었다. 여기에서 지역이란 준 세계적인 지리적으로 규정된 면적으로, 대륙, 나라, 주 또는 주보다 작은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칭한다.

지역적색목록 범주와 기준 적용은 자연 영역 내에 있는 야생 개체군과 현지의 도입 결과 형성된 개체군의 평가로 한정해야만 한다. 지역의 주변부에만 분포하는 분류군은 평가 대상이나, 지역 내에서 좋은 환경 조건에서만 드물게 번식하나 주기적으로(지역적으로) 절멸하는 분류군은 평가 대상이 아니다. 또한, 현재 지역 바깥까지 분포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분류군과 지역 내에서 정착 단계를 보이는 분류군은 지역 내에서 몇 년 동안(전혀적으로는 적어도 연속해서 10년간) 번식하기 전까지 지역적색목록 평가에서 고려하면 안 된다. 그러나 과거에 지역절멸(RE)로 고려되었으나, 자연적으로 지역에 다시 정착한 분류군은 번식이 일어난 첫 해 다음부터 평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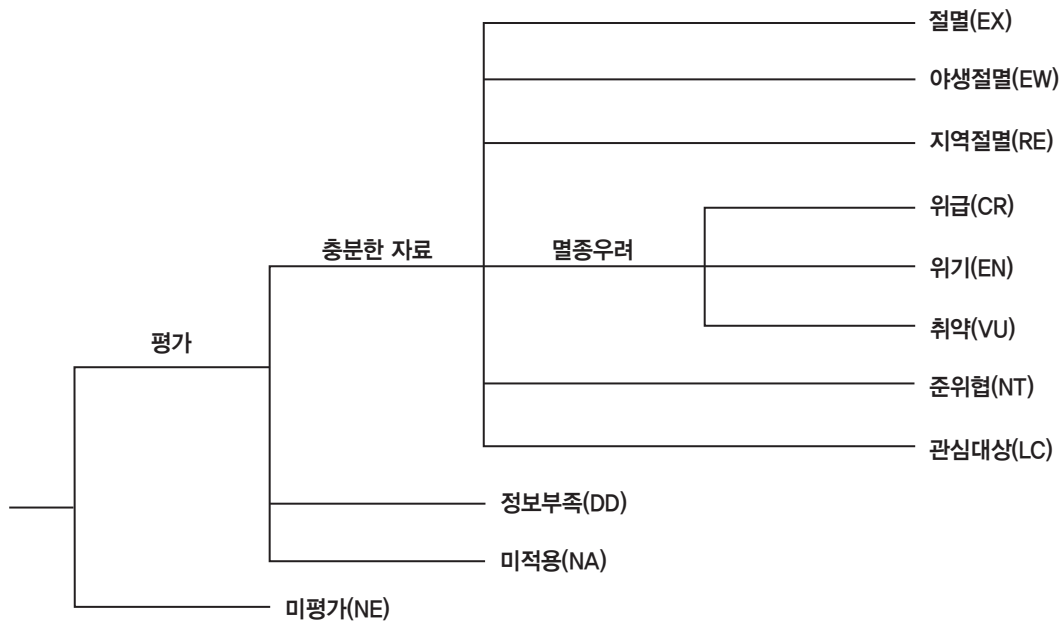
이전에 지역절멸로 평가되었으나, 재도입된 분류군은 적어도 개체군 일부라도 직접적인 도움 없이 성공적으로 번식하고 자손이 생존 가능성을 보이는 순간 평가할 수 있다. 방문자 분류군은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으나, 방랑자 분류군은 평가해서는 안 된다. 교배 또는 방문자 분류군을 지역적색목록 범주와 기준으로 평가할 때에는 전 세계 또는 대륙 개체군 비율에 대한 미리 조정된 역치값을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 세계 개체군의 1% 미만으로 지역 내에서 지난 100년 이내에 나타났거나 현재 나타나는 종을 평가할 수도 있고 평가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역치값을 명확하게 기록해야만 한다.

지역적색목록 범주에는 전 세계 적색목록에는 없는 지역절멸(RE)과 미적용(NA) 범주가 있는데, 전 세계 적색목록 범주를 그대로 사용한다(그림 2). **지역절멸(Regionally Extinct, RE)**은 지역 내에서 잠재적인 번식 능력을 가진 마지막 개체가 죽거나 지역 내 야생 상태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점에 대해 의심할 이유가 없을 경우, 또는 만일 이전에는 방문자 분류군이었으나 지역 내 야생 상태에서 마지막 개체가 죽거나 사라진 분류군에 적용된다. 지역절멸로 등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 한계는 일반적으로 서기 1,500년 이후이다. 지역적색목록 범주는 반드시 지역을 포함해 자연 영역 전체에 걸쳐 야생에서 절멸된 분류군에만 적용되어야 하나, 과거 영역 이외의 곳에서 재배, 사육 또는 귀화 개체군(또는 개체군들)은 생존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만일 한 분류군이 전 세계적으로 절멸하였으나, 지역 내에 하나의 귀화 개체군으로 생존한다면, 지역 개체군은 반드시 현지의 도입 결과로 처리되어야만 하며, 결과적으로 적색목록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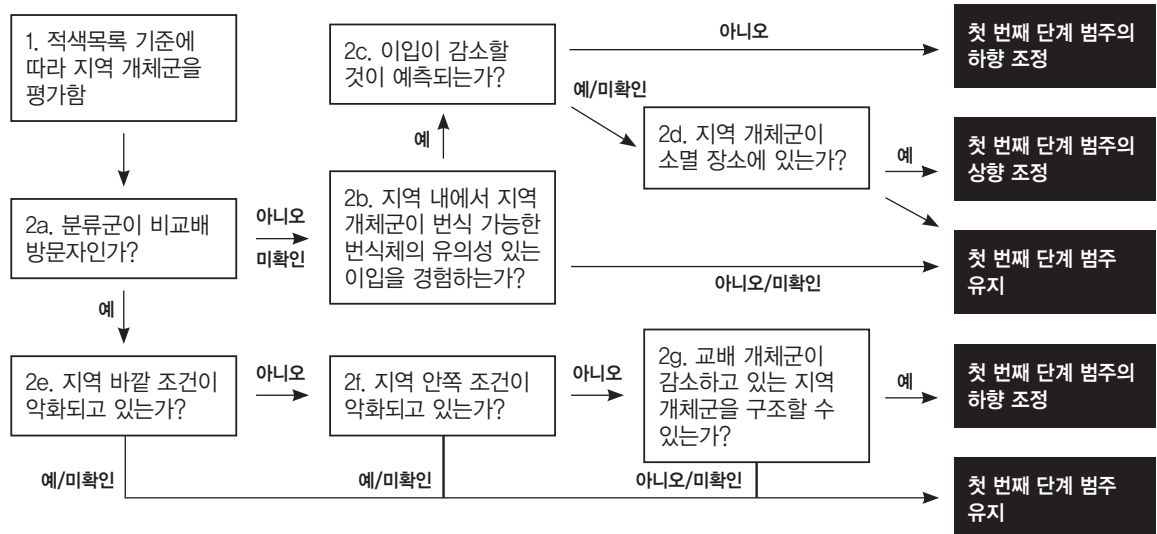
미적용(Not Applicable, NA)은 지역 수준에서 평가하기가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되는 분류군에 해당하는 범주이다. 분류군이 야생 개체군이 아니거나 또는 지역 내 자연 영역에 속하지 않을 때 또는 지역의 방랑자일 때 미적용으로 평가된다. 이밖에 지역 내에 극도로 적은 개체가 존재하거나(즉, 평가 이전에 지역적색목록 평가에 사용된 역치값으로 분류군을 배제하기로 결정했을 경우), 또는 분류군의 분류학적 수준이 종 또는 아종보다 낮은 분류군일 경우에도 미적용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역적색목록 범주는 전 세계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데, 지역 내에서 교배하는 개체군과 교배하지 않는 비교배

개체군을 약간 달리 해 두 단계 과정으로 진행된다(그림 3). 교배 개체군의 경우, 첫 번째 단계에서는 IUCN 적색 목록 기준을 분류군의 지역 개체군에 적용해 예비 범주로 평가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지역 내 절멸 위험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지역 바깥에 있는 동종 개체군의 존재와 상태에 따라 평가한다. 만일 분류군이 지역의 고유종이거나 또는 지역 개체군이 격리되어 있다면, 기준에 따라 정의된 적색목록 범주는 변경하지 않고 수용한다. 이와는 반대로, 만일 지역 바깥에 있는 동종의 개체군이 지역 절멸 위험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면, 평가된 예비 범주를 조정해야만 한다. 대부분 경우, 첫 번째 단계에서 평가된 범주를 하향 조정하게 되는데, 지역 내에 있는 개체군들은 지역 바깥에 있는 개체군들로부터 ‘구조 효과’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지역 바깥에서 지역 안으로 개체들이 유입됨으로써 절멸 위험을 감소시킬 수가 있다.



〈그림 2〉 지역적색목록 범주



〈그림 3〉 지역 수준에서 IUCN 적색목록 범주 평가 과정을 보여주는 개념 체계도.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전 세계 개체군이 아닌 지역 개체군에서 추출한 자료를 모두 사용해야 한다.

2. 우리나라 포유동물 연구 현황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포유류에 관한 연구는 유럽과 미국 및 일본의 탐험가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으나 8.15 해방 이후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비로소 한국인들에 의한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연구의 발자취를 살펴보면, Giglioli와 Salvadori(1887)에 의해 한 종이 기록을 시작으로 Thomas(1906, 1907)에 의해 16종, Allen과 Andrews(1913)가 19종의 기록했으며, 일본학자인 모리(森, 1923)가 63종의 조선산 포유류 목록을 기재한 바 있다. 이밖에 Nehring(1891), Heude(1896), Brass(1904), Hollister(1911), 아오키(青木, 1913), 쿠로다(黒田, 1923, 1934, 1938), Lonnberg(1922, 1923), Domaniewski(1926), Ognëv(1927) 등 많은 학자들의 단편적인 연구발표가 있었다. 이후 그 당시까지 기록된 종들을 총망라해 쿠로다(黒田)가 일본산 포유류목록(1938)이라는 저서에 수록된 372종 중에 한국산 포유류 103종을 기록했다.

6.25 한국전쟁(1950) 이후 미국의 Johnson과 Jones(1955a, b), Jones과 Johnson(1960, 1965) 등의 연구는 현재까지 분류학적 연구를 하는 데 기반이 되는 성과였으나 종 분류에 대한 오류가 있었고, 일부 신아종으로 기재된 것들은 원병오(1961)에 의해 동종이명으로 정리되기도 했다. 원병오 박사는 작고한 우한정 박사와 함께 한국산 포유류 연구의 기반이 되는 많은 조사보고서를 집필하기도 했다(원과 우, 1956; 1958; 1959; 1960; 1961; 원, 1968; 1976).

이후 원병희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최초 포유류 도감인 한국동식물도감 제7권 포유류(문교부, 1981)를 집필했다. 이후 현재 활동하고 있는 학자들(고흥선, 1980; 윤명희, 1984; 손성원, 1989; 원창만, 1996; 한상훈, 1997; 한성용, 1997; 오홍식, 1998; 최병진, 1998)이 해외와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전문적인 연구 성과를 발표하면서 포유류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2000년대에 들어서 박사학위 취득자들이 늘어나면서 포유류 연구에 대한 관심도 날로 고조되고 있다. 한편 한국포유동물학회는 2003년 창립되어 학회지를 발간하기도 했으나 그 후 활성화되지 않아 공식적인 학회중심의 연구 활동이 중단된 상태에 있다. 그나마 최근에 한국포유류연구회가 결성되면서 연구교류의 장이 되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우리나라의 포유류에 연구는 연구 인력이 모자라고 현장 연구의 어려움 등으로 일부 종을 제외하면 아직까지 종에 대한 생물학적 특징이나 분포현황에 대한 정보조차 파악되지 않을 정도로 미진한 상태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함께 후학들이 배출되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처지에 있다.

우리나라의 포유류 중 멸종위기에 관한 것은 2005년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구체적인 지정목록과 보호에 대한 내용들이 체계화되었다. 환경부에서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화보집(2005)과 포스터 등을 발간해 일반인들에게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종들의 중요성과 보호의 필요성을 널리 홍보하고 인식시켰다. 전국자연환경조사와 일반인들의 관심 증가로 국내에 서식하는 포유류의 현황에 자료가 축적되어 이를 토대로 멸종위기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본 <적색자료집(Red Data Book of Korea)>은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관찰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포유류 중 기존에 조사된 국내의 자료와 국제적인 기준(IUCN)을 검토한 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기준에 맞게 재조정해 작성했다. 앞으로 우리나라 포유류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활성화되고 국제적 기준이 변화함에 따라 재정립의 필요성이 대두될 수도 있으나 우리나라 멸종위기포유류의 관리와 보호에 필요한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3. 적색목록 선정 과정

3.1 평가 대상 선정 및 목록 작성

포유류 적색목록 평가대상종은 종 또는 아종을 평가의 단위로 해 국내에 서식하거나 과거 일시적으로 도래해 관찰된 적이 있거나 IUCN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각아목과 고래목을 포함한 105종의 포유류를 대상으로 검토했다. 1차 추출된 목록에서 전국적으로 흔하게 관찰되는 종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문헌자료를 근거로 과거 10년 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개체군이 감소하고 있거나 흔히 관찰되지 않는 종을 선별해 총 69종을 2차 검토대상으로 한정했다. 69종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을 받아 환경부 전국자연환경조사 자료와 각종 문헌을 분석해 최종적으로 41종의 적색목록집 대상 종을 확정했다. 적색목록집 집필 대상종 41종 중에는 현재 환경부의 멸종위기 I, II급 중 외에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개체군 밀도가 감소하고 있거나 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종들을 포함했다. 적색목록집 집필을 위한 등급은 IUCN 적색목록 등급기준과 지역적색목록 지침을 함께 적용해 절멸(EX), 지역절멸(RE), 위급(CR), 위기(EN), 취약(VU), 준위협(NT), 관심대상(LC), 정보부족(DD), 미평가(NE), 미적용(NA)의 10 등급으로 분류했다.

3.2 적색목록 등재 종 평가

적색목록 후보종들은 IUCN에서 발간한 범주와 기준 그리고 이들에 대한 지침, 그리고 지역적색목록 평가 지침에 근거해 평가했다. 이들 자료는 다음과 같다.

- IUCN. 2001. IUCN Red List Categories and Criteria, Version 3.1. IUCN Species Survival Commission, IUCN, Gland, Switzerland and Cambridge, UK.
- IUCN. 2003. Guidelines for Application of IUCN Red List Criteria at Regional Levels: Version 3.0. IUCN Species Survival Commission, IUCN, Gland, Switzerland and Cambridge, UK.
- IUCN Standards and Petitions Working Group. 2010. Guidelines for Using the IUCN Red List Categories and Criteria, Version 8.0. Prepared by the Standards and Petitions Working Group of the IUCN SSC Biodiversity Assessments Sub-Committee.

적색목록 평가를 위해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발표된 각종 논문들(석박사 학위 논문 포함)과 보고서들을 참고했으며, 일부 표본 자료도 검토했다. 각종 논문들은 최근의 경향을 반영하기 위해 가능한 2000년 후반의 자료를 참고했으나, 때로는 이전 자료들도 검토했다. 참고한 각종 문헌은 종에 대한 설명 다음에 나열했다.

4. 적색목록

4.1 개요

국내에서 서식하는 포유동물 중에서 적색자료집에 등재되는 대상 종은 모두 41종이다(표 2). 이중 전 세계적으로 절멸한 종은 바다사자 1종이며, 국내에서 절멸한 종은 호랑이, 시라소니, 늑대 등 5종이다. 위급에 해당하는 종은 사향노루 1종, 위기에 해당하는 종은 작은관코박쥐, 여우, 반달가슴곰, 물범 4종이며, 취약에 해당하는 종은 붉은박쥐, 무산쇠족제비, 산양 등 9종으로 멸종위험에 처한 종은 모두 20종이었다. 이밖에 준위험에 처한 종은 오소리 1종, 관심대상 종은 고슴도치, 비단털쥐, 멧밭쥐 등 11종이고, 정보부족 종은 쇠뿔쥐, 산달 등 4종, 뒤쥐, 갯참서 등 4종은 미평가 종으로 분류했으며, 큰바다사자 1종은 미적용 대상 종으로 선정했다.

〈표 2〉 평가결과

분류	종수	비율(%)
절멸(Extinct, EX)	1	2.4
야생절멸(Extinct in the Wild, EW)	0	0
지역절멸(Regionally Extinct, RE)	5	12.2
위급(Critically Endangered, CR)	1	2.4
위기(Endangered, EN)	4	9.8
취약(Vulnerable, VU)	9	22
준위협(Near Threatened, NT)	1	2.4
관심대상(Low Concern, LC)	11	26.8
정보부족(Data deficient, DD)	4	9.8
미평가(Not evaluated, NE)	4	9.8
미적용(Nat Applicable, NA)	1	2.4
합계	41	100

4.2. 적색목록

절멸(Extinct, EX) 1종

바다사자 *Zalophus japonicus*

지역절멸(Regionally Extinct, RE) 5종

늑대 *Canis lupus*
 대륙사슴 *Cervus nippon*
 시라소니 *Lynx lynx*
 표범 *Panthera pardus*

호랑이

Panthera tigris

위급(Critically Endangered, CR) 1종

사향노루

Moschus moschiferus

위기(Endangered, EN) 4종

물범(잔점박이물범)

Phoca largha

반달가슴곰

Ursus thibetanus

여우

Vulpes vulpes

작은관코박쥐

Murina ussuriensis

취약(Vulnerable, VU) 9종

담비(노란목도리담비)

Martes flavigula

무산쇠족제비

Mustela nivalis

물개

Callorhinus ursinus

붉은박쥐

Myotis formosus

산양

Naemorhedus caudatus

살

Prionailurus bengalensis

수달

Lutra lutra

토끼박쥐

Plecotus auritus

하늘다람쥐

Pteromys volans

준위협(Near Threatened, NT) 1종

오소리

Meles leucurus

관심대상(Least Concern, LC) 11종

고슴도치

Erinaceus amurensis

관코박쥐

Murina leucogaster

땃쥐

Crociodura lasiura

멧박쥐

Nyctalus aviator

멧밭쥐

Micromys minutus

비단털쥐

Tscherskia triton

쇠큰수염박쥐	<i>Myotis ikonnikovi</i>
안주애기박쥐	<i>Vespertilio sinensis</i>
작은땃쥐	<i>Crocidura shantungensis</i>
제주땃쥐	<i>Crocidura dsinezumi</i>
큰귀박쥐	<i>Tadarida insignis</i>

정보부족(Data Deficient, DD) 4종

긴발톱참서	<i>Sorex unguiculatus</i>
산달	<i>Martes melampus</i>
쇠뒤쥐(작은뒤쥐)	<i>Sorex gracillimus</i>
쇠갈밭쥐	<i>Lasiopodomys mandarinus</i>

미평가(Not Evaluated, NE) 4종

갯참서	<i>Neomys fodiens</i>
뒤쥐	<i>Sorex caecutiens</i>
큰발뒤쥐	<i>Sorex isodon</i>
큰참서	<i>Sorex mirabilis</i>

미적용(Not Applicable, NA) 1종

큰바다사자	<i>Eumetopias jubatus</i>
-------	---------------------------

4.3. 범주별 증명세서

바다사자

Zalophus japonicus
Peters, 1866

분류학적 위치

기각아목(Pinnipedia) 바다사자과(Otariidae)

영명: Japanese Sea Lion

IUCN 범주: EX(절멸)

● 요약

바다사자는 채식환경이 넓어 국내 해역뿐만 아니라 인접한 국가를 이동하면서 살아가는 종으로, 해양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로서 생태계의 균형 유지 및 해양의 건강성을 상징하는 종이다.

● 형태

바다사자는 중형의 바다사자과 동물로, 몸은 가늘고 긴 방추형이며, 귀는 원추형으로 가늘고 짧으며, 꼬리는 짧다. 두개골은 정 중앙선상에 전두골부터 후두골에 걸쳐 판상의 바깥시상능선(external sagittal crest)이 발달해 4~5cm에 달한다. 수컷이 암컷에 비해 화살촉 모양의 돌출된 이마와 가슴과 목 부위가 근육질로 상당히 발달되어 있다. 수컷 성체는 239cm, 490kg, 암컷은 180cm, 120kg에 달한다. 몸의 피부색은 변이가 심하며, 어린 개체는 암컷의 경우 회갈색으로 등 중앙이 암회색이며, 수컷은 노란색을 띤 갈색이다. 바다사자는 같은 과(Family)의 큰바다사자, 물개와 혼동되기도 하며, 종종 물범과의 물범과 혼동하는 경우도 있으나 물범과는 크기 및 형태, 귓바퀴의 유무 등으로 구별이 뚜렷하다.

● 생물학적 특성

성적으로 성숙하는 연령은 암수 모두 4~5세, 출산은 5~6월에 걸쳐 1년에 1회 1마리를 육상에서 낳는다. 수컷이 자신의 세력을 가지는 것은 9세 무렵부터이다. 주로 연안 지역에서 생활하며, 강 하구나 심지어 수백 마일 떨어진 바다에서도 발견된다.

● 분포 현황

우리나라의 독도, 동해와 러시아 연해주 및 일본 주변의 동해안에 분포했다.

● 서식지 동향

일본인에 의해 1903년부터 1910년까지 독도에 사는 바다사자가 매년 천 마리 이상 남획되었고, 특히 남획의 대상지가 바다사자의 번식지였던 점과 남획된 사이에는 암컷과 어린 개체들도 포획되어 있어 자연 상태에서의 개체군 유지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에 의해 독도가 사격훈련장으로 이용되어 잔존했던 독도 바다사자의 번식 및 생존에 영향을 주었다.

● 개체수 현황

1953년 4월 20일~1956년 12월 30일 사이에는 100여 마리의 바다사자가 생존했으며, 1957년 이후 비정기적으로 목격된 사례가 발표되기도 했으나 그 후 관찰된 기록이 없다.

● 분류학적 특성

바다사자는 기각아목 바다사자과에 속하는 해양포유류로 물개, 큰바다사자와 같은 과(family)에 속한다. 이들 바다사자는 지리적인 격리에 의해 크게 캘리포니아바다사자(*Zalophus californianus californianus*, Lesson, 1828), 바다사자(*Zalophus californianus japonicus*), 갈라파고스바다사자(*Zalophus californianus wolfebaeki*)의 3아종으로 나누기도 한다.

● 위협 요인과 보호 대책

과거 바다사자의 개체수 감소 및 멸종위기에 가장 큰 위협 요인은 인간의 직접적인 남획이었으며, 오늘날 바다사자의 서식에 가장 큰 위협요소는 어업에 의한 간접적인 희생, 잔존 개체군의 증식·복원능력 약화, 해양환경의 변화 등이 예상되고, 정치망 어업으로 인한 해양포유류의 혼획, 소수 개체군의 자연복원력 약화, 과거 자연형 해안과 달리 인공구조물 건설로 인한 해안 변형,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회유어종 변화에 따른 먹이원 감소 등이 위협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바다사자 보호를 위해 종 복원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주변국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 지역주민과의 이해관계 해결 등 사회·문화·정치·경제적 측면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

● 특기 사항

현재 독립종인지 아종인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 평가 결과: EX

1950년대 이후부터 관찰되지 않고 있으며, 마지막 개체군이 1951년 독도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 관찰된바 없어 절멸한 것으로 간주된다. IUCN에서는 절멸로 평가했다.

● 참고문헌

윤명희, 한상훈, 오홍식, 김장근. 2002. 한국의 포유동물, 동방미디어.

환경부. 2009. 멸종위기 바다사자 복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복원계획.

Aurioles, D. and F. Trillmich. 2008. *Zalophus japonicus*. In: IUCN 2011.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Version 2011.2.

National audubon society, 2008. Guide to MARINE MAMMALS OF THE WORLD. ALFRED A. KNOPF. 90- 91.

Zalophus japonicus was distributed around Ulleung Island and Dokdo Island. However, since 1970s, it has not been discovered and regarded as an extinct species.

집필자: 최병진(한국자연환경연구소)

늑대

Canis lupus
(Linnaeus, 1758)

분류학적 위치

식육목(Carnivora) 개과(Canidae)

영명: Gray Wolf

IUCN 범주: LC(관심대상)

● 요약

한반도 중·북부지방, 황해도 평산, 경북 청송면, 지보면, 삼척, 문경, 수안보에서의 서식기록이 있으나 거의 자취를 감춘 것으로 간주된다.

● 형태

다리는 굵고 길며, 개와 비슷하지만 이마와 콧등이 더 넓고, 긴 털로 덮인 꼬리는 발뒤꿈치 부근까지 늘어지며 꼬리가 위로 향해 구부러지지 않는다. 머리와 몸통의 길이는 950–1,200mm, 꼬리의 길이는 340–450mm, 귀의 길이는 100–120mm, 뒷다리의 길이는 240–270mm, 체중은 12–80kg이다.

● 생물학적 특성

교미 시기는 11–2월이며, 임신 기간은 60–64일로 4–6월에 새끼 5–10마리를 낳는 것으로 알려졌다. 먹이는 사슴류, 멧토끼, 동물의 사체, 조류 등을 즐겨 먹으며, 과일류도 취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분포 현황

한반도 중부지방, 경북 청송면, 지보면, 삼척, 문경, 수안보에서의 서식기록이 있다.

● 서식지 동향

깊은 산에서도 나무가 드문 산지에 서식한다.

● 개체수 현황

최근 관찰기록이 없으며, 현재는 거의 자취를 감춘 것으로 간주된다.

● 분류학적 특성

우리나라의 늑대는 중국, 몽골 등지에 분포하는 *Canis lupus coreanus*로 분류한다.

● 위협 요인과 보호 대책

정보가 매우 부족하다.

● 특기 사항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물 I급 동물로 선정되었다(2012년).

● 평가 결과: RE

1900년대 초만 하더라도 한반도 중남부 지역에도 자주 관찰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1960년대 이후 발견되지 않고 있어 절멸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 참고문헌

- 원병휘. 1967. 「한국동식물도감」제7권 동물편(포유류). 문교부.
- 원홍구. 1968. 조선집승류지. 과학원출판사.
- 윤명희, 한상훈, 오홍식, 김장근. 2004. 한국의 포유동물. 동방미디어. 서울.
- 이정일. 1989. 경상북도 포유동물 분포에 관한 기초 연구. 동국논집 8: 385-419.
- 이정일. 1993. 강원도 포유동물의 분포 밀도에 관한 기초 연구. 동국논집 12: 49-78.
- Mech, L.D. and L. Boitani. 2010. *Canis lupus*. In: IUCN 2011.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Version 2011.2.
- Won, C. 1996. Mammals of Korea: Current status and zoogeography. Ph.D dissertation of University of Arkansas.

This species was reported to be found around the Kyungbuk area of South Korea. However, recently, there are no reports on its existence in Korea. It has been considered as regionally extinct.

집필자: 오홍식(제주대학교)

대륙사슴

Cervus nippon
(Temminick, 1838)

분류학적 위치

소목(Artiodactyla) 사슴과(Cervidae)

영명: Sika Deer

IUCN 범주: LC(관심대상)

● 요약

현재 절멸 위기에 처한 사슴과 포유류로 개체군 수가 매우 적어 국내에서 멸종 위협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 형태

우리나라 사슴과 동물 중에서 대형이며, 암수 간에 성적크기이형이 뚜렷해 수컷의 몸이 암컷보다 1.5배 정도이다. 수컷의 뿔은 30~80cm이다. 목 부분과 등면에 백색 반점이 있다. 머리와 몸통의 길이 900~1,900mm, 꼬리의 길이 140mm, 귀의 길이 150mm, 뒷발의 길이 450mm, 어깨의 높이 700~1,300mm이며, 뿔의 길이는 300~660mm이다.

● 생물학적 특성

성체는 1~2월, 어린 개체는 3월경에 뿔이 빠지며, 여름털에서 겨울털로 바뀌기 시작하는 시기는 9~10월이다. 무리 생활을 하며, 9~11월경에 교미하고 약 7개월이 지나면 새끼를 보통 한 마리 낳는다. 태어난 새끼는 2년 정도 후에 성적으로 성숙한다.

●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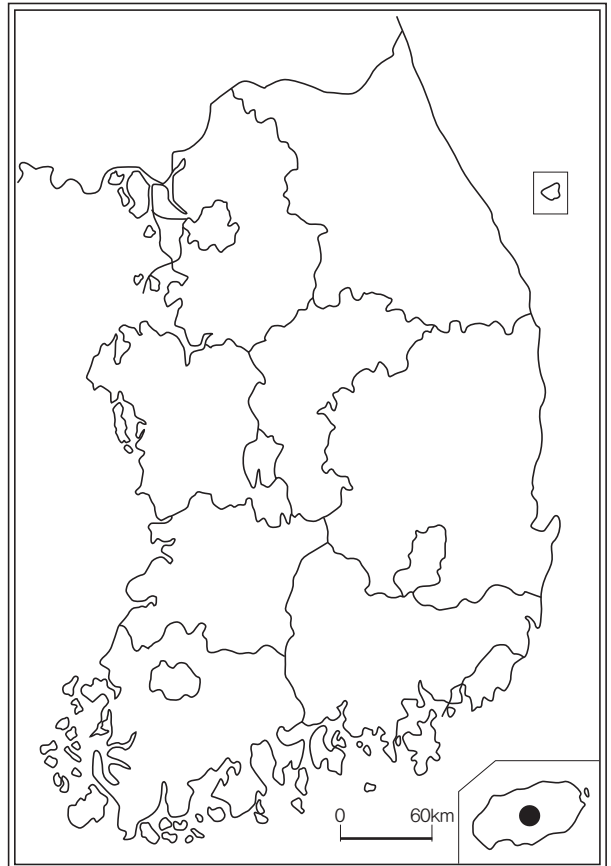
과거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야산에 서식했으나 야생에서는 절멸된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현재는 전국 여러 지역에서 사육되며, 한라산 등지에는 인위적으로 도입되어 서식하고 있다. 전국적인 분포 현황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다. 국외에서는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 분포한다.

● 서식지 동향

서식지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

● 개체수 현황

과거 한국 야산에 서식했던 사슴은 1940년대를 기점으로 절멸된 것으로 간주된다.



● 분류학적 특성

현재 전 세계적으로 *Cervus nippon*은 14개의 아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위협 요인과 보호 대책

밀렵이 가장 큰 위협 요인이다.

● 특기 사항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물 I급 동물로 선정되었다(2012년).

● 평가 결과: RE

한때 제주도를 포함한 한반도 전역에 널리 분포했으나, 약재로 이용하기 위한 무분별한 사냥 결과, 1940년대에 는 국내에서 절멸했다. 이후 중국과 일본 등지에서 들여온 개체들이 야생에서 번식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만 야 생화 된 개체군이 발견되고 있으며, 한반도에서는 사육 개체만이 서식하고 있다. 기준 RE(지역절멸)로 평가되는 데, IUCN에서는 관심대상으로, 중국에서는 위기로 평가하고 있어,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

● 참고문헌

- 권구희. 2011. 극동아시아 대륙사슴(*Cervus nippon hortulorum*)의 보전 및 계통분류연구: 미토콘드리아 DNA cytochrome *b* 유 전자의 염기서열 분석.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원병휘, 이해풍. 1969. 한국산 포유동물의 생태에 관한 연구. 동국대 논문집 6-7: 59-85.
- 원병휘. 1967. 「한국동식물도감」제7권 동물편(포유류). 문교부.
- 원흥구. 1968. 조선집승류지. 과학원출판사.
- 윤명희, 한상훈, 오홍식, 김장근. 2004. 한국의 포유동물. 동방미디어, 서울.
- Harris, R.B. 2008. *Cervus nippon*. In: IUCN 2011.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Version 2011.2.
- Won, C. 1996. Mammals of Korea: Current status and zoogeography. Ph.D dissertation of University of Arkansas.

Cervus nippon was ranged throughout the Korean Peninsula including Jeju. It is classified rather into a group of large mammal. However, its population has been regionally extinct, and captive program was initiated. As a result some individuals were successfully reintroduced into Mt. Halla.

집필자: 오홍식(제주대학교)

시라소니(스라소니)

Lynx lynx
(Linnaeus, 1758)

분류학적 위치
식육목(Carnivora) 고양이과(Felidae)

영명: Eurasian Lynx
IUCN 범주: LC(관심대상)

● 요약

추운 지역에 잘 적응한 대표적인 산림성 고양이과의 동물이다. 모피 때문에 남획되어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동물로 소수의 개체가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남한에서 서식여부를 확인할만한 뚜렷한 증거 자료는 없으나 과거에는 간혹 관찰되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형태

고양이처럼 생겼으나 꼬리가 매우 짧아 뭉툭하며, 끝은 검은색을 띤다. 몸의 크기는 고양이와 표범의 중간 정도이다. 몸은 뚱뚱한 편이고, 뒷바퀴의 끝에 붓 같은 센 털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머리는 크고 귀는 삼각형으로 끝이 검고, 긴 털이 곧게 서 있다. 볼에는 호랑이에서 볼 수 있는 볼수염이 있다. 무늬는 표범과 달리 호랑이와 같은 줄무늬를 띠고, 꼬리는 자른 듯이 짧아 다른 고양이과 동물과 쉽게 구분된다. 다리는 튼튼하며, 특히 발의 폭이 넓다. 수축되었을 때 눈동자의 모양은 짧은 타원형이며, 홍채는 연한 황색을 띤다. 체색은 베이지색, 적갈색, 황색 등 변이가 많으며, 갈색 또는 검은색 반점이 있다. 몸통의 길이 840-1,050mm, 꼬리의 길이 195-205mm, 귀의 길이 67-75mm, 뒷발의 길이 200-232mm, 체중은 15-38kg이다.

● 생물학적 특성

야행성으로서 낮에는 무성한 덤불이나 바위 그늘에 숨어 있다가 해질 무렵에 나와 활동한다. 성질이 난폭하고, 다른 고양이과의 동물과 달리 추적해 먹이를 잡아먹는 경우가 많다. 단독생활을 하며, 헤엄도 잘 치고, 나무에도 잘 오른다. 교미 시기는 2월이며, 번식기 때는 두세 마리의 수컷이 암컷 1마리를 놓고 격렬하게 싸운다. 임신 기간은 9, 10주, 새끼는 한배에 1-8마리(보통 2-4마리)를 낳는다. 수명은 12-15년이며, 먹이는 노루, 영양, 사슴, 어린 멧돼지, 사향노루, 멧토끼, 꿩, 어치, 닭, 쥐 등이고, 가축을 습격하는 일도 많다.

● 분포 현황

북한 지역의 함경북도와 자강도 일대에 분포한다.

● 서식지 동향

고도가 높은 산림 속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개체수 현황

매우 적은 개체가 생존하는 것으로 추측한다.

● 분류학적 특성

정보가 매우 부족하다.

● 위협 요인과 보호 대책

정보가 부족하다.

● 특기사항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물 I급 동물로 선정되었다(2012년).

● 평가 결과: RE

국내에서의 서식 여부가 불투명하거나 절멸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경북, 강원 등지에서도 관찰되지 않고 있다.

● 참고문헌

- 원병휘. 1967. 「한국동식물도감」 제7권 동물편(포유류). 문교부.
- 원홍구. 1968. 조선집승류지. 과학원출판사.
- 윤명희, 한상훈, 오홍식, 김장근. 2004. 한국의 포유동물. 동방미디어. 서울.
- 이정일. 1993. 강원도 포유동물의 분포 밀도에 관한 기초 연구. 동국논집 12: 49-78.
- 이정일. 1989. 경상북도 포유동물 분포에 관한 기초 연구. 동국논집 8: 385-419.
- 최태영, 최현명. 2007. 야생동물흔적도감-흔적으로 찾아가는 야생동물 생태 기행. 돌베개 출판, 파주.
- Breitenmoser, U., D.P. Mallon, M. von Arx, and C. Breitenmoser-Wursten. 2008. *Lynx lynx*. In: IUCN 2011.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Version 2011.2.
- Corbet, G. B. and J. E. Hill. 1991. *A World List of Mammalian Species* (Thir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 Wilson, R. and I. Reeder. 1993. *Mammal species of the world*.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New York.
- Won, C. 1996. Mammals of Korea: Current status and zoogeography. Ph.D dissertation of University of Arkansas.

Lynx lynx was distributed throughout Kyungpuk and Kangwon in South Korea. However, recently, there are no reports on its existence. It has been considered as regionally extinct.

집필자: 오홍식(제주대학교)

표범

Panthera pardus
(Linnaeus, 1758)

분류학적 위치

식육목(Carnivora) 고양이과(Felidae)

영명: Amur Leopard

IUCN 범주: CR(위급)

● 요약

대형 고양이과 포유류로 과거 기록은 있으나 현재 남한에서는 절멸된 것으로 추정된다.

● 형태

대형 고양이과 동물로 성체의 경우 머리와 몸통의 길이 1,060–1,800mm, 꼬리의 길이 700–1,000mm, 뒷다리의 길이 200–320mm, 귀의 길이 70–120mm이다. 머리는 크고 둥글며 수염은 짧다. 귓바퀴는 둥글고 짧으며, 목은 짧다. 털의 색깔은 황색 또는 황적색으로 몸체, 사지 및 꼬리에 검은 점무늬가 산재해 있다. 허리 부분과 몸 옆면의 무늬에는 중앙에 옅은 황갈색 털이 나 있어 엽전처럼 보인다.

● 생물학적 특성

고산지대의 산림 속에서 살며 해 진 뒤나 새벽에 활동한다. 교미 시기는 겨울 또는 봄이며, 교미 후 약 100일 뒤에 새끼 1–5마리를 낳는다. 성적으로 성숙하는 시기는 태어난 지 2–3년이 지난 후이며, 수명은 12년 정도이다.

●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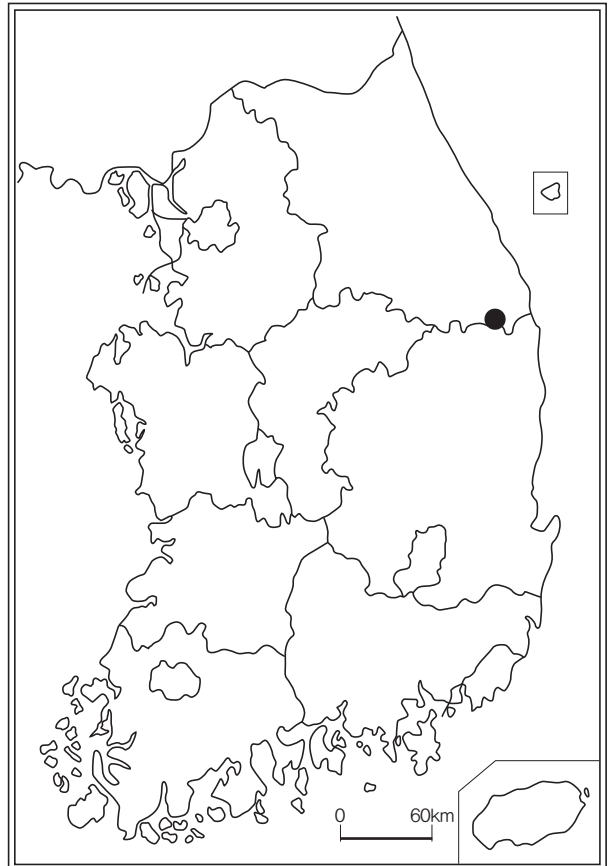
전국(경기도 광릉, 지리산, 설악산, 오대산, 전남 천태산, 묘향산)에서 서식했던 기록이 있으나(원병휘, 1967; 원홍구, 1968), 남한에서는 절멸된 것으로 추정된다.

● 서식지 동향

임도건설로 인한 서식지 간섭 증가 및 도로건설에 의한 서식지 단편화 현상 증가 등의 영향으로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다.

● 개체수 현황

개체수 현황을 파악할만한 자료가 없다.



● 분류학적 특성

전 세계적으로 아홉 아종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중 한반도에 서식하는 표범은 *Panthera pardus orientalis*이다.

● 위협 요인과 보호 대책

문헌에 기록된 분포 지역을 대상으로 정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향후 종의 복원 계획에 필요한 유전자원 확보가 시급하다.

● 특기 사항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물 I급(2012년) 동물로 지정되어 있다. 1989년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에서 지정한 위기종으로 선정되었으며, 2001년에는 위급종으로 지정되었다. 현재 동물원에서도 우리나라 원종이 사육되고 있지 않아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 평가 결과: RE

전국적으로 널리 분포했으나, 모피에 대한 수요 및 서식지 파괴에 따라 개체수가 급감했다. 중국에서도 위급으로 평가했고, 전 세계적으로 20여 개체 미만이며, 한반도에서는 절멸했다는 보고도 있다.

● 참고문헌

원병휘. 1967. 「한국동식물도감」 제7권 동물편(포유류). 문교부.

원홍구. 1968. 조선집승류지. 과학원출판사.

Henschel, P., L. Hunter, U. Breitenmoser, N. Purchase, C. Packer, I. Khorozyan, H. Bauer, L. Marker, E. Sogbohossou and C. Breitenmoser-Wursten. 2008. *Panthera pardus*. In: IUCN 2011.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Version 2011.2.

Uphyrkina, O., Johnson, W. E., Quigley, H. B., Miquelle, D. G., Marker, L., Bush, M. E. and O'Brien, S. J. 2001. Phylogenetics, genome diversity and origin of modern leopard, *Panthera pardus*. Molecular Ecology 10: 2617.

Won, C. 1996. Mammals of Korea: Current status and zoogeography. Ph.D dissertation of University of Arkansas.

Panthera pardus was distributed through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recently, several findings were reported near DMZ and Mt. Baekdu.

집필자: 오홍식(제주대학교)

호랑이

Panthera tigris
Linnaeus, 1758

분류학적 위치
식육목(Carnivora) 고양이과(Felidae)

영명: Amur Tiger
IUCN 범주: EN(위기)

● 요약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동물로 매우 적은 개체가 생존하는 것으로 추측한다. 국내에서는 멸종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 형태

머리와 몸통 길이는 1,400–2,800mm, 꼬리의 길이는 600–970mm, 귀의 길이는 100mm, 뒷발의 길이는 310mm, 체중은 100–250kg이다. 몸의 윗면은 선명한 황갈색이고, 검은 가로무늬 줄이 있다.

● 생물학적 특성

멧돼지, 사슴 등을 주로 잡아먹으며, 행동 범위가 넓다. 암컷은 새끼가 독립하는 시기까지만 함께 생활하고, 수컷은 단독으로 생활한다. 11월에서 2월 사이에 교미하고, 5월에서 7월 사이에 새끼를 2–4마리 낳는다.

● 분포 현황

북한에서는 함경도 지방에 소수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측한다.

● 서식지 동향

정보가 부족하다.

● 개체수 현황

정보가 부족하다.

● 분류학적 특성

한반도 북부에 분포하고 있는 호랑이는 *Panthera tigris altaica*로 분류되고 있다.

● 위협 요인과 보호 대책

정보가 부족하다.

● 특기 사항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물 I급 동물로 선정되었다(2012년).

● 평가 결과: RE

1800년대부터 많은 사람들이 포획하기 시작했고, 1900년 후반 호피 무역이 활발해짐에 따라 매년 수백 마리의 호피가 수출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921년 경주 대덕산에서 마지막으로 한 마리가 포획된 이후 발견되지 않고 있다. 강원 및 경북 지역 조사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북한 지역을 비롯해 중국 동북부 지방과 시베리아 일대에 약 360마리가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참고문헌

- 원병휘. 1967. 「한국동식물도감」 제7권 동물편(포유류). 문교부.
- 원홍구. 1968. 조선집승류지. 과학원출판사.
- 윤명희, 한상훈, 오홍식, 김장근. 2004. 한국의 포유동물. 동방미디어. 서울.
- 이정일. 1993. 강원도 포유동물의 분포 밀도에 관한 기초 연구. 동국논집 12: 49-78.
- 이정일. 1989. 경상북도 포유동물 분포에 관한 기초 연구. 동국논집 8: 385-419.
- Miquelle, D., Y. Darman, and I. Seryodkin. 2011. *Panthera tigris* ssp. *altaica*. In: IUCN 2011.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Version 2011.2.
- Won, C. 1996. Mammals of Korea: Current status and zoogeography. Ph.D dissertation of University of Arkansas.

Panthera tigris was distributed through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since the last one was hunted at Mt. Daeduk, near Kyungju, Kyungbuk in 1921, there are no reports on its existence. It has been considered as regionally extinct.

집필자: 오홍식(제주대학교)

사향노루

Moschus moschiferus
(Linnaeus, 1758)

분류학적 위치

소목(Artiodactyla) 사향노루과(Moschidae)

영명: Siberian Musk Deer

IUCN 범주: VU(정보부족)

● 요약

국제적으로 보호동물로 지정·보호하고 있는 동물이다. 사향노루는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했으나 수렵 등의 위협 요인에 의해 점차 개체수가 감소되어 절종위기에 처해 있다.

● 형태

암컷과 수컷 모두 뿔이 없고, 수컷만 약 50mm 길이의 송곳니가 입 밖으로 나와 있다. 털의 색은 검은 갈색을 띠며, 목 뒤에서 허리까지 백색 무늬가 있다. 눈 주위, 뺨, 뒷등 부분의 털끝이 흰색이며, 아래턱은 회백색, 귓속의 털은 백색이다. 형태가 고라니와 비슷하지만 더 소형이다. 향선과 향낭이 있어 사향이 형성된다. 머리와 몸통의 길이 700–1,000mm, 꼬리의 길이 30–60mm, 귀의 길이 75–105mm, 뒷발의 길이 230–260mm, 어깨의 높이 500–700mm, 체중 7–15kg이다.

● 생물학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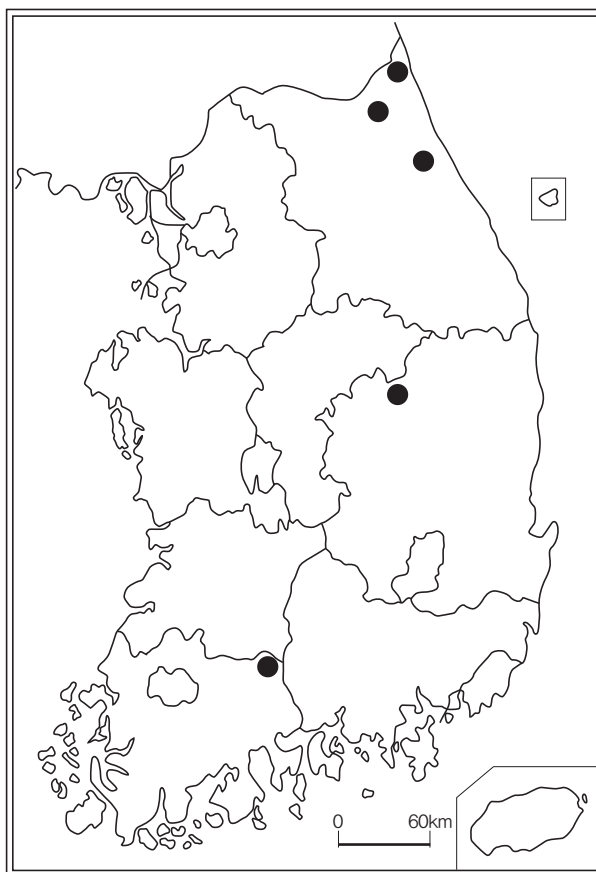
바위가 많고 1,000m 이상 되는 높은 산의 침엽수림 또는 침엽수나 활엽수가 혼재하는 숲에 서식한다. 바위의 이끼, 초본, 관목, 교목들의 어린 싹과 잎, 각종 열매를 먹는 초식성 동물이다. 험한 바위 사이나 눈 위에서도 잘 뛰며, 시각과 청각이 발달되었고 겁이 많다. 대부분 단독 생활을 하며, 발정기 이외에는 무리를 짓지 않는다. 교미 시기는 10월에서 12월이며, 이 시기에 사향선에서 향기를 낸다. 임신 기간은 평균 180일(178–185일)이며, 5–6월에 새끼를 1–2마리(드물게 3마리) 낳는다. 보통 1년 6개월 정도가 되면 성적으로 성숙하지만 대개 2년이 지나서 임신한다. 수명은 10년 내외이다.

● 분포 현황

국내에서는 지리산 일대, 경북 일부 지역에 소수 개체가 서식하며, 강원도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개체군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서식지 동향

강원도 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의 서식지는 개발이나 단절에 의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 개체수 현황

1999년 조사에서는 지리산에 4개체, 아미산에 2개체, 대암산에 2개체, 황병산에 1개체, 건봉산에 4개체, 비룡산에 2개체 등 총 16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후 2008년 조사에서는 30개체 미만이 서식하는데 이중 60% 이상이 강원도 산간 오지 및 민통선 지역에 소수의 개체가 분산되어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전국적으로 1,600여 개체가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분류학적 특성

사향노루과의 단일 속인 사향노루속에 4-6종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사향노루는 *Moschus moschiferus*로 분류한다.

● 위험 요인과 보호 대책

종의 생태학적 연구에 기초한 서식지 보전 노력이 필요하다.

● 특기 사항

천연기념물 제216호,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 I급으로 선정해 보호하고 있다(2012년).

● 평가 결과: CR C2a(i); D1

한때 지역적으로 매우 많은 개체들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약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남획되어 개체수가 급감했다. 1999년 조사에서는 16개체가, 2008년 보고에서는 30개체 미만으로 보고되었다. 기준 C2a(i); D1에 의해 위급으로 평가되는데, IUCN에서는 취약으로, 중국에서는 위기로 평가했다.

● 참고문헌

- 김종택, 김건중, 김현철. 2007. 멸종위기종 한국 사향노루의 서식지 조사. *한국가축위생학회지* 30: 459-466.
- 문화재청. 1999. 천연기념물 산양과 사향노루의 분포와 생태 연구보고서. 문화재청.
- 박용수, 김종택, 이우신. 2008. 오대산국립공원 지역에 멸종위기종인 사향노루 복원을 위한 주요 서식지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11: 91-102.
- 원병희. 1967. 「한국동식물도감」 제7권 동물편(포유류). 문교부, 서울.
- 원병희, 이해풍. 1969. 한국산 포유동물의 생태에 관한 연구. *동국대 논문집* 6-7: 59-85.
- 원흥구. 1968. *조선집승류지*. 과학원출판사, 평양.
- 윤명희, 한상훈, 오홍식, 김장근. 2004. *한국의 포유동물*. 동방미디어출판, 서울.
- 최태영, 최현명. 2007. *야생동물흔적도감-흔적으로 찾아가는 야생동물 생태 기행*. 돌베개 출판, 파주.
- Corbet, G. B. and J. E. Hill. 1991. *A World List of Mammalian Species* (Thir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 Nyambayar, B., H. Mix and K. Tsytulina. 2008. *Moschus moschiferus*. In: IUCN 2011.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Version 2011.2.
- Wilson, R. and I. Reeder. 1993. *Mammal species of the world*.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New York.
- Won, C. 1996. Mammals of Korea: Current status and zoogeography. Ph.D dissertation of University of Arkansas.

Moschus moschiferus. has been once at least locally abundant in the high mountainous regions throughout Korea. However, the excessive hunting has exterminated its number to the dangerous situation. Now, its population was estimated as below as 50 individuals.

집필자: 오홍식(제주대학교)

물범

Phoca largha
Pallas, 1811

분류학적 위치

기각아목(Pinnipedia) 물범과(Phocidae)

영명: Spotted Seal

IUCN 범주: DD(정보부족)

● 요약

주로 백령도 근해 바위지대에 무리지어 서식하며, 서해안 지역에서 출현하기도 하고 간혹 남해, 동해에서 출현하기도 한다. 최근 환경오염, 밀렵, 관광지 개발, 먹이원인 어류의 남획 등으로 개체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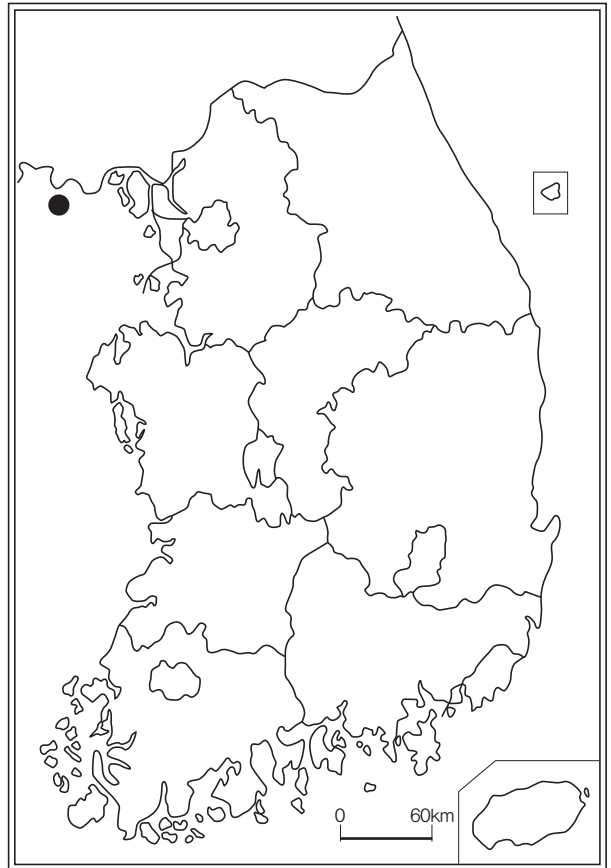
성숙 수컷의 최대 체장은 1.7m, 암컷은 1.6m이며 암수 공히 체중은 82-130kg이다. 출생 시의 체장은 77-92cm, 체중은 7-12kg이다. 체색은 일반적으로 엷은 은회색이며 균질한 크기의 1-2cm 타원형 점들이 체측과 평행하게 산재해 외피가 보다 어둡게 보인다. 밝은 고리가 있는 점, 불규칙한 큰 점 혹은 얼룩도 있을 수 있다. 점들은 아주 규칙적으로 분포하고 전반적으로 어둡다. 출생 시에는 긴 양모 같은 흰배내털이 있으나 생후 2-4주가 되면 털갈이를 한다.

● 생물학적 특성

번식기가 되면 수컷이 암컷을 여러 마리 거느리는데, 2월 중순에서 4월에 걸쳐 흐르는 얼음 위에서 출산하며, 출산 직후 곧바로 교미한다. 북쪽으로 갈수록 출산 시기가 늦다. 임신 기간은 11개월이며, 3-4주 젖을 먹인다. 새끼는 온몸이 흰색 털로 뒤덮여 있고, 자라면서 검은 반점이 생긴다. 먹이는 다양하고 나이에 따라 다르다. 젖을 떼 새끼는 소형 갑각류를 먹고 점차 어류를 포식한 후 대형 갑각류, 문어류를 먹다가 나중에는 저서어류와 두족류를 먹는다.

● 분포 현황

서해에서 수백 마리가 관찰되며, 황해, 동해에 널리 분포하고, 오향크해, 베링해에 널리 분포한다. 겨울부터 초여름 사이는 떠다니는 얼음이 있는 수역에 분포하고 늦은 여름부터 가을에는 연안에 분포하며 강의 하구에서도 분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백령도를 비롯해 가로림만과 전국 동해·서해·남해일원에 분포한다.



● 서식지 동향

항구의 개발과 배의 이동에 의한 연안 오염이나 서식지 교란이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그물에 걸려 죽는 경우가 있고, 남해와 서해에서도 가끔 좌초하는 개체들이 있다.

● 개체수 현황

1940년대에는 8,000여 마리, 1980년대에는 2,300여 마리, 2010년에는 600-800마리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중 백령도에 100-300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봄에는 그 수가 적으나 여름으로 갈수록 증가해 8-9월에는 최대에 도달한다. 10월경부터는 북상회유로 그 수가 점차 줄어들고 12월부터 다음 해 2월경까지는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 전 세계에 약 300만 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분류학적 특성

최근까지 점박이물범의 아종(*Phoca vitulina largha*)으로 알려졌으나 형태적, 생화학적, 행동 특성의 차이로 다른 종으로 재분류되었다.

● 위협 요인과 보호 대책

산업개발로 인한 환경오염과 불법 밀렵으로 희생되고, 관광지 개발과 어민들의 남획으로 인한 먹이부족 등으로 늘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 해가 거듭될수록 개체수가 현저히 줄고 있다. 현재 야생동식물보호법 및 해양생태계 보전관리법의 보호대상으로 지정·보호하고 있으므로 종 보호를 위한 보호요령 교육과 해당 법규의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특기 사항

1982년 천연기념물 제331호로 지정되었으며,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동물 II급(2012)으로 지정되어 있다.

● 평가 결과: EN A2ad

서해안에 주로 서식하나, 1940년대에는 8,000여 마리, 1980년대에는 2,300여 마리가, 그리고 2010년에는 600-800마리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어, 10년간 개체군 감소율이 50%를 상회하고 있다. IUCN에서는 정보부족으로 평가했으나, 중국에서는 개체군 크기가 작다는 이유로 위기로 평가했다.

● 참고문헌

- 박정식. 2010. 점박이물범 관리 실태 및 보전방안. 보호대상해양생물 지정 및 관리 발전 방안 심포지엄. 국토해양부.
원병휘. 1967. 「한국동식물도감」 제7권 동물편(포유류). 문교부.
윤명희, 한상훈, 오홍식, 김장근. 2004. 한국의 포유동물. 동방미디어. 서울.
Lowry, L. and V. Burkanov. 2008. *Phoca largha*. In: IUCN 2011.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Version 2011.2.
National audubon society, 2008. Guide to MARINE MAMMALS OF THE WORLD. ALFRED A. KNOPF.

Phoca largha was distributed along coastal line of the Korean Peninsula. Large populations were occupied at Yellow Sea. However, its population has been declined persistently.

집필자: 최병진(한국자연환경연구소)

반달가슴곰

Ursus thibetanus
(G. Cuveir, 1823)

분류학적 위치

식육목(Carnivora) 곰과(Ursidae)

영명: Asiatic Black Bear

IUCN 범주: VU(취약)

● 요약

반달가슴곰은 웅담이 널리 알려지면서 국제적으로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매우 희귀해진 포유동물로 천연기념물 제329호로 지정·보호하고 있으며, 지리산에서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 형태

몸 전체적으로 대개는 검은 털이 나 있으며, 갈색 또는 적갈색인 개체도 있다. 앞가슴에 V자형 반달 모양의 흰색 무늬가 특징이다. 얼굴은 길고 이마는 넓고 콧바퀴는 둥글며, 주둥이는 짧다. 목과 어깨 부위에 긴 갈기가 있는 것이 많다. 머리와 몸통의 길이 1,380–1,920mm, 꼬리의 길이 40–80mm, 귀의 길이 90–155mm, 뒷발의 길이 210–240mm이다.

● 생물학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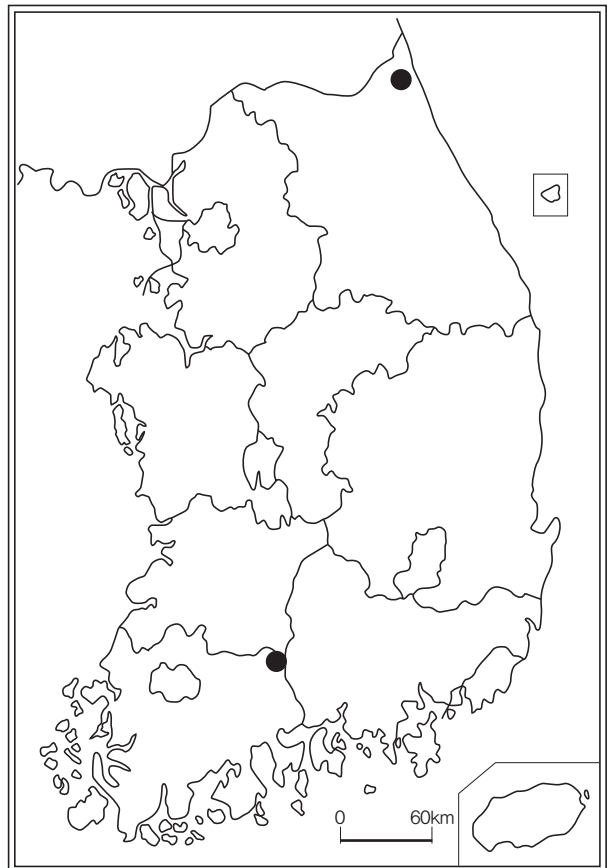
잡식성 대형 포유류이다. 과실류, 곤충류, 조류, 소형포유류 등 다양한 먹이를 잡아먹으며 생활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작지에서 활동하는 개체들과 사람들과의 충돌이 문제가 되고 있다. 겨울에 동면하며, 임신 기간은 210일 정도, 새끼는 1–3월에 2마리 정도를 낳는다.

● 분포 현황

동부 시베리아의 우수리 지방에서부터 중국, 캄보디아, 태국, 동쪽으로는 히말라야 캐시미르 동부에서 아프가니스탄까지 동부 아시아, 타이완, 일본에 이르기까지 널리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에 많은 개체수가 생존하고 있으나 남한에는 지리산과 설악산 국립공원 일대 및 강원도 북부 산악지대, 비무장 지대 부근에 소수의 개체수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서식지 동향

높은 지대의 험하고 바위가 많은 산림이나 숲속, 과실 등의 먹이 자원이 풍부한 활엽수림에서 생활한다. 적절한 면적의 서식지가 필요하나, 산림 개발이나 훼손 등에 의해 감소하고 있다.



● 개체수 현황

복원사업이 지속되어 방사하고 있으나, 야생에 서식하는 개체수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

● 분류학적 특성

우리나라에 분포하고 있는 반달가슴곰은 분류학적으로 *Ursus thibetanus ussuricus*로 분류한다.

● 위협 요인과 보호 대책

서식지 훼손 및 밀렵으로 인한 분단 고립으로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 특기 사항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동물로 매우 적은 개체가 생존하는 것으로 추측한다. 현재 복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체수가 매우 적어 국내에서는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 I급, CITES-Appendix I에 등재되어 있다.

● 평가 결과: EN* C2(ai); D1

국내에는 지리산과 설악산 그리고 강원도 높은 산에서만 50개체 미만이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기준 C2(ai); D1에 의해 위급으로 평가되나, IUCN과 중국에서는 취약으로 평가해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

● 참고문헌

- 양두화, 김보현, 정대호, 정동혁, 정우진, 이배근. 2008. 지리산에 방사한 반달가슴곰의 행동권 크기 및 서식지 이용 특성 연구. 한국 환경생태학회지 22(4): 427-434.
- 원병휘. 1967. 「한국동식물도감」 제7권 동물편(포유류). 문교부.
- 원흥구. 1968. 조선집승류지. 과학원출판사.
- 윤명희, 한상훈, 오홍식, 김장근. 2004. 한국의 포유동물. 동방미디어, 서울.
- 최태영, 최현명. 2007. 야생동물흔적도감-흔적으로 찾아가는 야생동물 생태 기행. 돌베개 출판, 파주.
- Garshelis, D.L. and R. Steinmetz. 2008. *Ursus thibetanus*. In: IUCN 2011.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Version 2011.2.
- Won, C. 1996. Mammals of Korea: Current status and zoogeography. Ph.D dissertation of University of Arkansas.

Ursus thibetanus was distributed at Mt. Jiri, Seolak, higher mountains at Kangwon. However, for the medical purpose, it was illegally hunted. Its population has been known to be as below as 50 individuals. Recently several individuals were successfully reintroduced into Mt. Jiri.

집필자: 오홍식(제주대학교)

여우

Vulpes vulpes
(Linnaeus, 1758)

분류학적 위치

식육목(Carnivora) 개과(Canidae)

영명: Red Fox

IUCN 범주: LC(관심대상)

● 요약

개과에 속하는 포유동물로 소형 동물이나 조류를 섭취하는 잡식성이다. 과거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했으나, 무분별한 수렵과 살서제에 의한 2차 피해로 한반도에서는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 형태

개과의 동물 중 중형에 속하고, 개과의 다른 동물과 달리 몸통의 길이에 비해 꼬리가 굵고 긴 편이다. 주둥이 부위는 가늘고 예리하다. 머리와 몸통의 길이는 600–780mm, 꼬리 길이 400–470mm, 뒷발 120–180mm, 귀 길이 70–90mm이다. 입과 코는 가늘고, 귀는 크며 직립되어 있다. 다리는 길고 가는 편이다. 털은 짙은 갈색에서 붉은색이며, 귀의 뒷면과 발등 부분은 검은색이다. 수컷이 암컷에 비해 조금 큰 편이다.

● 생물학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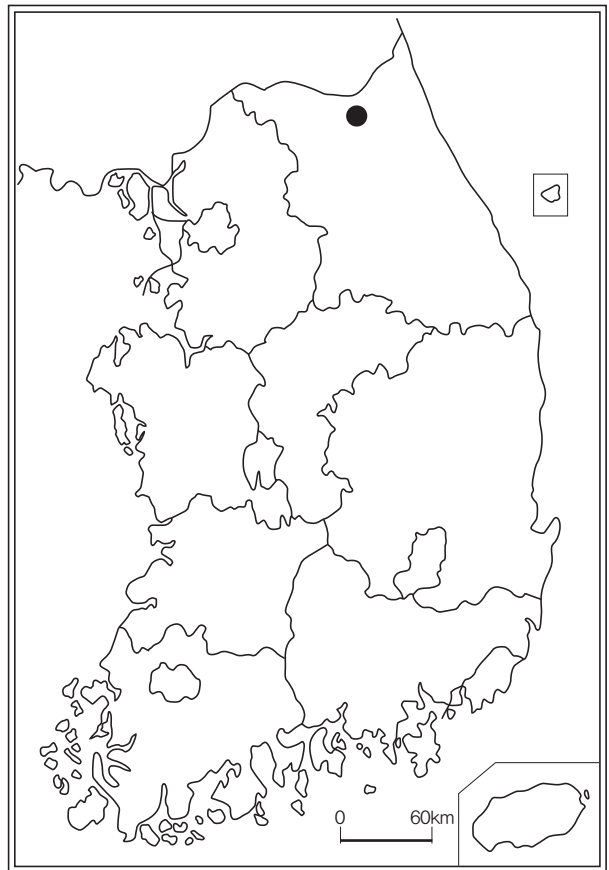
잡식성으로 우제류, 설치류, 조류, 조류의 알, 개구리, 물고기, 식물의 열매, 곤충 등 다양하게 섭식한다. 자연생태계에서는 설치류 군집 조절자 역할을 하기도 한다. 산지의 숲, 초원, 마을 부근 등에 있는 바위틈이나 흙으로 된 굴에서 생활하며, 굴을 파기도 하고 다른 동물의 굴을 빼앗아 이용하기도 한다. 수컷은 단독 생활을 하며, 암컷은 가족군집 생활을 한다. 평균 수명은 6–10년이며, 야생에서의 최장 수명은 15년 정도이다. 임신 기간은 50–60일, 새끼는 4–6마리를 낳으며, 성적 성숙기는 9–11개월, 발정기는 1–2월이며, 암컷의 출산 시기는 3–5월이다.

● 분포 현황

전 세계적으로 여우는 12여 종이 분포하며, 우리나라 여우인 *Vulpes vulpes*는 남동부 열대 지역을 제외한 유라시아 대륙, 북부 아프리카, 그리고 캐나다와 미국의 대부분 지역에 이르기까지 가장 널리 서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와 울릉도를 제외한 전국 각지에 분포했으나 1980년 이후 멸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 서식지 동향

산림 생태축 단절로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다. 기타 여우에 관한 국내 서식지 현황 자료는 없다.



● 개체수 현황

1960년대까지 인가 주변에서 자주 관찰되었던 동물이나 무분별한 포획 및 쥐 박멸 운동에 따른 2차 중독으로 1980년 이후 남한의 자연생태계에서는 멸종된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2004년 강원도 양구에서 수컷 사체가 발견되어 강원도 일부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소수의 개체가 서식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한다.

● 분류학적 특성

식육목(Carnivora) 개과(Canidae) 여우속(*Vulpes*)에 속하며, 세계적으로 북극여우(Arctic fox)를 포함해 12여종으로 분류한다. 여우는 세계적으로 지리적 기준에 의해서 48아종 또는 44아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여우는 *Vulpes vulpes peculiosa*로 분류한다.

● 위협 요인과 보호 대책

야생 개체에 대한 불법 포획을 막고 산림 생태축 단절에 따른 서식지 단편화를 막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자연 개체군 서식 확인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적극적인 종 복원을 위한 장기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 특기 사항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물 I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2012년).

● 평가 결과: EN* A2(a,d); B2ab(iv); D1

1960년대까지 완전히 제거된 것으로 알려졌다가, 2004년 강원도 양구에서 사체가 발견되어, 국내에서 서식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정확한 서식지 현황은 알려지지 않았다. 기준 A2(a,d); B2ab(iv); D1에 의해 위급으로 간주되나, IUCN에서는 관심대상으로, 중국에서는 준위협으로 평가해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

● 참고문헌

- 국립공원관리공단국립공원연구원. 2010. 여우종 복원을 위한 서식지 및 환경특성 조사. 국립공원관리공단.
김정호. 1999. 경상북도 지역의 포유류 분포. 동국대학교 이학석사학위 논문.
신남식, 윤희정, 유병호, 양병국, 권수완, 주승진, 용완울, 어경연. 2009. 환경부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보고서(토종여우의 인공증식 및 자연생태계 복원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환경부.
윤명희, 한상훈, 오홍식, 김장근. 2004. 한국의 포유동물. 동방미디어.
이정일. 1989. 경상북도 포유동물 분포에 관한 기초 연구. 동국논집 8: 385-419.
이정일. 1993. 강원도 포유동물의 분포 밀도에 관한 기초 연구. 동국논집 12: 49-78.
환경부. 2006. 멸종위기야생동물·식물 증식·복원 종합계획(2006-2015). 환경부.
Macdonald, D. W. and J. C. Reynolds. 2008. *Vulpes vulpes*. In: IUCN 2011.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Version 2011.2.
Won, C. 1996. Mammals of Korea: Current status and zoogeography. Ph.D dissertation of University of Arkansas.

Vulpes vulpes was distribute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The side effect of catching of mice since 1980 was one of main threatening factors for its extinction. In 2004, only one individual was found as dead in Kangwon.

집필자: 오홍식(제주대학교)

작은관코박쥐

Murina ussuriensis
(Ognev, 1913)

분류학적 위치

익수목(Chiroptera) 애기박쥐과(Vespertilionidae)

영명: Ussuri Tube-nosed Bat

IUCN 범주: LC(관심대상)

● 요약

소형의 산림성 박쥐로 나무 구멍이나 수피 속을 은신처로 이용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본 종에 대한 실체 확인 기록이 없어 서식에 대한 의문이 있었으나, 2011년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수행한 산림성 박쥐류 연구에 의해서 강원도, 충청도, 경기도, 경북 일원에서 실체가 확인되었다. 기타 생태에 관한 상세한 자료는 없다.

● 형태

머리와 몸 41-54mm, 꼬리 26-33mm, 전완장 27-34mm, 체중 4-8g이다. 코는 외부로 돌출되어 있고 튼튼한 형태이다. 털은 황토색에서 옅은 갈색이며, 꼬리막 주위로 털이 줄지어 나 있다. 귀는 난원형으로 작은 과립이 산재되어 있으며, 이주는 길고 끝이 뾰족하다.

● 생물학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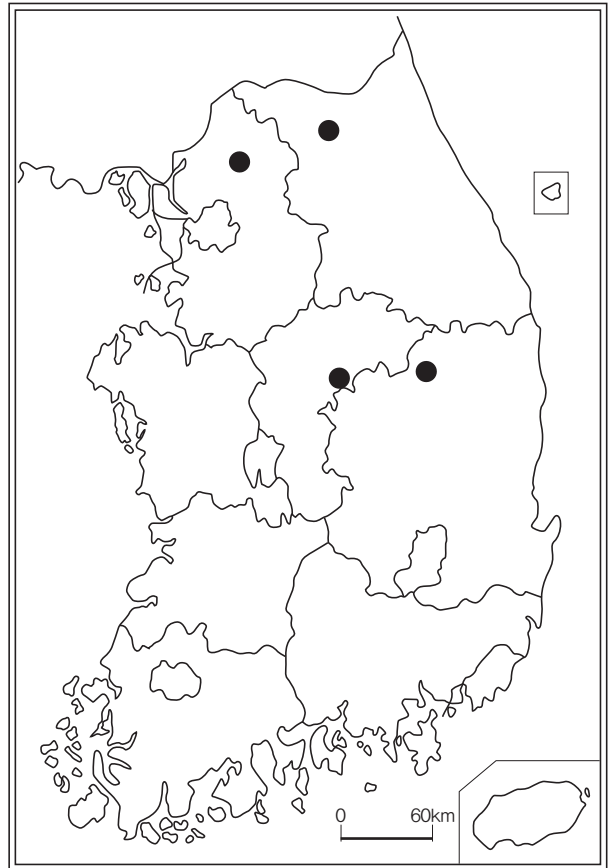
산림성 박쥐로 알려져 있으며, 큰 나무의 껍질 속이나 나무 구멍 등을 은신처로 이용한다. 산림 하층부를 날아다니면서 곤충을 포획한다. 다양한 장소를 잠자리로 이용하며 활동기에는 나뭇잎을 말아서 1-3마리가 은신하는 경우도 있다. 6월에서 8월에 출산과 포육이 이루어지며, 새끼 1-2마리를 낳는다. 일본에서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낮에도 활동하며, 약 10ha의 행동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국내에서의 생물학적 자료는 거의 없다.

● 분포 현황

1960년 이전까지는 북한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남한에서는 기록만 있을 뿐 본 종이 실제 서식하는지는 의문시 되어왔다. 그 후 2011년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수행한 산림성 박쥐류 연구에 의해 경북 소백산, 충북 월악산, 강원도 화천, 경기도 포천(국립수목원), 제주도에 실체가 확인되었다.

● 서식지 동향

최근 강원도, 충청도, 경기도, 경북 일원에서 실체가 확인되었을 뿐 구체적인 서식지 동향에 관한 자료는 없다.



● 개체수 현황

현재 전국에 서식하는 개체수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할만한 자료는 없다.

● 분류학적 특성

다수의 아종이 보고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작은관코박쥐는 *Murina ussuriensis* Ognev, 1913으로 분류한다.

● 위협 요인과 보호 대책

산림성 박쥐인 본 종의 서식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산림 개간 및 벌채 등으로 인해 서식지 감소가 일어나고 있다. 분포현황 및 생태에 관한 연구수행 및 그에 따른 서식지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 특기 사항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물 II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2012년).

● 평가 결과: EN B2ab(iii)

1931년 국내에서는 처음 발견되었다가, 1960년 뱀의 위 내용물에서 추출한 불완전한 표본 3점만이 알려져 왔다. 최근 강원, 충청, 경기 그리고 경북 지역에서 서식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기준 B2ab(iii)에 의해 위기종으로 평가되나, IUCN에서는 관심대상으로, 그리고 중국에서는 미적용으로 평가했다.

● 참고문헌

윤명희, 한상훈, 오흥식, 김장근. 2004. 한국의 포유동물. 동방미디어.

윤명희. 2011. 한국의 척추동물(박쥐류). 국립생물자원관.

한상훈, Dai Fukui, 정철운, 최용근, 김선숙, 전주민. 2011. 산림성 박쥐류의 종다양성 및 계통연구 (1). 국립생물자원관. 18-19.

中山知洋, 村山良子, 佐藤雅彦, 前田喜四雄. 2009. 北海道北部でのコテングコウモリ *Murina ussuriensis* の行動圏および隠れ家. 利尻研究(28): 83-85.

Tsytsulina, K. 2008. *Murina ussuriensis*. In: IUCN 2011.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Version 2011.2.

Won, C. 1996. Mammals of Korea: Current status and zoogeography. Ph.D dissertation of University of Arkansas.

Murina ussuriensis was known to be mainly distributed through North Korea. Its existence is in doubt in South Korea. However, recently several populations were found at Kangwon, Kyunggi, Kyungbuk, Chungbuk and Jeju.

집필자: 정철운(국립공원관리공단)

담비

Martes flavigula
(Boddaert, 1785)

분류학적 위치

식육목(Carnivora) 족제비과(Mustelidae)

영명: Yellow-throated Marten

IUCN 범주: LC(관심대상)

● 요약

담비속 포유류 중 가장 대형으로 전국 내륙 산악지대에 서식한다. 최근 서식지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 형태

담비속 포유류 중에서 가장 대형으로, 성체의 경우 몸통의 길이 590–680mm, 꼬리의 길이 400–450mm, 뒷다리의 길이 100–140mm, 귀의 길이 35–50mm이다. 몸통은 가늘고 길며 꼬리는 몸통 길이의 2/3 정도이다. 겨울털은 흑갈색, 목은 백색, 가슴은 금빛을 띤 황색, 등의 앞부분은 황색 털이 섞여 있는 흑갈색, 몸 뒷부분은 흑갈색, 다리와 꼬리는 검은색이다.

● 생물학적 특성

항문선에서 나오는 분비물로 자신의 세력권을 표시한다. 잡식성으로 포유류부터 조류, 과일, 도토리 등을 먹는다. 발정기는 여름이며, 임신 기간은 6개월 정도이고, 새끼를 3–5마리 낳는다.

●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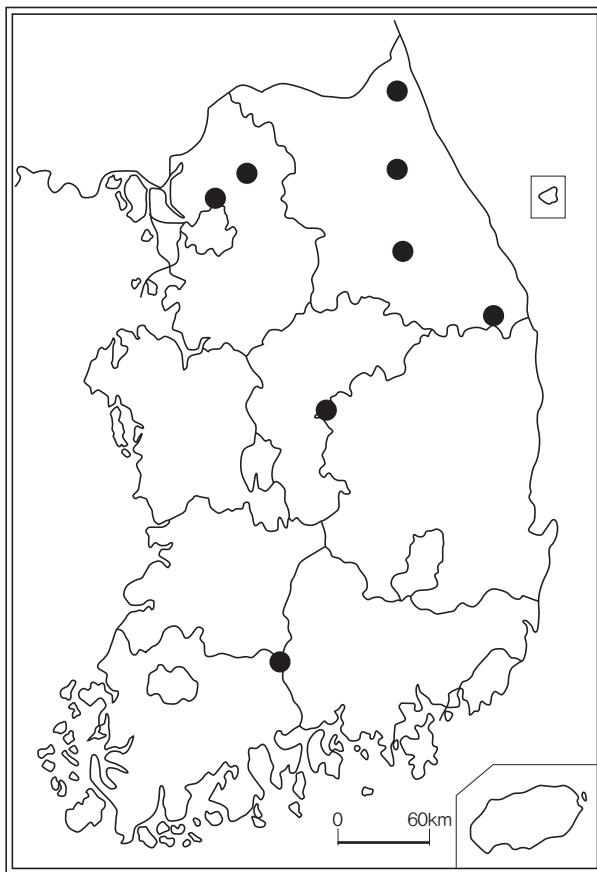
경기도 광릉, 서울 부근, 중부, 설악산, 속리산, 지리산 등 전국 내륙 산악지대에 분포한다.

● 서식지 동향

서식지가 주로 산악지대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도건설, 수종갱신 및 산악도로 건설 등으로 인해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다.

● 개체수 현황

서식 개체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나 서식지의 감소로 인해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강 일대에 극소수가 잔존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 분류학적 특성

다수의 아종이 보고되고 있다.

● 위협 요인과 보호 대책

산림 환경 변화에 따른 피해를 막고, 서식지 단편화를 막는 방안을 모색해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특기 사항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물 Ⅱ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2012년).

● 평가 결과: VU A2cd; B2ab(iii, iv)

과거에는 한반도 중동부 지역에서 흔히 관찰되던 포유류 중 하나였으나, 1980년대부터 산림 파괴에 따른 서식 공간 부족으로 남부 지방에서는 개체군이 급감했고, 분포역도 감소했다. 1950년 이전에 비해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준 A2cd; B2ab(iii, iv)에 의해 취약으로 평가되는데, IUCN에서는 관심대상으로, 중국에서는 준 위험으로 평가했다.

● 참고문헌

- 우한정, 최청일. 2002. 동강유역의 포유동물상. 한국육수학회지 35: 331-336.
원병휘. 1967. 「한국동식물도감」제7권 동물편(포유류). 문교부.
원흥구. 1968. 조선집승류지. 과학원출판사.
윤명희, 한상훈, 오홍식, 김장근. 2004. 한국의 포유동물. 동방미디어. 서울.
이정일. 1993. 강원도 포유동물의 분포 밀도에 관한 기초 연구. 동국논집 12: 49-78.
Abramov, A., R.J. Timmins, S. Robertson, B. Long, Than Zaw and J.W. Duckworth. 2008. *Martes flavigula*. In: IUCN 2011.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Version 2011.2.
Won, C. 1996. Mammals of Korea: Current status and zoogeography. Ph.D dissertation of University of Arkansas.

Martes flavigula was widely distributed in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the deforestation since 1980s has fragmented and reduced the populations.

집필자: 오홍식(제주대학교)

무산쇠족제비

Mustela nivalis
(Linnaeus, 1766)

분류학적 위치

식육목(Carnivora) 족제비과(Mustelidae)

영명: Least Weasel

IUCN 범주: LC(관심대상)

● 요약

족제비과 동물 중에서 가장 소형 종으로 종의 생물학적 정보를 축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형태

식육목 포유류 중에서 가장 작은 동물이다. 꼬리는 매우 짧고 끝이 뾰족하며, 다리도 매우 짧다. 암수 간에 성적크기이형이 뚜렷하다. 겨울철에는 꼬리 끝을 제외한 몸 전체가 백색을 띠며, 여름에는 어두운 갈색을 띤다.

● 생물학적 특성

주로 설치류를 잡아먹고 살아간다. 교미는 3월에 시작되며, 새끼는 한배에 3-9마리를 낳는다.

● 분포 현황

제주도와 울릉도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분포한다.

● 서식지 동향

주로 고산지대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간혹 인가 근처에서도 발견되기도 한다. 강원도 오대산과 설악산, 경북 청도 운문산, 경기도 성남, 그리고 지리산 등지에서 서식이 확인되었다.

● 개체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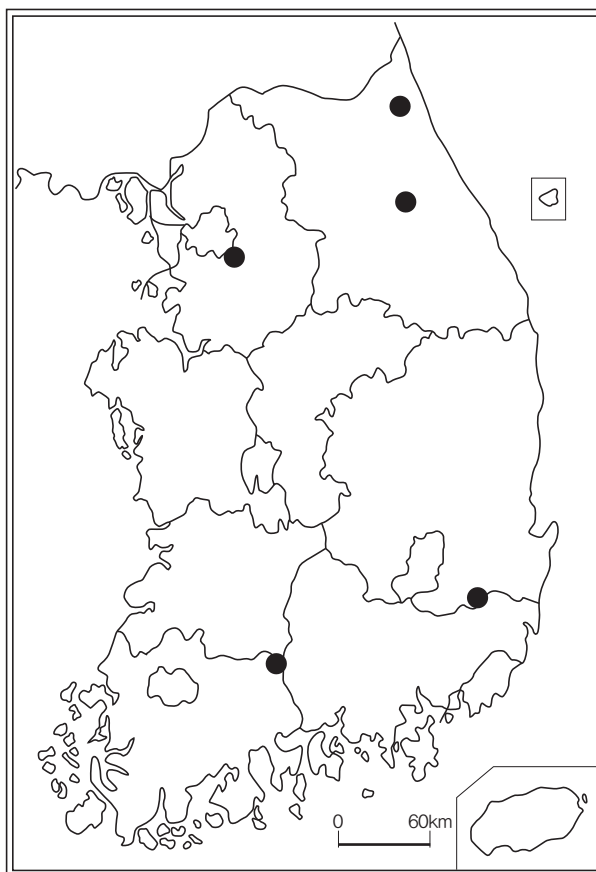
정확한 개체수나 개체군 수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하다.

● 분류학적 특성

우리나라에 분포하고 있는 무산쇠족제비는 유라시아와 미국 북부까지 분포하고 있는 집단과 동일종으로 분류한다.

● 위협 요인과 보호 대책

정보가 부족하다.



● 특기 사항

현재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물 Ⅱ급 동물로 지정되어 있다(2012년).

● 평가 결과: VU A2cd; B2ab(iii, iv)

1960년대까지는 여러 장의 모피가 매년 거래되었으나, 이후 서식지 파괴와 남획으로 인해 개체군이 감소했고, 10여 곳 미만의 자생지만이 확인되었다. IUCN에서는 관심대상으로, 중국에서는 취약으로 평가했다.

● 참고문헌

원병휘. 1967. 「한국동식물도감」제7권 동물편(포유류). 문교부.

원홍구. 1968. 조선집승류지. 과학원출판사.

윤명희, 한상훈, 오홍식, 김장근. 2004. 한국의 포유동물. 동방미디어. 서울.

Tikhonov, A., P. Cavallini, T. Maran, A. Kranz, J. Herrero, G. Giannatos, M. Stubbe, J. Conroy, B. Kryštufek, A. Abramov, C. Wozencraft, F. Reid, and R. McDonald. 2008. *Mustela nivalis*. In: IUCN 2011.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Version 2011.2.

Won, C. 1996. Mammals of Korea: Current status and zoogeography. Ph.D dissertation of University of Arkansas.

Mustela nivalis was widely distribute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Until 1960s, several furs were traded annually. The existing populations were below 10.

집필자: 오홍식(제주대학교)

물개

Callorhinus ursinus
(Linnaeus, 1758)

분류학적 위치

기각아목(Pinnipedia) 바다사자과(Otariidae)

영명: Northern Fur Se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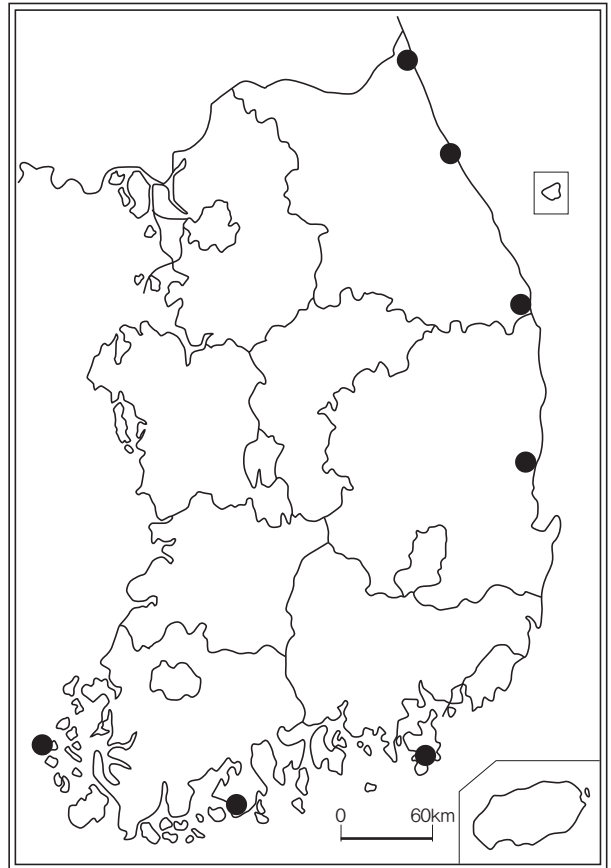
IUCN 범주: VU(취약)

● 요약

우리나라에서 여름과 가을에 바위 지역의 해변에서 발견된다. 대부분의 시간을 바다에서 보내며, 최근 어업과의 먹이 경쟁, 기후 변화에 따른 서식환경 변화 등으로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 형태

물개류는 콧바퀴로 콧바퀴가 없는 물범류와 구별되며 바다사자와 더 유사하다. 크기는 바다사자류보다 대체적으로 더 작으며, 보통 수컷의 몸무게가 암컷보다 약 5배까지도 더 나갈 수 있다. 꼬리는 매우 짧고, 귀가 작다. 머리는 튼튼하고 목이 굵으며 몸은 방추형이다. 다리는 모두 물고기의 지느러미 모양이어서 헤엄치기에 적합하며, 앞지느러미가 상대적으로 길고, 뒷지느러미를 앞으로 회전할 수 있어 다리로 걸을 수 있는 점이 물범류와 다르다. 수컷은 성숙하면 목으로부터 어깨에 걸쳐 갈기가 생긴다. 보호털 밑으로 속털이 뽕뽕하게 나 있으며, 주기적으로 털갈이를 한다.



● 생물학적 특성

태어날 때 새끼는 몸길이 60–65cm에 몸무게는 4–6kg이지만 성장하게 되면 암컷은 몸길이 1.5m, 몸무게 60kg까지, 수컷은 몸길이 2.1m, 몸무게 270kg까지 성장한다. 수컷의 수명은 18–20년, 암컷의 수명은 20–25년으로 알려졌다. 짝짓기와 번식기는 6–7월로 임신 기간이 11.5개월이며, 임신한 암컷은 새끼 한 마리를 낳고 약 1주일간 새끼를 떠나지 않고 돌본다. 이후에는 다시 사냥하러 바다로 나가며, 이유기가 될 때 까지 5–7일 간격으로 새끼에게 돌아와 수유한다. 이후에 다시 교미하며, 모든 바다사자와 동물들은 약 4개월간의 착상지연 기간이 있다. 교미한 암컷은 이듬해에 출산하며, 보통 매년 번식한다. 먹이는 주로 오징어, 청어, 명태, 정어리 등 어류와 갑각류 등이다.

● 분포 현황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에 동해를 거쳐 남해 및 서해 남부에 출현하며, 오후츠크해, 베링해 주변 해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분포한다. 주로 북위 42도 이북의 북태평양의 동서 연안 및 해양 지역의 도서 지역에서 번식하고, 겨울

에 북위 34도 해역까지 남하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에 동해를 거쳐 남해 및 서해 남부에 가끔 출현한다.

● 서식지 동향

물개들이 서식지하는 곳의 어류를 남획해 물개들의 먹이자원의 감소 등으로 서식환경이 매우 열악해졌으며, 엘리뇨 현상과 같은 환경변화에 의해 서식환경이 변화해 물개들의 생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 개체수 현황

과거 동해안에서 물개류 중 가장 흔한 종이었다. 현재 전 세계의 생존 추정 개체수는 약 130만 마리이다. 6월부터 9월까지 번식을 위해 북태평양 해안에 밀집하는 개체수는 1백만 마리 이상이다. 2002년도에는 6차례에 걸쳐 강원도 고성군 연안에서 20여 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었다는 보도가 있다. 최근에는 2011년 3월 강원도 강릉시 앞 바다에서 물개 12마리가 동시에 관찰되었다.

● 분류학적 특성

우리나라에 출현하는 종은 바다사자과에 속하는 세 종 중 하나일 것으로 보고 있다.

● 위협 요인과 보호 대책

최근 어업과의 먹이 경쟁, 기후 변화에 따른 서식환경 변화, 범고래에 의한 공격, 그리고 혼획 등으로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현재 야생동식물보호법 및 해양생태계보전관리법의 보호대상으로 지정·보호하고 있어 보호요령 교육과 해당 법규의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특기 사항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동물 II급으로 지정되어 있다(2012).

● 평가 결과: VU A2d; B2ab(iv)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에 동해를 거쳐 남해 및 서해 남부에 출현하는데,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되고 있다. 개체군 수가 소수이다. IUCN과 중국에서는 모두 취약으로 평가했다.

● 참고문헌

원병희. 1967. 「한국동식물도감」 제7권 동물편(포유류). 문교부.

윤명희, 한상훈, 오홍식, 김장근. 2004. 한국의 포유동물. 동방미디어. 서울.

Gelatt, T. and L. Lowry. 2008. *Callorhinus ursinus*. In: IUCN 2011.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Version 2011.2.

National audubon society, 2008. Guide to MARINE MAMMALS OF THE WORLD. ALFRED A. KNOPF.

Callorhinus ursinus was distributed along coastal line. However, many of them were by-caught and found dead caught in a net.

집필자: 최병진(한국자연환경연구소)

붉은박쥐

Myotis formosus
(Hodgson, 1835)

분류학적 위치

익수목(Chiroptera) 애기박쥐과(Vespertilionidae)

영명: Hodgson's Bat

IUCN 범주: LC(관심대상)

● 요약

습도가 높은 굴이나 폐광에서 동면하며, 동면기를 제외하고는 산림 지역에서 서식한다.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동면을 취하며, 여름철 생태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털과 비막의 일부는 오렌지색이며, 귀 가장자리와 뒷발은 검은색이다.

● 형태

중형의 박쥐로 털, 비막의 일부, 귀는 선명한 오렌지색이다. 귀의 가장자리, 뒷발, 제1지는 검은색이며, 비막은 뒷발 발가락 기부에 부착되었다. 전완장 45-52mm, 머리와 몸 45-70mm, 꼬리 43-52mm, 귀 15-18mm, 이주 6-9mm, 발톱을 포함한 뒷발의 길이 11-13mm 이다.

● 생물학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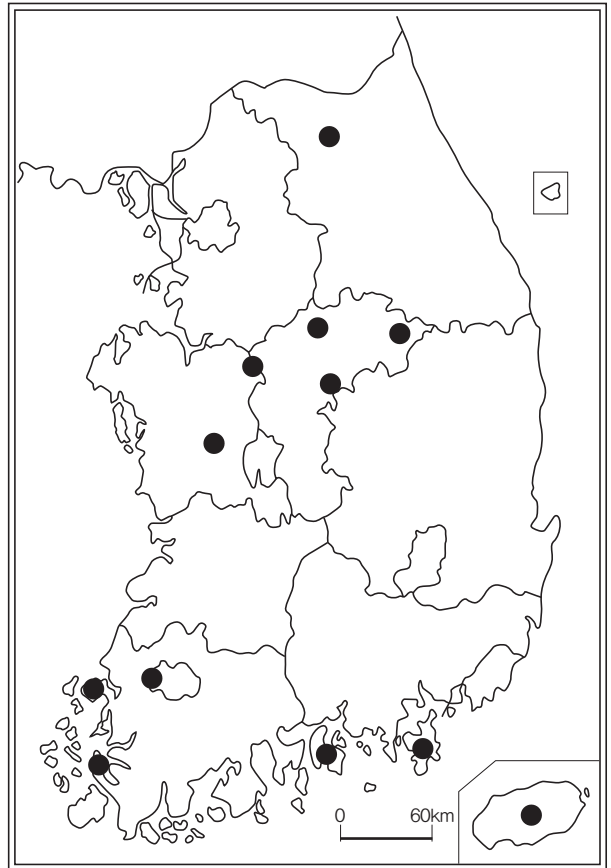
주로 고목이나 산림에서 휴식을 취하고 겨울철에만 동굴이나 폐광에 들어가 동면한다. 동면기간은 10월부터 이듬해 4-5월까지이며, 습도가 높고 따뜻한 동굴이나 폐광 안에서 겨울잠을 잔다. 동면 시에는 동굴 내에서 가장 온도가 높은 지점에서 동면하며 다른 박쥐보다 일찍 동면에 들어가서 늦게 나온다. 여름철에는 산림 지역 내 잎이 무성한 나뭇가지에 거꾸로 매달려 휴식을 취하며, 5,6월에 새끼 1마리를 낳는다. 초음파를 이용해서 야간 곤충을 포획한다.

● 분포 현황

아시아 지역에 광범위하게 서식하고 있으며, 한국, 일본, 타이완, 중국 남부, 말레이시아 등에 분포한다. 남한에서는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에 서식하고 있으며, 주로 충청도, 전라도, 경북 북부 지역에서 관찰된다.

● 서식지 동향

동면기간이 길며, 주로 자연동굴과 폐광을 이용하기 때문에 임도건설 및 간벌 작업으로 동면처가 파괴되고 있다. 또한 안전상의 이유로 폐광 입구 폐쇄에 따른 서식지 감소가 발생하기도 한다.



● 개체수 현황

전국에 드물게 서식하나, 주로 전라도와 충청도를 중심으로 많게는 십여 개체가 동면 중인 것이 확인된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400여 개체가 서식하고 있다. 현재는 서식지의 감소로 인해 개체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 분류학적 특성

다수의 아종이 보고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붉은박쥐는 *Myotis formosus tsuensis* Kuroda로 분류한다.

● 위협 요인과 보호 대책

임도 건설로 인한 산림파괴와 자연동굴 및 폐광의 입구 폐쇄에 따른 서식지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동면굴 조사 및 해당 동면처에 대한 보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안전 및 환경오염에 따른 동굴과 폐탄광 입구 폐쇄 시 박쥐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가로 창살 형태의 안전 출입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서식지내 미기후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입구 크기에 대한 변화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 특기 사항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물 I급(2012년) 및 천연기념물 제452호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 평가 결과: VU A2cd; D1

한반도 서부 지역에 주로 분포했으나, 서식지로 사용하는 동굴의 훼손으로 인해 개체수가 급감했다. 전국 40여 곳에서 서식하나, 전체 개체수는 400여 개체 미만이다. IUCN에서는 관심대상으로 평가했으나, 중국에서는 취약으로 평가했다.

● 참고문헌

- 김선숙. 2010. 동굴성 박쥐 7종의 동면생태와 행동 연구. 경희대학교 이학박사 학위 논문.
- 영산강유역환경청. 2006. 서남해안 붉은박쥐 서식현황. 3-19.
- 윤명희, 한상훈, 오홍식, 김장근. 2004. 한국의 포유동물. 동방미디어. 60-61.
- 윤명희. 2011. 한국의 척추동물(박쥐류). 국립생물자원관. 32-36.
- 한상훈, Dai Fukui, 정철운, 최용근, 김선숙, 전주민. 2011. 산림성 박쥐류의 종다양성 및 계통연구 (1). 국립생물자원관. 6-7.
- Francis, C., P. Bates, G. Csorba, S. Molur and C. Srinivasulu. 2008. *Myotis formosus*. In: IUCN 2011.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Version 2011.2.
- Won, C. 1996. Mammals of Korea: Current status and zoogeography. Ph.D dissertation of University of Arkansas.
- Yoon, M.H. 1990. Taxonomical study on four *Myotis* (Vespertilionidae) species in Korea. Kor. J. Syst. Zool. 6: 173-192.

Myotis formosus was distributed through 40 sites in which a total 400 individuals were found. However, the habitats, including caves and mines, were destroyed and the populations were declined.

집필자: 오홍식(제주대학교)

산양

Naemorhedus caudatus
(Milne-Edwards, 1867)

분류학적 위치

소목(Artiodactyla) 소과(Bovidae)

영명: Long-tailed Goral

IUCN 범주: VU(취약)

●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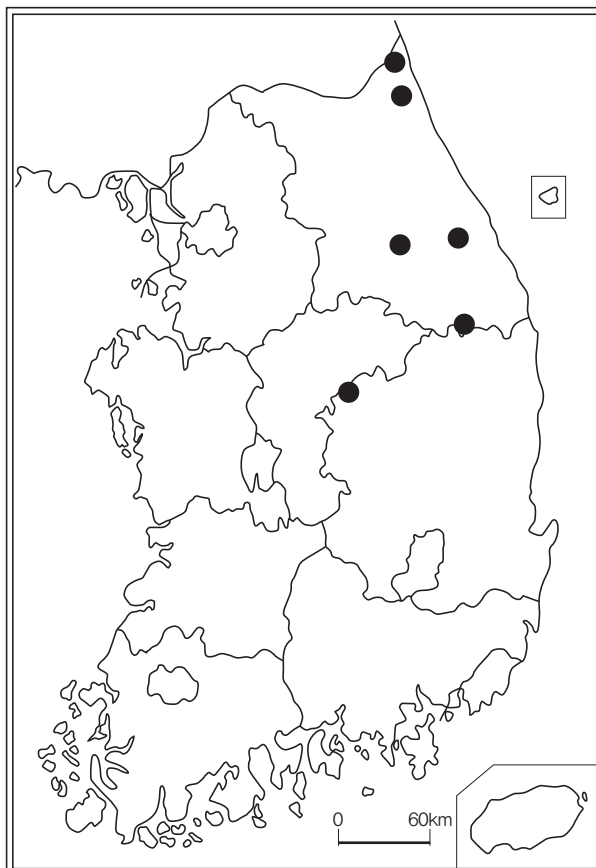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물 I급, 멸종위기예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Appendix I에 등재되어 있다.

● 형태

소과의 포유류 중에서 중형에 속한다. 머리와 몸통의 길이 1,050-1,300mm, 꼬리의 길이 110-160mm, 귀의 길이 120-130mm, 뒷발의 길이 300mm, 뿔의 길이는 130-140mm이다. 암수 모두 뒤쪽으로 굽은 작은 뿔이 있다. 몸체의 털은 회갈색이지만 일부 털의 끝은 옅은 흑갈색이며, 발과 뿔은 검은색이다.

● 생물학적 특성

경사가 가파른 산악 지역 중에서도 바위가 있거나 다른 동물의 접근이 어려운 험한 지형에 서식한다. 단독 혹은 무리생활을 하며, 번식은 1-2년에 한번 이루어지는데 9-10월이 교미 시기이다. 새끼는 4-6월 한번에 1-2마리를 낳는다.



● 분포 현황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분포하는데, 강원도와 충청북도 월악산, 경상북도 주흘산, 설악산, 오대산, 대관령, 태백산 일대, 비무장 지대 주변에 분포한다. 월악산국립공원의 경우 1980년대 이후 흔적이 관찰되지 않아 증식된 개체들과 강원도에서 포획한 개체들을 방사한 바 있다.

● 서식지 동향

가파른 바위가 있거나 다른 동물이 접근하기 어려운 험한 산악 산림 지대에 서식한다.

● 개체수 현황

우리나라 산양의 개체수 현황에 대해 양(2002)이 전국에 690-784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현재 자세한 개체수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며, 강원도 일부 지역 외에는 적은 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분류학적 특성

우리나라의 산양은 다른 종과 달리 안와하선이 없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산양은 세계적으로 6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 분포하고 있는 종은 동남아, 중국 동부, 시베리아 남동부에 분포하는 종과 같은 종이다.

● 위협 요인과 보호 대책

서식지 단절과 훼손, 밀렵 등이 종의 존속을 위협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서식지 단편화를 극복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 특기 사항

국립공원종복원센터에서 복원 사업이 진행 중이다.

● 평가 결과: VU C2a(i); D1

태백산맥 일대에 널리 분포하고 있었으나, 과도한 사냥과 서식지 개발로 개체수가 감소했다. 1982년 조사에서는 40여 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했으나, 2002년에는 800여 개체가 서식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 천적인 호랑이, 표범 등이 사라져 개체 증식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냥이나 인위적인 영향으로 위협에 처해 있다. 기준 C2a(i); D1에 의해 취약으로 평가되며, IUCN에서도 취약으로 평가했으나, 중국에서는 위기로 평가했다.

● 참고문헌

- 박인주. 2008. 중국과 동북아 지역의 산양(*Naemorhedus caudatus*) 연구. 한국산양의 합리적인 복원과 활성화를 위한 양구군 국제심포지움자료집. 57-63쪽.
- 양병국. 2002. 한국산 산양의 분류, 생태 및 개체군 현황.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원병휘. 1967. 「한국동식물도감」 제7권 동물편(포유류). 문교부.
- 원병휘, 이해풍. 1969. 한국산 포유동물의 생태에 관한 연구. 동국대 논문집 6-7: 59-85.
- 원홍구. 1968. 조선집승류지. 과학원출판사.
- 윤명희, 한상훈, 오홍식, 김장근. 2004. 한국의 포유동물. 동방미디어, 서울.
- 이배근, 양두화, 손장익, 이진흥, 석권희, 윤만진. 2008. 월악산 방사 산양의 행동권 분석. 한국환경생태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49-51.
- 정종렬. 2008. 이북에 서식하는 산양에 대하여. 한국산양의 합리적인 복원과 활성화를 위한 양구군 국제심포지움자료집. 57-63쪽.
- 최태영. 2002. 설악산국립공원의 산양특별보호구역 설정. 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석사학위논문.
-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멸종위기종복원센터. 2009. 2007-2008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산양.
- Duckworth, J.W., J. MacKinnon and K. Tsytulina. 2008. *Naemorhedus caudatus*. In: IUCN 2011.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Version 2011.2.
- Won, C. 1996. Mammals of Korea: Current status and zoogeography. Ph.D dissertation of University of Arkansas.

Naemorhedus caudatus was found along the mountainous areas of Taebak and was a relatively common large mammal. However, overhunting and habitat destruction due to clearing of forests have decreased its populations.

집필자: 김태욱(제주대학교)

삾

Prionailurus bengalensis
(Kerr, 1792)

분류학적 위치

식육목(Carnivora) 고양이과(Felidae)

영명: Leopard Cat

IUCN 범주: LC(관심대상)

● 요약

한때 절멸 위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도 했으나 최근에 종에 대한 관심 증가로 서식정보가 알려지면서 개체군 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림 지역이나 산간 개울가 등지에 주로 서식하며,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이다.

● 형태

털의 색깔은 황색 혹은 황갈색이며, 몸에 반점이 배열되어 있다. 흑갈색 무늬 두 줄과 흰색 무늬가 이마에서부터 코 양 옆까지 이어져 있다. 머리와 몸통의 길이는 450–550mm, 꼬리의 길이는 150–400mm, 귀의 길이는 33–42mm, 뒷발의 길이는 105–122mm이다.

● 생물학적 특성

먹이 습성은 설치류, 조류, 곤충 등을 다양하게 잡아먹는 것으로 알려졌고, 우리나라에서 연구된 바에 의하면 설치류를 가장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이, 2007). 교미 시기는 2월에서 3월이고, 60일 정도의 임신 기간을 거쳐 새끼 2–3마리를 낳는다. 야행성 동물로 은신처는 땅의 구멍이나 나무뿌리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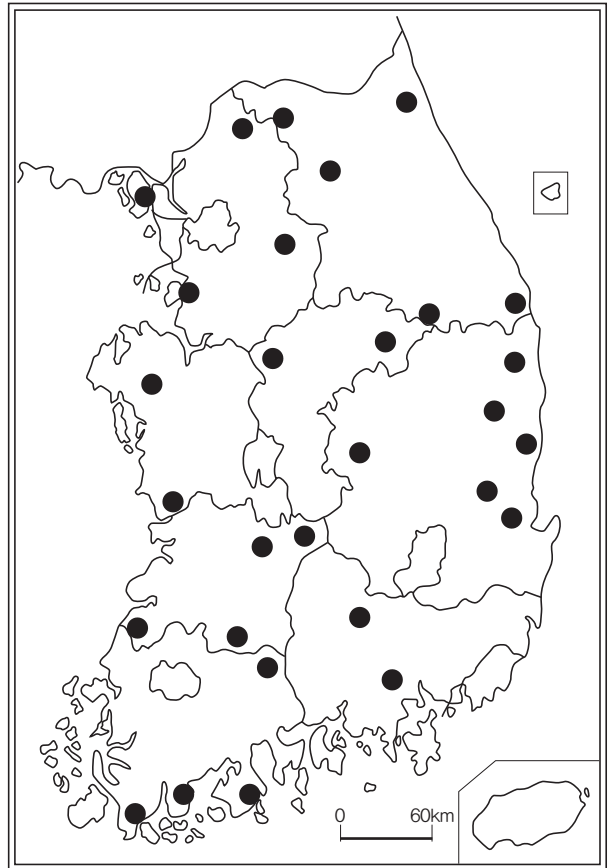
전국적으로 분포하나 제주도에서는 1985년 이후 자취를 감춘 것으로 알려졌다.

● 서식지 동향

산림, 계곡, 연안, 관목 지역에 주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에서 로드킬에 의한 피해가 자주 관찰되며, 향후 서식지 파괴에 의한 피해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개체수 현황

정확한 개체수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



● 분류학적 특성

속명은 Wozencraft에 의해 1993년 *Felis*에서 *Prionailurus*로 바뀌었다. 삶은 전 세계적으로 10개 혹은 그 이상의 아종으로 나뉘며, 우리나라에 분포하고 있는 종은 *Prionailurus bengalensis*로 분류하며, 중국 동부 지역, 러시아 일부 지역 그리고 일본의 대마도 지역에 분포하는 삶과 동일 아종으로 취급한다.

● 위협 요인과 보호 대책

서식지를 중심으로 로드킬이나 밀렵에 의한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본 종의 생태학적 특성에 기초를 둔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

● 특기 사항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물 II급 동물로 선정되었다(2012년).

● 평가 결과: VU* A2cd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걸쳐 서식하지만, 사냥과 서식지 파괴, 로드킬 등에 의해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다. 최근 2년 6개월에 걸쳐 100여 개체가 로드킬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원격무선추적을 실시한 5개체 중 3개체가 사망했으며, 이중 2마리가 로드킬로 사망했다. 기준 A2cd에 의해 위기로 평가되지만, IUCN에서는 관심대상으로, 중국에서는 취약종으로 평가해,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

● 참고문헌

- 원병휘. 1967. 「한국동식물도감」제7권 동물편(포유류). 문교부.
- 원홍구. 1968. 조선집승류지. 과학원출판사.
- 윤명희, 한상훈, 오홍식, 김장근. 2004. 한국의 포유동물. 동방미디어, 서울.
- 이병희, 원창만, 조영석, 한상훈. 2008. 한반도 삶의 분류학적 재검토 및 지리적 변이 연구. 국립생물자원관.
- 이오선. 2007. 한국산 삶(*Prionailurus bengalensis*)의 식이습성 및 서식지 선호도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이학석사학위 논문.
- 최태영. 2007. 포유류의 도로횡단 특성과 행동권 분석을 통한 로드킬 저감방안.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최태영, 박종화. 2009. 농촌지역의 삶(*Prionailurus bengalensis*) 행동권. 한국환경생태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9(1): 56-58.
- Sanderson, J., S. Sunarto, A. Wilting, C. Driscoll, R. Lorica, J. Ross, A. Hearn, S. Mujkherjee, J.A. Khan, B. Habib and L. Grassman. 2008. *Prionailurus bengalensis*. In: IUCN 2011.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Version 2011.2.
- Won, C. 1996. Mammals of Korea: Current status and zoogeography. Ph.D dissertation of University of Arkansas.

Prionailurus bengalensis was once ranged throughout the Korean Peninsula. Until 1950 it was fairly abundant. However, excessive hunting, destruction of its habitats and recent road-kills have declined its populations.

집필자: 오홍식(제주대학교)

수달

Lutra lutra

Linnaeus, 1758

분류학적 위치

식육목(Carnivora) 족제비과(Mustelidae)

영명: Common Otter

IUCN 범주: NT(준위협)

● 요약

국제보호동물로 우리나라 섬진강, 거제도, 양양, 강릉, 지리산, 보성강, 진안 등지에 서식한다. 최근 연구조사가 증가해 분포 지역은 여러 지역에서 확인되고 있으나 개체군 밀도는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 형태

족제비과 포유류 중 대형에 속한다. 성체의 경우 몸통의 길이 650–1,100mm, 꼬리의 길이 300–500mm, 뒷다리의 길이 118–134mm, 귀의 길이 23–28mm이다. 몸은 수중 생활을 하기에 알맞게 발달되었다. 다리는 짧고 발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있어서 헤엄치기에 적합하다. 머리는 납작한 원형이며 코는 둥글고 귓바퀴는 매우 작다. 몸 전체에 털이 뽀뽀하게 나 있고, 송곳니가 발달되어 있다.

● 생물학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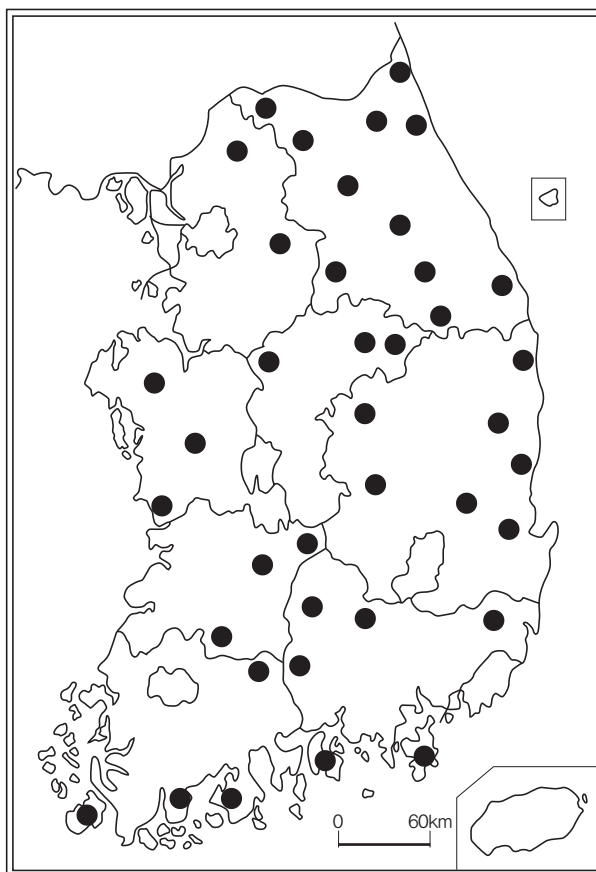
수계와 육지를 이용하며 하천 물가나 호숫가 주변의 바위구멍이나 나무뿌리 밑에 구멍을 파고 산다. 야행성이며, 시각, 청각, 후각이 발달했다. 서식하는 환경에 따라 어류, 포유류, 양서·파충류, 갑각류까지 다양한 먹이를 이용한다. 교미 시기는 1–2월, 임신 기간은 60–70일이고, 한 번에 새끼 1–4마리를 낳는다.

● 분포 현황

국제보호동물로 영국, 유럽에서부터 캄차카, 사할린, 중국 동북지방, 아삼, 히말라야까지 시베리아를 제외한 유라시아의 하천변에 넓게 분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섬진강, 거제도, 양양, 강릉, 지리산, 보성강, 진안 등지에 서식한다.

● 서식지 동향

수질오염으로 인한 먹이 감소, 서식환경의 변화로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다.



● 개체수 현황

동강 지역의 우거진 노거수림에 밀도가 높게 나타나나, 전국적으로 밀도가 낮은 편이다. 전국을 750개 구획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255개 구획에서 평균 1.7개의 적은 수의 배설물이 발견되었다.

● 분류학적 특성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수달은 분류학적으로 유럽, 아시아, 북아프리카에 분포하고 있는 *Lutra lutra*에 속한다.

● 위협 요인과 보호 대책

수질오염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것이 필요하고, 서식지내 인위적인 구조물을 설치할 때에는 동물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한 공사기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밀렵은 야생동물의 멸종에 주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특기 사항

천연기념물 제330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2012년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물 I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 평가 결과: VU A2c

과거에는 전국의 하천에 흔하게 분포했으나, 서식지 파괴, 수질 오염 그리고 모피를 위한 남획 등으로 인해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했다. 특히 경기도 일대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고, 전국적으로 개체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준 A2c에 의해 취약으로 평가되는데, IUCN에서는 준위협으로, 중국에서는 위기로 평가했다.

● 참고문헌

- 우한정, 최청일. 2002. 동강유역의 포유동물상. 한국육수학회지 35: 331-336.
원병희. 1967. 「한국동식물도감」 제7권 동물편(포유류). 문교부.
원흥구. 1968. 조선집승류지. 과학원출판사.
윤명희, 한상훈, 오홍식, 김장근. 2004. 한국의 포유동물. 동방미디어, 서울.
이정일. 1993. 강원도 포유동물의 분포 밀도에 관한 기초 연구. 동국논집 12: 49-78.
조영석, 원창만, 김주필. 2006. 한국 수달(*Lutra lutra*)의 분포 현황. 환경생물학회지 24: 89-94.
한성용. 1998. 한국 수달의 생태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이박박사학위 논문.
Ruiz-Olmo, J., A. Loy, C. Cianfrani, P. Yoxon, G. Yoxon, P.K. de Silva, A. Roos, M. Bisther, P. Hajkova and B. Zemanova. 2008. *Lutra lutra*. In: IUCN 2011.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Version 2011.2.
Won, C. 1996. Mammals of Korea: Current status and zoogeography. Ph.D dissertation of University of Arkansas.

Lutra lutra was widely distribute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the destruction of riverine vegetation, water pollution and unreasonable collection for fur have declined the number of its populations to the endangered level.

집필자: 오홍식(제주대학교)

토끼박쥐

Plecotus auritus
(Linnaeus, 1758)

분류학적 위치

익수목(Chiroptera) 애기박쥐과(Vespertilionidae)

영명: Brown Long-eared Bat

IUCN 범주: LC(관심대상)

● 요약

전형적인 산림성 박쥐로 몸의 크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귀가 큰 것이 특징이다. 남한에서는 강원도와 경북 북부 지역의 동굴이나 폐광에서 관찰된다. 국내 토끼박쥐의 생태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 형태

중형의 박쥐로 몸의 털은 암갈색 또는 담갈색이며, 귀와 이주가 매우 긴 것이 특징이다. 머리와 몸 42-60mm, 꼬리 32-55mm, 전완장 34-45mm, 귀 31-43mm, 이주 14-17mm, 꼬리 43-47mm, 익장 230-270mm, 무게 5-2g이다. 꼬리뼈는 퇴간막 밖으로 1.8-2.2mm 가량 돌출되어 있으며, 비막은 뒷발 발가락 기부부에 부착되었다.

● 생물학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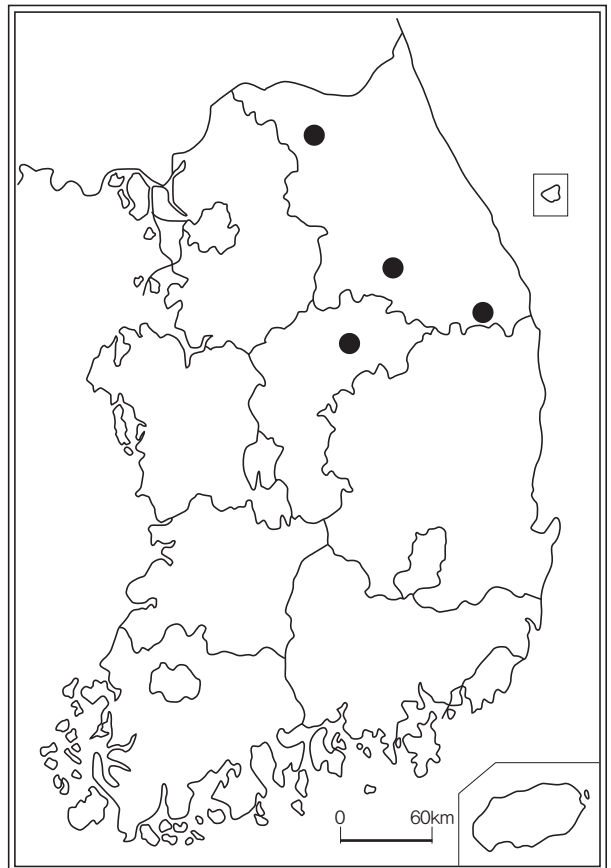
산림성 박쥐로 환경에 따라서 나무 구멍, 동굴, 가옥을 이용한다. 곤충을 주식으로 하며, 겨울에는 주로 습도가 높은 동굴이나 폐광에서 동면한다. 동면은 주로 11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이루어지며, 단독 또는 몇 개체가 모여서 동면한다. 나비, 나방, 강도래 등의 곤충을 주식으로 하며, 초여름에 새끼 1마리를 낳는다. 다른 박쥐에 비해서 중간 또는 약한 강도의 초음파를 발산하며, 40-50kHz에서 가장 강한 초음파를 발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먹이 사냥은 산림 지역에서 하며, 느린 속도로 팔랑거리면서 비행한다. 먹이는 지면이나 식물 등에 붙어 있는 곤충을 낚아채는 방법으로 포획하며, 공중에서 비행중인 곤충을 낚아채는 방법으로 사냥하기도 한다. 국내에서 서식하는 토끼박쥐의 생태는 알려지지 않았다.

● 분포 현황

중부 이북 지방에 분포하며, 주로 강원도와 경북 북부의 산간지대에 분포한다. 강원도 지방의 폐광 등에서 극히 일부의 개체가 매년 동면 중인 것이 관찰되기도 한다.

● 서식지 동향

서식지가 주로 산악지대와 동굴, 폐광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도건설, 간벌작업, 산악도로 건설 등으로 인



해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다.

● 개체수 현황

현재 전국에 서식하는 개체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부족하나, 기존의 토끼박쥐 서식지에 대한 조사결과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며,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소수의 개체가 서식하고 있다. 최근 조사 결과에 의하면, 서식지 훼손으로 100여 개체 미만이 10여 곳에 분산되어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분류학적 특성

유라시아와 북아프리카의 온대 지역, 북미, 캐나다 남부, 멕시코 등에 7종이 알려졌다. 남한에서 서식하는 토끼박쥐는 *P. a. uenoi*로 분류하기도 한다.

● 위험 요인과 보호 대책

현재까지 알려진 서식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해당 서식지나 주변 환경을 보호해 서식환경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해당 서식지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개체수 증감에 대한 모니터링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안전 및 환경오염에 따른 인위적인 자연동굴 및 폐탄광 폐쇄시 서식지 내 미기후 변화 예방 및 박쥐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

● 특기 사항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물 II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2012년).

● 평가 결과: VU* A2cd; D1

주로 강원 이북에 분포했으나, 서식지 훼손으로 10여 곳에 분산되어 서식하고 있으며, 개체수는 100개 미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준 D1에 의해 위기로 평가되나, IUCN에서는 관심대상으로, 중국에서는 준위협으로 평가해,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

● 참고문헌

- 김선숙. 2010. 동굴성 박쥐 7종의 동면생태와 행동 연구. 경희대학교 이학박사학위 논문.
- 윤명희, 손성원. 1989. 한국산 박쥐류의 계통분류학적 연구 1. Rhinolophidae의 1종과 Vespertilionidae의 6종에 대한 분류학적인 재검토 및 한국산 익수류상의 천이. Korean J. Zool. 32: 374-392.
- 윤명희, 한상훈, 오홍식, 김장근. 2004. 한국의 포유동물. 동방미디어. 66-68.
- 윤명희. 2011. 한국의 척추동물(박쥐류). 국립생물자원관. 82-85.
- 한상훈, Dai Fukui, 정철운, 최용근, 김선숙, 전주민. 2011. 산림성 박쥐류의 종다양성 및 계통연구 (1). 국립생물자원관. 19-20.
- Hutson, A.M., F. Spitzenberger, S. Aulagnier, I. Coroiu, A. Karataş, J. Juste, M. Paunovic, J. Palmeirim and P. Benda. 2008. *Plecotus auritus*. In: IUCN 2011.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Version 2011.2.
- Won, C. 1996. Mammals of Korea: Current status and zoogeography. Ph.D dissertation of University of Arkansas.

Plecotus auritus was mainly distributed in Kangwon. However, the destruction of habitats made the population fragmented into 10 sites. As a result, the number of individuals were estimated about 100.

집필자: 정철운(국립공원관리공단)

하늘다람쥐

Pteromys volans
(Linnaeus, 1758)

분류학적 위치

설치목(Rodentia) 청설모과(Sciuridae)

영명: Siberian Flying Squirrel

IUCN 범주: LC(관심대상)

● 요약

한때 절멸위기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으나 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 전국적으로 서식이 확인되고 있다. 서식지 주변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 형태

등은 옅은 회색계통과 갈색계통이 있다. 겨울털에서는 옅은 색으로 변하며, 은회색에 가깝다. 배면은 백색이며, 눈 주위는 흑갈색이다. 다른 설치류에 비해 눈이 매우 크며, 귀는 짧고 폭이 넓다. 꼬리는 편평하고 몸통보다 짧다. 앞발과 뒷발 사이에 피부막이 발달한 비막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두개골은 절치공이 길고, 그 후단은 안와하공의 하단에 있는 결전전단의 위치보다 후방에 이른다. 체중 80–120g. 머리와 몸통의 길이 146–163mm, 꼬리의 길이 97.5–121.0mm, 뒷발의 길이 32–35mm, 귀의 길이 18.0–21.5mm, 두개골의 최대 길이 38.4–40.4mm이다.

● 생물학적 특성

야행성 소형 포유류로 나무와 나무 사이를 활공해 이동하는 특성이 있다. 번식은 1년에 1회 내지 2회에 걸쳐 이루어지며, 새끼를 2–6마리 낳는다. 나무껍질, 잎, 종자, 과일 등을 취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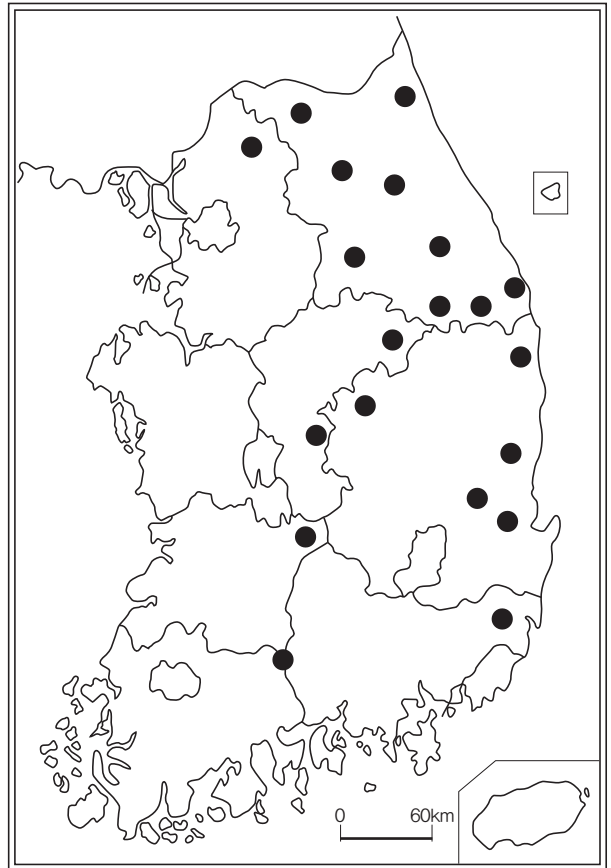
제주도와 울릉도 및 도서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널리 분포한다.

● 서식지 동향

전국 산악지대의 자연림과 성숙한 인공림에 서식한다.

● 개체수 현황

정밀 조사된 결과는 없으나 관찰되고 있는 빈도로 보아 개체군이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동강 지역의 우거진 노거수림에서 서식밀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강원도 일대에서는 밀도가 낮은 편이다.



● 분류학적 특성

우리나라에 분포하고 있는 아종은 *Pteromys volans aluco*로 알려졌다. 최근 연구에서는 한반도의 집단이 러시아 동부와 중국 북부에 분포하는 집단과 유전적으로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보고되었다(Koh *et al.*, 2008; Lee *et al.*, 2008). 이 아종에 대해서는 추후 분류학적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 위협 요인과 보호 대책

산림벌채, 댐 건설, 서식지 환경 변화와 훼손, 병충해 예방을 위한 농약중독 등에 의해 위협받고 있으며, 서식지 주변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서식지가 감소하고 있다. 최근에는 활공해 도로를 건너다 로드킬 당하는 개체가 관찰되고 있다.

● 특기 사항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물 II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2012년). 문화재청에서 천연기념물 제328호로 지정되어 있다(1982년).

● 평가 결과: VU A2c

과거에는 태백산맥 지역에 널리 퍼져 서식했으나,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사이에 진행된 숲의 파괴에 따라 서식지가 사라졌고, 그 이후 조각화 현상과 함께 개체군이 급격하게 감소했다. IUCN에서는 관심대상으로 평가했으나, 중국에서도 취약으로 평가했다.

● 참고문헌

- 우한정, 최철일. 2002. 동강유역의 포유동물상. 한국육수학회지 35: 331-336.
- 원병휘. 1967. 한국동식물도감 제7권 동물편(포유류). 문교부, 서울.
- 원흥구. 1968. 조선집승류지. 과학원출판사, 평양.
- 윤명희, 한상훈, 오홍식, 김장근. 2004. 한국의 포유동물. 동방미디어출판, 서울.
- 이정일. 1993. 강원도 포유동물의 분포 밀도에 관한 기초 연구. 동국논집 12: 49-78.
- 최태영, 최현명. 2007. 야생동물흔적도감-흔적으로 찾아가는 야생동물 생태 기행. 돌베개 출판, 파주.
- Corbet, G. B. and J. E. Hill. 1991. *A World List of Mammalian Species*(Thir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 Koh, H. S., Y. Jin, B. G. Yang, B. K. Lee, S. W. Heo and J. H. Jang. 2008. Taxonomic status of Siberian Flying Squirrel from Korea(*Pteromys volans aluco* Thomas 1907). Korean Journal of Systematic Zoology, 24(2): 169-172.
- Lee, M. Y., S. K. Park, Y. J. Hong, Y. J. Kim, I. Voloshina, A. Myslenkov, A. P. Saveljev, T. Y. Choi, R. Z. Piao, J. H. An, M. H. Lee, H. Lee and M. S. Min. 2008. Mitochondrial genetic diversity and phylogenetic relationships of Siberian Flying Squirrel(*Pteromys volans*) populations. Animal Cells and Systems, 12: 269-277.
- Shar, S., D. Lkhagvasuren, H. Henttonen, T. Maran and I. Hanski. 2008. *Pteromys volans*. In: IUCN 2011.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Version 2011.2.
- Wilson, R. and I. Reeder. 1993. *Mammal species of the world*.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New York.
- Won, C. 1996. Mammals of Korea: Current status and zoogeography. Ph.D dissertation of University of Arkansas.

Pteromys volans was widely distributed throughout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deforestation has made population fragmented and the populations has been declined.

오소리

Meles leucurus
(Hodgson, 1847)

분류학적 위치

식육목(Carnivora) 족제비과(Mustelidae)

영명: Asian Badger

IUCN 범주: LC(관심대상)

● 요약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족제비과 동물로 밀렵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종이다.

● 형태

몸은 비대하며, 앞발의 발톱은 매우 길다. 몸에 난 털은 거칠고 전체적으로 어두운 회색을 띤다. 콧등은 길어 먹이를 찾는데 이용된다. 머리와 몸통의 길이 500~800mm, 꼬리의 길이 110~190mm, 귀의 길이 34~39mm, 뒷발의 길이는 57~91mm이다.

● 생물학적 특성

산림이나 계곡 주변, 목초지 등 다양한 환경에 서식하며, 굴을 파거나 암반 사이의 굴을 은신처로 이용한다. 지렁이류, 곤충류, 과실, 소형포유류, 조류 등 다양한 먹이를 잡아먹는 잡식성 포유류이다. 무리지어 생활하며 겨울철에는 동면한다.

● 분포 현황

도시공원과 해상 국립공원을 제외한 전국 산지에 서식하고 있으나 개체군 밀도가 감소하고 있다.

● 서식지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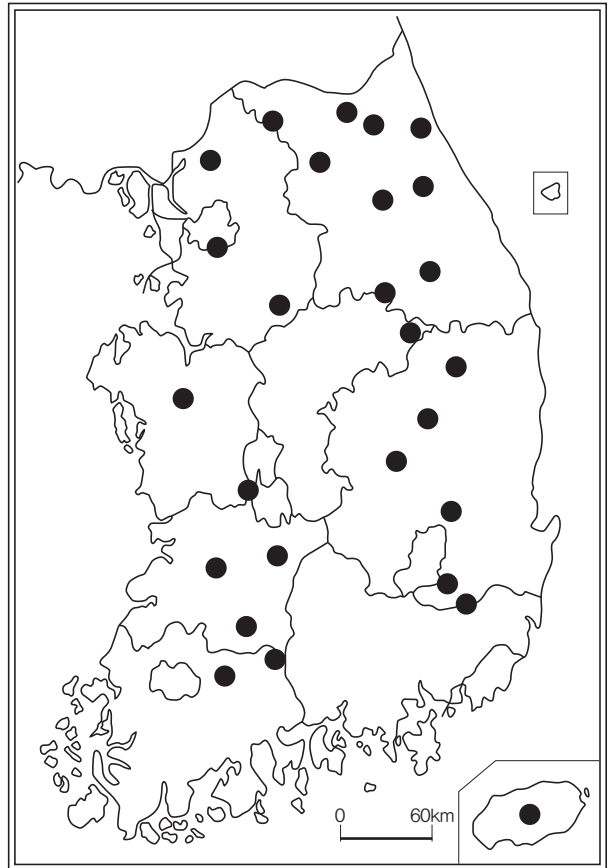
산림 지역 개발과 건설 등에 의한 서식지의 파괴, 단절이 예상된다.

● 개체수 현황

우리나라에서 개체수 현황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

● 분류학적 특성

우리나라에 분포하고 있는 오소리는 유라시아에 걸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는 집단과 동일종인 *Meles meles*로 간주되어 왔으나, 최근 이루어진 계통학적 연구결과에 의하면, 유럽 집단과 아시아 집단은 서로 다른 종이며, 우리나라의 오소리는 아시아 집단과 동일한 종인 *Meles leucurus*로 분류한다.



● 위협 요인과 보호 대책

서식지 파괴와 밀렵이 가장 큰 위협 요인이며, 이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특기 사항

최근에는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 평가 결과: NT

전국적으로 많은 개체가 서식하고 있었으나, 1950년대부터 모피와 기름을 얻기 위해 남획되었으며, 특히 1953년에는 한 해에 13,000여 장의 모피가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따라 개체수가 급감하기도 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분포하나 사냥 등으로 개체수가 다시 급감할 위험에 처해 있다. IUCN에서는 관심대상으로 평가했으나, 중국에서는 위급으로 평가해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

● 참고문헌

- 원병휘. 1967. 「한국동식물도감」 제7권 동물편(포유류). 문교부.
- 원홍구. 1968. 조선집승류지. 과학원출판사.
- 윤명희, 한상훈, 오홍식, 김장근. 2004. 한국의 포유동물. 동방미디어, 서울.
- Abramov, A. V. 2002. Variation of the baculum structure of the Palearctic badger(Carnivora, Mustelidae, *Meles*). Russian Journal of Theriology, 1: 57-60.
- Abramov, A. V. and A. Y. Puzachenko. 2005. Sexual dimorphism of craniaological characters in Eurasian badgers, *Meles* spp. (Carnivora, Mustelidae). Zoologischer Anzeiger, 244: 11-29.
- Abramov, A. and C. Wozencraft. 2008. *Meles leucurus*. In: IUCN 2011.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Version 2011.2.
- Marmi, J., F. López-Giráldez, D. W. Macdonald, F. Calafell, E. Zholnerovskaya and X. Domingo-Roura. 2006. Mitochondrial DNA reveals a strong phylogeographic structure in the badger across Eurasia. Molecular Ecology, 15: 1007-1020.
- Won, C. 1996. Mammals of Korea: Current status and zoogeography. Ph.D dissertation of University of Arkansas.

Meles leucurus was once fairly abundant throughout Korea. However, the number of populations has been declined because of excessive trapping for folk medicine.

집필자: 김태욱(제주대학교)

고슴도치

Erinaceus amurensis
(Schrenk, 1859)

분류학적 위치

식충목(Insectivora) 고슴도치과(Erinaceidae)

영명: Amur Hedgehog

IUCN 범주: LC(관심대상)

●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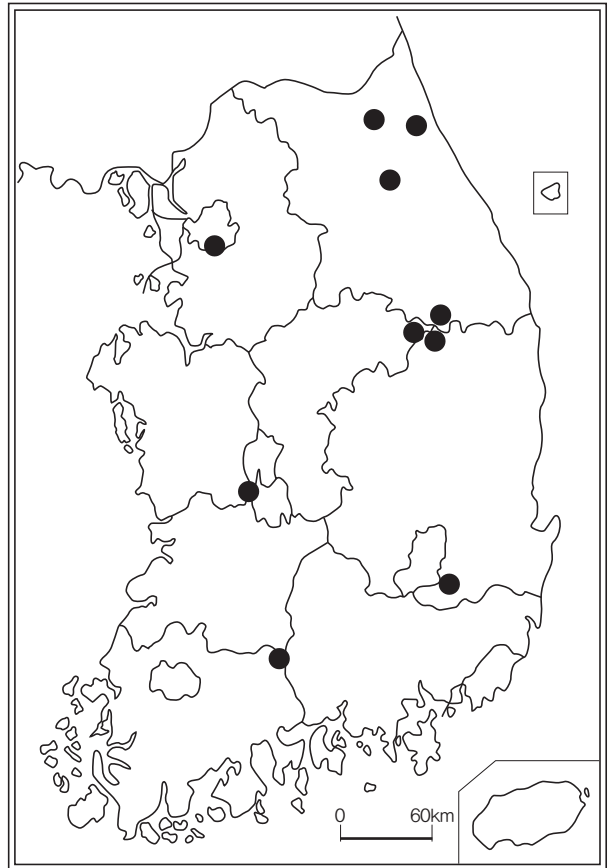
고슴도치는 고슴도치과에 속하는 동물 중에서 우리나라에 분포하고 있는 유일한 종이다. 서식지 파괴 등에 의해 개체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종에 대한 생물학적 특성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형태

우리나라에 분포하고 있는 식충류 중에서 가장 대형이다. 머리와 몸통의 길이는 205–250mm, 꼬리의 길이는 20.0–33.5mm, 귀의 길이는 19.0–24.0mm, 뒷발의 길이는 33.0–42.0mm이다. 몸통의 등과 옆구리에 가시와 같은 조직을 지닌 것이 특징이다.

● 생물학적 특성

야행성 포유류이며, 식이 습성은 절지동물에서부터 조류의 알, 뱀, 과일까지 다양하게 잡아먹는 잡식성이다. 단독으로 생활하며, 산림이나 농경지 등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 서식한다.



● 분포 현황

러시아 연해주 지역, 중국 동북지방에 분포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적으로 분포한다.

● 서식지 동향

도로 건설 등에 의한 서식지 단절과 과거 한방 약제로 이용되어 개체군 밀도가 급감한 종이다. 번식기에는 로드 킬 당한 개체가 종종 관찰되고 있다.

● 개체수 현황

개체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개체수 추정이 어려우나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산지에 분포한다.

● 분류학적 특성

한반도에 분포하고 있는 고슴도치를 아종인 *E. a. koreensis*로 분류하기도 하나, 현재까지 분류학적 위치에 관

한 상세한 연구가 미흡하다.

● 위협 요인과 보호 대책

번식기에는 로드킬이나 밀렵에 의한 개체수 감소가 예상된다. 최근 외래종이 도입되어 교잡종이 생길 우려가 있어 외래종 관리가 필요하며, 생태계 교란위협이 있는 종이다.

● 특기 사항

1989년 한국자연보존협회에서 지정한 희귀 및 위기 동물 목록에서 취약종으로 지정된 바 있으나 1997년 환경부 지정 자연환경보전법상의 멸종위기종 및 보호대상종에서 제외되었고, 2001년에 한국자연보존협회 법정 보호대상종 포유류 후보종에서도 제외된 바 있다.

● 평가 결과: LC

전국에 걸쳐 아직도 비교적 흔하게, 특히 경북 및 강원에서 흔히 발견되고 있으나, 로드킬과 밀렵에 의해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다. IUCN과 중국에서도 관심대상으로 평가했다.

● 참고문헌

- 김정호. 1999. 경상북도 지역의 포유류 분포. 동국대학교 이학석사학위 논문.
원병오. 1992. 천연기념물 동물편. 대원사.
원병휘. 1967. 한국동식물도감 제7권 동물편(포유류). 문교부.
원병휘, 이해풍. 1971. 한국산 포유동물의 생태에 관한 연구. 동국대 농림과학연구소 4: 173-186.
원홍구. 1968. 조선집승류지. 과학원출판사.
윤명희, 한상훈, 오홍식, 김장근. 2004. 한국의 포유동물. 동방미디어, 서울.
이정일. 1989. 경상북도 포유동물 분포에 관한 기초 연구. 동국논집 8: 385-419.
이정일. 1993. 강원도 포유동물의 분포 밀도에 관한 기초 연구. 동국논집 12: 49-78.
Tsytulina, K. 2008. *Erinaceus amurensis*. In: IUCN 2011.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Version 2011.2.
Won, C. 1996. Mammals of Korea: Current status and zoogeography. Ph.D dissertation of University of Arkansas.

Erinaceus amurensis was common throughout the Korean Peninsula. It is still locally common. However, the number of populations has been declined because of excessive trapping for folk medicine and as pets.

집필자: 오홍식(제주대학교)

관코박쥐

Murina leucogaster
(Milne-Edwards, 1872)

분류학적 위치

익수목(Chiroptera) 애기박쥐과(Vespertilionidae)

영명: Tube-nosed Bat

IUCN 범주: DD(정보부족)

● 요약

애기박쥐과의 박쥐류 중에서 대형에 속하며, 등면의 털끝에는 은색의 금속광택이 있다. 주로 산림의 나무 구멍이나 동굴에서 서식한다. 종의 생태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으며, 산림 벌채 등으로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다.

● 형태

귀와 비막은 반투명하고 흑갈색 또는 적갈색을 띤다. 주둥이는 좁고 길며, 코는 외측으로 돌출해 있다. 애기박쥐과 가운데 약간 대형으로 등의 털은 회갈색이며, 털 끝에는 은색의 금속 광택이 있다. 머리와 몸 57.9-73mm, 꼬리 36-47mm, 전완장 41-46mm, 뒷발 11.4-13.6mm, 귀 16.8-18.4mm, 무게 9-15g이다.

● 생물학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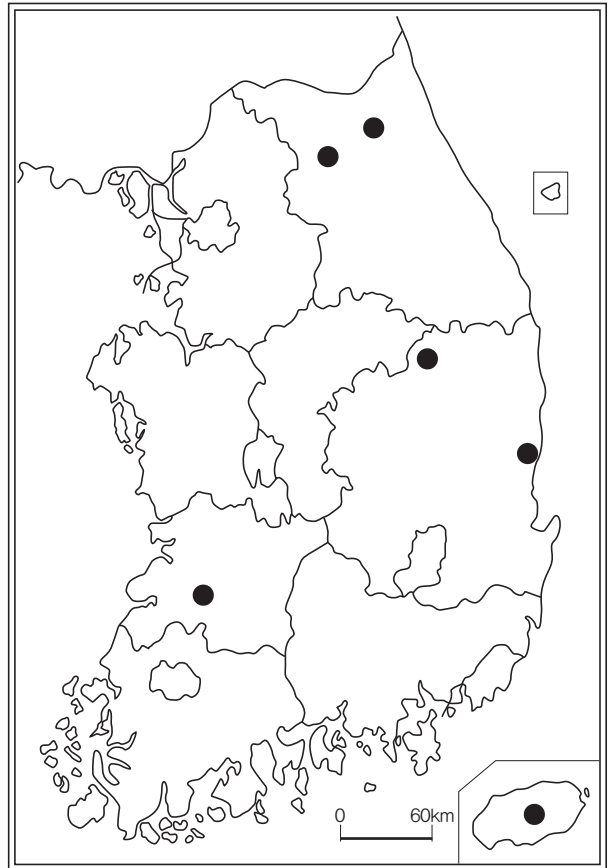
코끝이 관 모양으로, 외측이나 전방으로 돌출하고 있어 관코박쥐라고 부른다. 산림성 박쥐로 여름에 주로 나무의 무성한 가지 아래나 산림 내 동굴을 잠자리로 하고, 겨울에는 서식지 내에서 한 마리에서 수십 마리가 발견되기도 한다. 주로 산림 하층부에서 채식활동을 하며, 새끼를 1-2마리 낳는다.

● 분포 현황

남한에서는 소수의 개체가 산림의 나무구멍이나 동굴에서 서식한다.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북도에서 채집 기록이 있으며, 제주도에서는 2007년 처음 종의 서식이 확인되었다.

● 서식지 동향

산림성 박쥐로 주로 나무 구멍이나 가지 아래를 이용하는데, 현재 산림 벌채 등으로 본 종의 서식 지역과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다.



● 개체수 현황

현재 전국적으로 서식하는 개체수 현황을 파악할만한 자료는 없으나 소수의 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분류학적 특성

현재 우리나라 관코박쥐는 *Murina leucogaster*로 분류되고 있다.

● 위협 요인과 보호 대책

산림 내 큰 나무 및 동굴 등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산림벌채 및 동굴(폐광) 폐쇄에 따라 서식지와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다. 현재까지 본 종의 생태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고, 서식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분포현황 및 생태에 관한 연구수행 및 그에 따른 서식지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 특기 사항

국내에서의 채집 기록이 드물며, 서식지 및 생태에 관한 자료는 거의 없다.

● 평가 결과: LC

평가 결과는 LC로 사료된다. 현재 IUCN에서는 DD(정보부족) 종으로 취급한다.

● 참고문헌

- 원병희. 1967. 「한국동식물도감」, 제7권 동물편(포유류), 문교부.
- 윤명희, 손성원. 1989. 한국산 박쥐류의 계통분류학적 연구 1. Rhinolophidae의 1종과 Vespertilionidae의 6종에 대한 분류학적인 재검토 및 한국산 익수류상의 천이. Korean J. Zool. 32: 374-392.
- 윤명희, 한상훈, 오홍식, 김장근. 2004. 한국의 포유동물. 동방미디어.
- 윤명희. 2011. 한국의 척추동물(박쥐류). 국립생물자원관.
- 한상훈, Dai Fukui, 정철운, 최용근, 김선숙, 전주민. 2011. 산림성 박쥐류의 종다양성 및 계통연구 (1). 국립생물자원관. 17-18.

Murina leucogaster has been designated as a data deficient species(DD) by the IUCN red list. This species is classified in to the LC.

집필자: 정철운(국립공원관리공단)

땃쥐

Crocidura lasiura
(Dobson, 1890)

분류학적 위치

식충목(Insectivora) 침서과(Soricidae)

영명: Ussuri White-toothed Shrew

IUCN 범주: LC(관심대상)

● 요약

전국적으로 분포하며 개체군 밀도가 높은 종이나 생물학적 특성이나 생태적 특성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다.

●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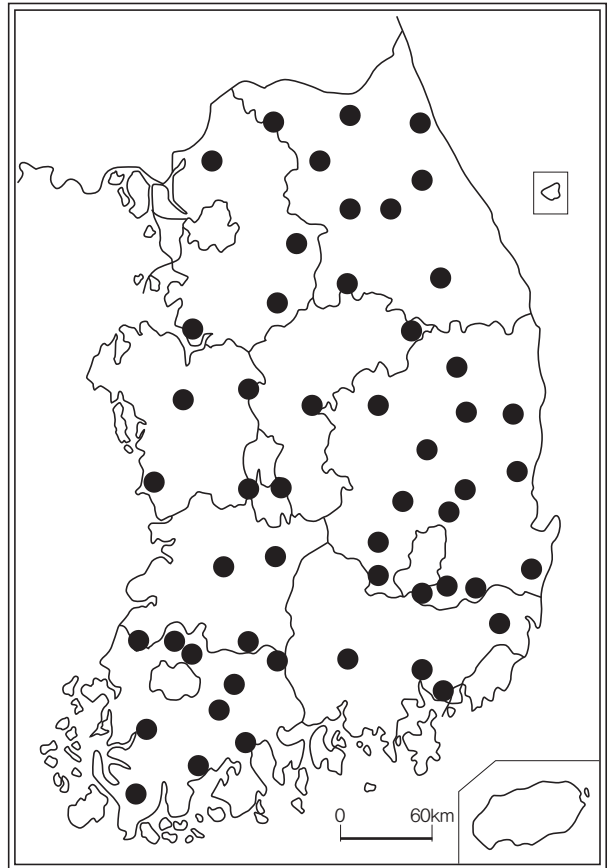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땃쥐류 중에서 가장 대형에 속한다. 머리와 몸통의 길이는 69–105mm, 꼬리의 길이는 40–50mm, 뒷발의 길이는 14–17mm, 귀의 길이는 7–10mm이다.

● 생물학적 특성

곤충류, 거미류, 지렁이 등 무척추동물을 잡아먹는다. 주로 야간에 활동하고, 계절에 따라 털갈이를 한다. 봄과 여름 사이에 번식하며, 새기는 한 배에 8–11마리를 낳는 것으로 알려졌다.

● 분포 현황

제주도와 울릉도를 제외한 전국에 분포한다.



● 서식지 동향

주로 하천 및 농경지주변의 덩굴이나 낮은 산자락의 키 작은 나무 숲 등에서 서식한다.

● 개체수 현황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 분포 범위가 넓고 비교적 쉽게 관찰되는 종이다.

● 분류학적 특성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땃쥐속의 포유류는 3종이며, 땃쥐는 꼬리의 길이가 머리와 몸통의 길이의 50%를 넘지 않는 특징이 있다.

● 위협 요인과 보호 대책

경작지에서도 흔히 관찰되는 종으로 농약 사용이나 서식지 변화에 의한 위협이 예상된다.

● 특기 사항

중국 적색목록에는 VU(취약)으로 취급한다.

● 평가 결과: LC

평가 결과는 LC로 사료된다. 현재 IUCN에서는 LC(관심대상)으로 취급한다.

● 참고문헌

원병휘. 1967. 「한국동식물도감」 제7권 동물편(포유류). 문교부.

원홍구. 1968. 조선집승류지. 과학원출판사.

윤명희, 한상훈, 오홍식, 김장근. 2004. 한국의 포유동물. 동방미디어, 서울.

Crocidura lasiura is widely distributed in the Korean Peninsula.

집필자: 오홍식(제주대학교)

멧박쥐

Nyctalus aviator
(Thomas, 1911)

분류학적 위치

익수목(Chiroptera) 애기박쥐과(Vespertilionidae)

영명: Birdlike Noctule

IUCN 범주: NT(준위협)

● 요약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박쥐류 중 대형에 속한다. 주로 큰 나무의 구멍을 서식지로 이용한다. 도서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분포하며, 일몰 후 높은 하늘을 고속으로 비행해 나방, 파리류 등을 포식한다. 국내에서는 생태, 분포 등의 생물학적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 형태

대형으로 제1지는 굵고 짧다. 등면의 털은 밝은 갈색이며, 광택을 띤다. 비막은 좁고 긴 협장형이며, 펼치면 약 400mm에 이른다. 귀가 짧고 둥글며, 이주도 짧고 선단부가 둥근 버섯 모양이다. 머리와 몸 89-113mm, 꼬리 51-67mm, 전완장 58-65mm, 체중 26-61g이다.

● 생물학적 특성

큰 나무 구멍을 수집에서 수백 마리가 잠자리로 이용하며, 일몰 후 또는 직전에 나무 구멍을 나와 활동을 개시한다. 하늘을 높이 날면서 나방, 파리류, 갑충 등을 포식한다. 초여름에 새끼 2마리를 낳고, 8월 중순에서 하순경 새끼는 독립한다.

●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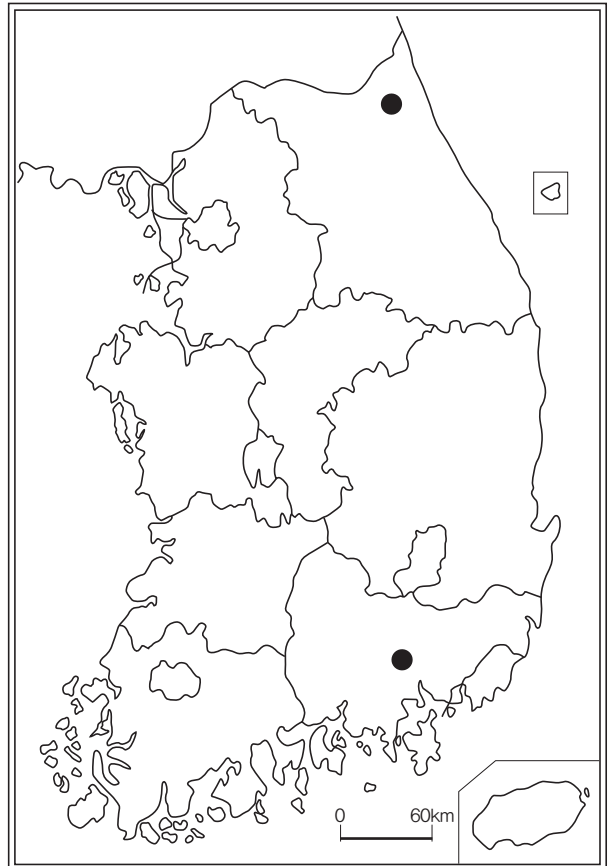
도서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분포하며, 국내에서는 채집 기록이 극히 드물다. 남한에서는 설악산과 경남 함안 등에서의 채집 기록이 있을 뿐이다.

● 서식지 동향

산림성 박쥐로 주로 나무 구멍이나 가지 아래를 이용하는데, 현재 산림 벌채 등으로 본 종의 서식 지역과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다.

● 개체수 현황

지금까지 국내에서의 채집 기록이 매우 드물어 개체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 분류학적 특성

우리나라의 멧박쥐는 *N. lasiopterus aviator*로 알려졌으나, Corbet(1978)에 의해 재검토되어 *N. aviator*로 보고되었다. 현재는 *Nyctalus aviator* Thomas, 1911로 분류한다.

● 위협 요인과 보호 대책

주로 큰 나무가 있는 산림지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산림 개간 및 벌채로 인해 서식지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본 종의 세부적인 생태연구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서식지 주변 산림을 보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특기 사항

국내에서의 채집 기록이 거의 없고, 분포현황이나 서식지 및 생태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 평가 결과: LC

평가 결과는 LC로 사료된다. 현재 IUCN에서는 NT(준위협) 종으로 취급한다.

● 참고문헌

손성원. 1978. 경남 남서부 지역 박쥐류의 분포조사. 경남대학교 논문집 5: 349-361.

원병휘. 1967. 한국동식물도감. 제7권 동물편(포유류), 문교부.

윤명희, 한상훈, 오홍식, 김장근. 2004. 한국의 포유동물. 동방미디어.

윤명희. 2011. 한국의 척추동물(박쥐류). 국립생물자원관. pp. 61-65.

한상훈, Dai Fukui, 정철운, 최용근, 김선숙, 전주민. 2011. 산림성 박쥐류의 종다양성 및 계통연구 (1). 국립생물자원관.

Corbet, G.B. 1978. The Mammals of the Palaearctic Region: A Taxonomic Review. British Museum(Natural History) and Cornell University Press, London and Ithaca, pp. 39-63.

Nyctalus aviator has been designated as a near threatened species(NT) by the IUCN red list. This species is classified in to the LC.

집필자: 정철운(국립공원관리공단)

멧밭쥐

Micromys minutus
(Pallas, 1771)

분류학적 위치

설치목(Rodentia) 쥐과(Muridae)

영명: Eurasian Harvest Mouse

IUCN 범주: LC(관심대상)

● 요약

매우 소형에 속하는 설치류로 초지대나 하천 주변 사초와 식물이 주를 이루는 지역을 서식지로 이용하며, 전국적으로 분포한다.

● 형태

머리와 몸통의 길이 54.0–78.5mm, 꼬리의 길이 47–91mm, 뒷발의 길이 14.0–17.0mm, 귀의 길이 7–12mm, 두골의 최대 길이는 13.7–16.9mm, 체중은 5.3–14.0g로 몸이 대단히 작다. 등면의 털색은 암갈색이고, 배면은 흰색을 띤다.

● 생물학적 특성

저지대 하천 변의 갈풀군락에서 고산산지에도 분포하나 대개 저지대의 초지에 많고 산림 내에서는 관찰되지 않는다. 주로 벼과나 사초과 식물의 줄기에 둥근 모양의 새집과 같은 집을 짓고 생활한다. 집 짓는 재료로는 억새줄기, 갈풀줄기, 이끼류를 이용한다.

● 분포 현황

전국적으로 분포한다.

● 서식지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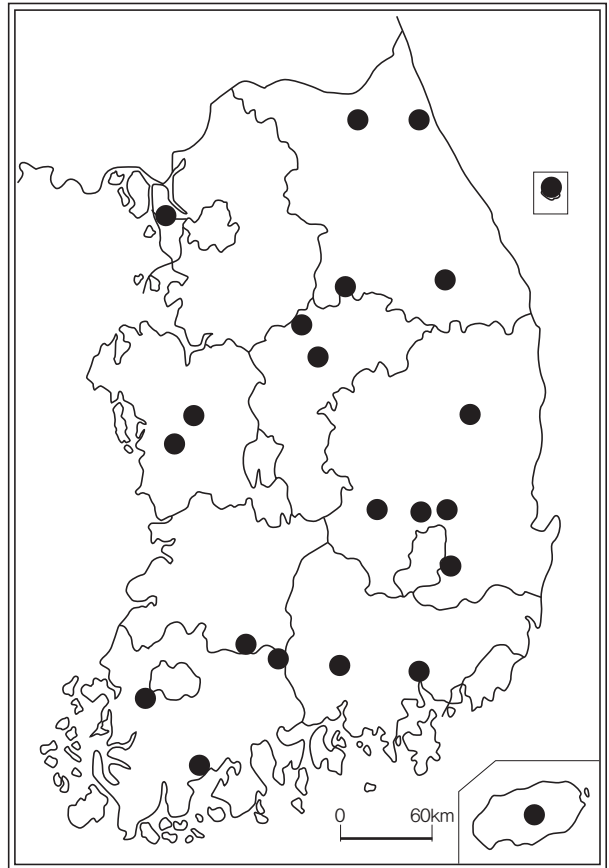
초지대와 하천 주변의 서식환경의 변화로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다.

● 개체수 현황

인위적인 영향으로 서식지가 감소되어 개체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적으로 분포하며 어느 정도 안정된 개체군은 유지되고 있으나 관심이 필요한 종이다.

● 분류학적 특성

분류학적 연구 자료가 거의 없다. 현재 제주도에 서식하는 개체군을 아종으로 취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분류학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 위협 요인과 보호 대책

서식지 파괴가 주된 위협 요인이다.

● 특기 사항

아시아에서부터 유럽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종이다.

● 평가 결과: LC

한반도 중남부 지방에서 흔히 발견되었으나, 서식지 파괴에 따른 위협에 직면해 있다. IUCN과 중국에서는 모두 관심대상으로 평가했다.

● 참고문헌

원병휘. 1967. 「한국동식물도감」제7권 동물편(포유류). 문교부.

원병휘, 이해풍. 1969. 한국산 서류의 생태학적 연구. 동국대학교 농림과학연구소 3: 89-113.

원홍구. 1968. 조선집승류지. 과학원출판사.

윤명희, 한상훈, 오홍식, 김장근. 2004. 한국의 포유동물. 동방미디어, 서울.

Aplin, K., D. Lunde, N. Batsaikhan, B. Kryštufek, H. Meinig and H. Henttonen. 2008. *Micromys minutus*. In: IUCN 2011.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Version 2011.2.

Won, C. 1996. Mammals of Korea: Current status and zoogeography. Ph.D dissertation of University of Arkansas.

Micromys minutus was common in central and southern the parts of Korea. However, the populations have been declined because of the destruction of its habitats.

집필자: 오홍식(제주대학교)

비단털쥐

Tscherskia triton
(de Winton, 1899)

분류학적 위치

설치목(Rodentia) 쥐과(Muridae)

영명: Greater Long-tailed Hamster

IUCN 범주: LC(관심대상)

● 요약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종이다. 과거에는 인가 근처에서 흔하게 관찰되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에는 이에 대한 서식정보가 없다.

● 형태

집쥐와 크기와 형태가 유사하다. 꼬리의 길이는 집쥐에 비해 짧다. 털은 회흑색 혹은 연한 갈색을 띠고 부드럽다. 볼주머니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 생물학적 특성

경작지 주변에서는 재배 작물의 종자 등을 먹으며, 간혹 곤충류와 양서류, 조류의 알도 먹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산은 1년에 2-3회 이루어지며, 새끼는 보통 10여 마리를 낳는 것으로 알려졌다.

●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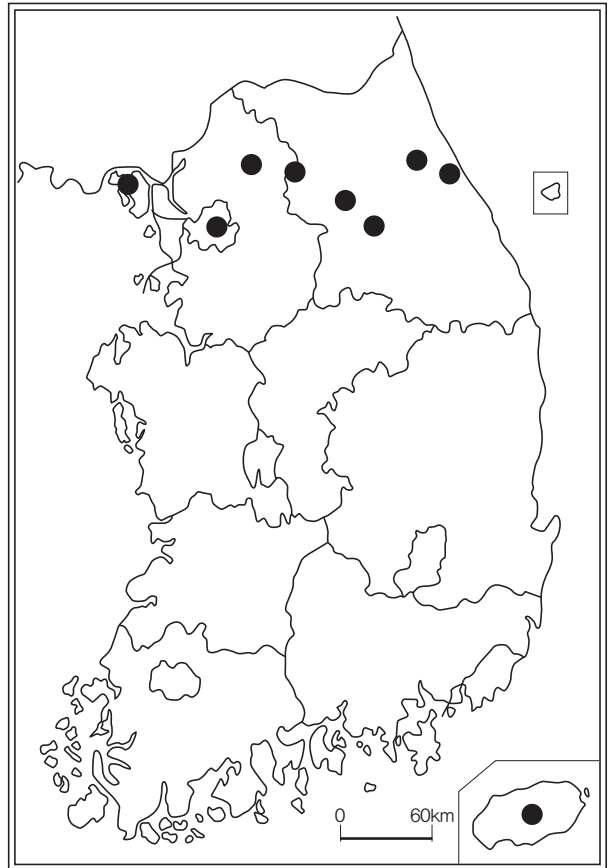
전국적으로 분포하나 제주도와 경기와 강원도 지역에 주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에서는 해발 400-900m 사이에 분포한다.

● 서식지 동향

저지대에서 고산지대에 이르는 초지대, 경작지, 습윤지대, 산림 공한지 등 다양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특히 관목이 무성하고 건조한 장소 또는 경작지 주변의 땅속에 구멍을 파고 생활한다. 제주도에서는 중산간 지역 건천 주변이나 꽃자왈 주변에서 주로 관찰된다.

● 개체수 현황

서식하는 개체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나 개체군 밀도는 낮은 편이며, 지역에 따라서는 안정된 개체군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분류학적 특성

이전에는 *Cricetulus*속에 포함되었으나, 최근 연구 성과에 근거해 *Tscherskia*속으로 분류한다. 1속 1종이다.

● 위협 요인과 보호 대책

서식지 주변 개발 행위가 주된 위협 요인이다.

● 특기 사항

*Rattus*속 포유류와 비슷한 형태를 보이거나 외형상으로 가장 큰 차이점은 꼬리 끝이 희고, 볼주머니가 있으며, 털이 *Rattus*속 동물에 비해 길고 부드럽다는 점이다.

● 평가 결과: LC

경기도와 강원도 이북, 제주도에 분포하며, 제주도에서는 주로 저지대에 서식하는데, 서식지 개발로 인해 위협에 처해 있다. IUCN과 중국에서도 모두 관심대상으로 평가했다.

● 참고문헌

원병휘, 이정일. 1975. 비단털쥐의 생태에 관한 연구. 동덕대학교 대학원 논문집 5: 271-291.

원병휘. 1967. 「한국동식물도감」제7권 동물편(포유류). 문교부.

원홍구. 1968. 조선짐승류지. 과학원출판사.

윤명희, 한상훈, 오홍식, 김장근. 2004. 한국의 포유동물. 동방미디어, 서울.

Nowak, R. M., 1991. Walker's Mammals of the World. Vol. II(5th ed.). The Jones Hopkins Univ. Press, Baltimore and London.

Song, S. Y., 1985. [A new subspecies of *Cricetulus triton* from Shaanxi, China]. Acta Theriologica Sinica, 56: 137-139(in Chinese).

Tsytsulina, K. 2008. *Tscherskia triton*. In: IUCN 2011.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Version 2011. 2.

Wilson, D. E. and D. M. Reeder, 1993. Mammal Species of the World.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Won, C. 1996. Mammals of Korea: Current status and zoogeography. Ph.D dissertation of University of Arkansas.

Tscherskia triton was one of the most widespread small animals, occupying a variety of lowland habitats. However, these habitats were destroyed because of the process of developing surroundings.

집필자: 오홍식(제주대학교)

쇠큰수염박쥐

Myotis ikonnikovi
(Ognev, 1912)

분류학적 위치

익수목(Chiroptera) 애기박쥐과(Vespertilionidae)

영명: Ikonnikovi's Whiskered Bat

IUCN 범주: LC(관심대상)

● 요약

산림 내에서 곤충을 먹으며, 6월경부터 출산집단을 형성한다. 대륙쇠큰수염박쥐에 비해 뒷발의 크기가 작다. 현재까지 정확한 생태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 형태

몸의 털색은 흑갈색부터 그을린 갈색이다. 비막은 흑갈색이며, 크기와 두골 형태는 변이가 있다. 대륙쇠큰수염박쥐에 비해서 뒷발의 크기가 작다. 머리와 몸 40-55mm, 꼬리 32-41mm, 전완장 31-37mm, 체중 4-8g이다.

● 생물학적 특성

남부 지역에서는 아고산 지역의 자연림에서 생활하며, 북부 지역에서는 저지대 산림 지역에서도 관찰된다. 일본에서는 주간에 나무구멍에서 은신하며, 가옥에서 번식한 예도 있다. 발산하는 주파수는 약 50kHz에서 최대를 나타낸다.

● 분포 현황

국내에서는 채집 기록이 매우 적으며, 기록상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국립생물자원관 산림성 박쥐류 조사결과 충청북도, 경상북도, 강원도 일원에서 관찰되었다.

● 서식지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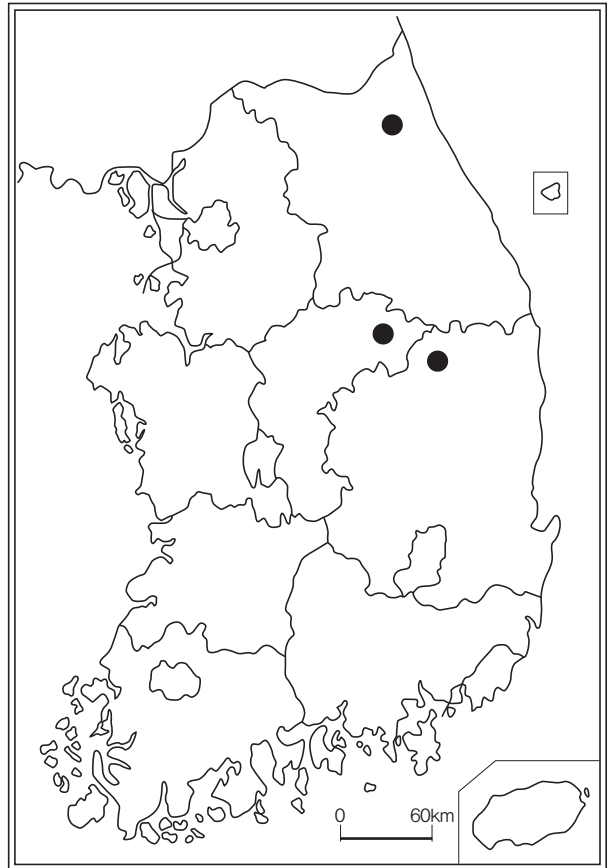
산림 내 서식하며, 고사목이나 생목의 수피 아래, 자연동굴 등이 서식처로 알려졌다.

● 개체수 현황

현재 전국에 서식하는 쇠큰수염박쥐의 개체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부족하다.

● 분류학적 특성

우리나라 쇠큰수염박쥐는 *Myotis ikonnikovi* Ognev, 1912로 분류한다.



● 위협 요인과 보호 대책

산림성 박쥐인 본 종의 서식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산림 개간 및 벌채 등으로 인해 서식지 감소가 일어나고 있다. 분포현황 및 생태에 관한 연구수행 및 그에 따른 서식지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 특기 사항

국내에서의 채집 기록이 거의 없어 분포나 서식지 현황 및 생태에 관한 생물학적 자료가 거의 없는 상태이다.

● 평가 결과: LC

평가 결과는 LC로 사료된다. 현재 IUCN에서는 LC(관심대상) 종으로 취급한다.

● 참고문헌

윤명희, 한상훈, 오홍식, 김장근. 2004. 한국의 포유동물. 동방미디어.

윤명희. 2011. 한국의 척추동물(박쥐류). 국립생물자원관.

한상훈, Dai Fukui, 정철운, 최용근, 김선숙, 전주민. 2011. 산림성 박쥐류의 종다양성 및 계통연구 (1). 국립생물자원관.

Abe, H., Yishie, N., Kaneco, Y., Maeda, K., Miura, S., Yoneda, M. 1994. A Pictorial Guide to the Mammals of Japan. Toukai Daigakku Shuppankai Press, Japan, pp. 38-70.

Myotis ikonnikovi has been designated as one of the least concern species(LC) by the IUCN red list. This species is classified as LC.

집필자: 정철운(국립공원관리공단)

안주애기박쥐

Vespertilio sinensis
(Peters, 1880)

분류학적 위치

익수목(Chiroptera) 애기박쥐과(Vespertilionidae)

영명: Asian Particolored Bat

IUCN 범주: LC(관심대상)

● 요약

주로 큰 나무의 구멍에서 생활하며, 가옥과 동굴 등에서도 발견된다. 등면의 털에는 마치 서리가 내린 것처럼 흰털이 섞여 있다. 현재까지 정확한 생태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 형태

애기박쥐과 가운데 대형으로 귀는 폭이 넓고, 끝이 둥근 삼각형이다. 암갈색 체모에 흰 털이 섞여 마치 서리가 내린 듯한 모습이다. 머리와 몸 60-80mm, 꼬리 35-50mm, 뒷발 9.8-11.2mm, 귀 16.2-19.2mm, 전완장 47-54mm, 체중 14-30g이다.

● 생물학적 특성

키 큰 나무의 구멍에서 생활하나, 가옥과 동굴 등도 이용한다. 암컷은 수십 마리 이상의 큰 출산 및 포육집단을 형성하고 6-7월에 새끼를 평균 2마리 낳는다. 암컷은 태어난 그해 가을에 성적으로 성숙한다. 비상하는 곤충을 잡아먹으며, 하루에 6-6.4g의 곤충을 먹는 것으로 알려졌다.

●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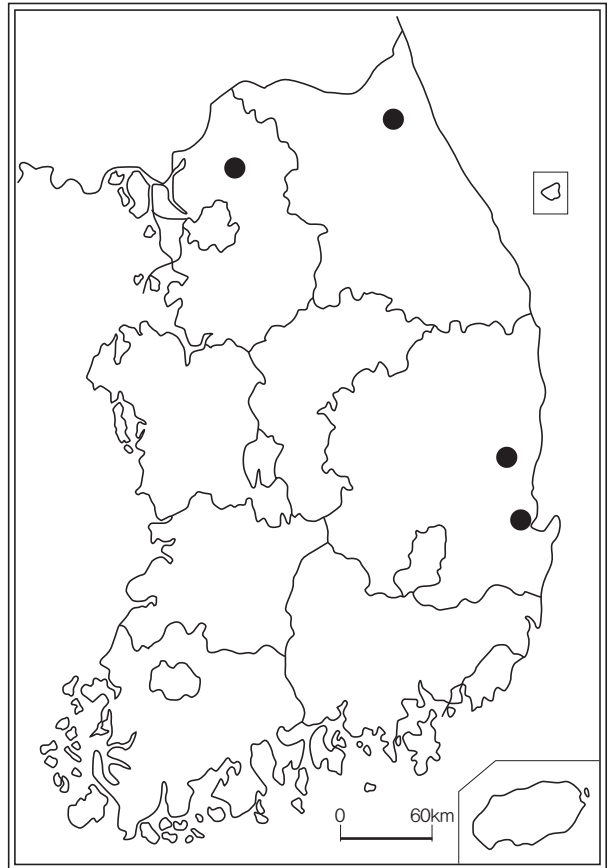
도서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분포하며, 국내에서는 채집 기록이 드물다. 경기 의정부, 경북 월성, 부산에서의 채집 기록이 있으며, 최근에는 주왕산국립공원과 설악산국립공원에서 확인되기도 했다.

● 서식지 동향

전국 민가, 하천, 산림 지역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개체수 현황

현재 전국에 서식하는 안주애기박쥐의 개체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부족하다.



● 분류학적 특성

지금까지 *V. superans*라는 학명을 사용했으나, 그보다 앞서 발표된 *V. sinensis*가 선취권을 가지고 있고, *V. superans* 종은 유럽에만 있는 것으로 구분해 현재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안주애기박쥐는 *Vespertillio sinensis* Peters, 1880로 분류한다.

● 위협 요인과 보호 대책

본 종의 서식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산림 개간 및 벌채 등으로 인해 서식지 감소가 일어나고 있다. 분포현황 및 생태에 관한 연구수행 및 그에 따른 서식지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 특기 사항

국내에서의 채집 기록이 거의 없고, 서식지와 분포현황 등 종에 대한 생물학적 특성을 알아볼만한 자료가 없다.

● 평가 결과: LC

평가 결과는 LC로 사료된다. 현재 IUCN에서는 LC(관심대상) 종으로 취급한다.

● 참고문헌

윤명희, 한상훈, 오홍식, 김장근. 2004. 한국의 포유동물. 동방미디어.

윤명희. 2011. 한국의 척추동물(박쥐류). 국립생물자원관.

한상훈, Dai Fukui, 정철운, 최용근, 김선숙, 전주민. 2011. 산림성 박쥐류의 종다양성 및 계통연구 (1). 국립생물자원관.

Won, P. O. 1961. Studies on the Avi-mammalian fauna of Korea from viewpoint of the forestry protection. In Avi-mammalian fauna of Korea. Inst. Agr., Suwon, Korea, pp. 50-53.

Yoon, M. H. 1977. An investigation on the distribution of the Korean bats. Master's Thesis, Kyunghee Univ., pp. 1-34.

Vespertilio sinensis has been designated as one of the least concern species(LC) by the IUCN red list.
This species is classified in to the LC.

집필자: 정철운(국립공원관리공단)

작은땃쥐

Crocidura shantungensis
(Miller, 1901)

분류학적 위치

식충목(Insectivora) 침서과(Soricidae)

영명: Asian Lesser White-toothed Shrew

IUCN 범주: LC(관심대상)

● 요약

전국적으로 널리 분포하며, 다양한 환경에 서식한다.

● 형태

우리나라 땃쥐류 가운데 가장 소형이다. 꼬리의 기부부터 끝까지 긴 털이 듬성듬성 나 있다. 머리와 몸통의 길이 60–69mm, 꼬리의 길이 35.4–48.2mm, 뒷발의 길이 10–12mm, 체중은 4.0–6.5g이다.

● 생물학적 특성

곤충류나 거미류 등 무척추 동물을 주로 먹는다. 주로 야간에 활동하며, 새끼는 봄과 여름에 1–3회, 최대 10마리를 낳는다.

● 분포 현황

전국 내륙 및 도서지방에 분포한다.

● 서식지 동향

다양한 환경에 서식하는 종이며, 경작지나 인가 주변에서도 서식하고 있다. 서식지 파괴에 의한 영향이 우려된다.

● 개체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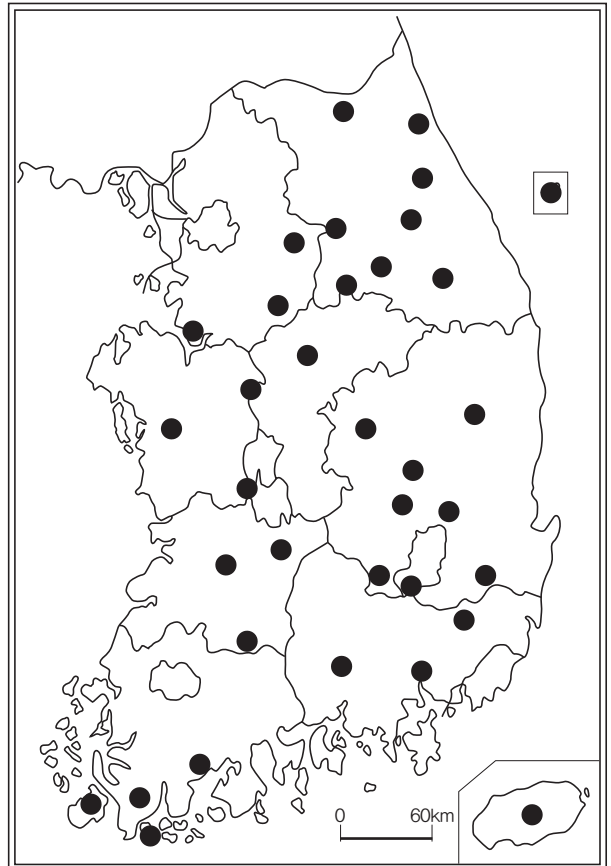
서식하는 개체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나 개체군 밀도는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 분류학적 특성

작은땃쥐는 *Crocidura suaveolens*의 동종이명(synonym)으로 간주되어 왔으나, 분류학적 연구를 통해 *C. shantungensis*인 것으로 재정리되었다(Jiang and Hoffman, 2001; Motokawa *et al.*, 2003; Ohdachi *et al.*, 2004).

● 위협 요인과 보호 대책

서식지 훼손이 주된 위협 요인이다.



● 특기 사항

제주도 내에서는 고산 지역부터 해안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한다.

● 평가 결과: LC

평가 결과는 LC로 사료된다. 현재 IUCN에서는 LC(관심대상)으로 취급한다.

● 참고문헌

원병휘. 1967. 「한국동식물도감」제7권 동물편(포유류). 문교부.

원홍구. 1968. 조선집승류지. 과학원출판사.

윤명희, 한상훈, 오홍식, 김장근. 2004. 한국의 포유동물. 동방미디어, 서울.

Jiang, X. L. and R. S. Hoffmann. 2001. A revision of the white-toothed shrews(*Crocidura*) of southern China. *Journal of Mammalogy*, 82: 1059-1079.

Motokawa, M., L. K. Lin, M. Harada and S. Hattori. 2003. Morphometric geographic variation in the Asian lesser white-toothed shrew *Crocidura shantungensis*(Mammalia, Insectivora) in east Asia. *Zoological Science*, 20: 789-795.

Ohdachi, S. D., M. A. Iwasa, V. A. Nesterenko, H. Abe, R. Masuda and W. Haberl. 2004. Molecular phylogenetics of *Crocidura* shrews (Insectivora) in east and central Asia. *Journal of Mammalogy*, 85: 396-403.

Crocidura shantungensis is widely distributed throughout Korea. This species is classified in to the LC.

집필자: 김태욱(제주대학교)

제주땃쥐

Crocidura dsinezumi
(Temminck, 1842)

분류학적 위치

식충목(Insectivora) 침서과(Soricidae)

영명: Jeju White-toothed Shrew(Japanese White-toothed Shrew)

IUCN 범주: DD(정보부족)

● 요약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만 서식하며, 일본 본섬에 서식하는 종과 동일한 종이다.

● 형태

우리나라 땃쥐류 가운데 중형에 속하며, 꼬리의 길이는 몸통의 길이의 70% 정도이고, 꼬리 기부에서부터 중간 부분까지 긴 털이 나 있다. 위턱의 제2·제3단첨치는 제1단첨치의 절반 또는 그보다 조금 높다. 머리와 몸통의 길이 61-84mm, 꼬리의 길이 39-54mm, 뒷발의 길이 11.5-15.0mm, 체중 12.5g, 귀의 길이는 7.1-9.1mm이다.

● 생물학적 특성

수명은 대개 12개월 정도로 알려졌고, 봄에 새끼 3-5마리를 낳는다. 곤충류, 절지동물 등을 먹는다.

● 분포 현황

제주도에만 분포한다.

● 서식지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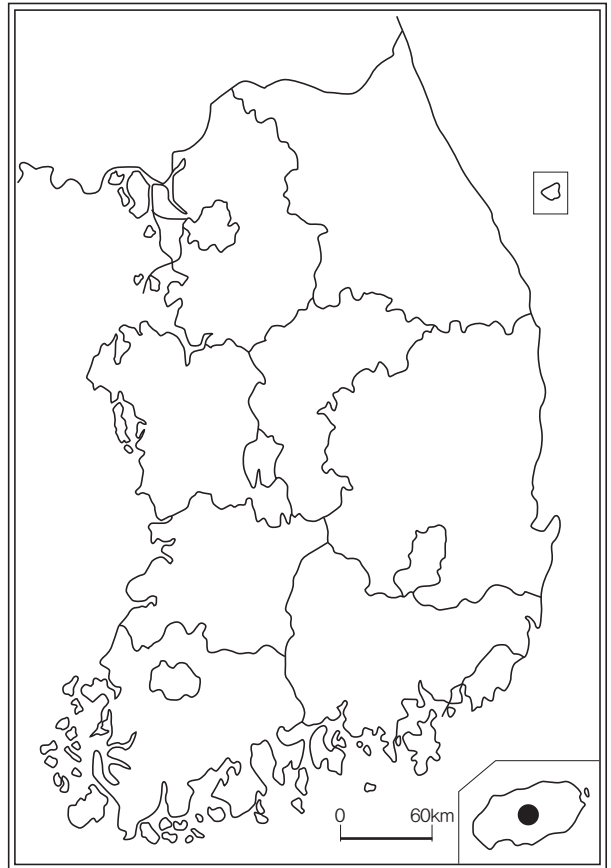
해안 저지대에서 중산간지대의 농경지 및 목장 주변 초지대, 임연부, 습지 주변에 많이 서식하며, 인가 주변 정원이나 과수원에도 서식한다고 알려졌으나 정보가 부족하다.

● 개체수 현황

서식하는 개체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나 개체군 밀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 분류학적 특성

Kuroda(1934)에 의해 처음으로 서식상황이 보고된 이후, Iwasa *et al.*(2001), Han *et al.*(2002), Motokawa *et al.*(2003), Ohdachi *et al.*(2004)에 의해 제주땃쥐의 서식과 분류학적 위치에 대해 보고되었다.



● 위협 요인과 보호 대책

개발에 따른 서식지가 감소가 위협 요인이다.

● 특기 사항

최근에는 제주도에서도 관찰이 어렵다.

● 평가 결과: LC

평가 결과는 LC로 사료된다. 현재 IUCN에서는 DD(정보부족)으로 취급한다.

● 참고문헌

원병휘. 1967. 「한국동식물도감」제7권 동물편(포유류). 문교부.

원홍구. 1968. 조선짐승류지. 과학원출판사.

윤명희, 한상훈, 오홍식, 김장근. 2004. 한국의 포유동물. 동방미디어, 서울.

Han, S. H., M. A. Iwasa, S. D. Ohdachi, H. S. Oh, H. Suzuki, K. Tsuchiya and H. Abe. 2002. Molecular phylogeny of *Crocidura* shrews in northeastern Asia: A special reference to specimens in Cheju Island, South Korea. *Acta Theriologica*, 47: 369-379.

Iwasa, M. A., S. Ohdachi, S. H. Han, H. S. Oh, H. Abe and H. Suzuki. 2001. Karyotype and RFLP of the nuclear rDNA of *Crocidura* sp. on Cheju Island, South Korea(Mammalia, Insectivora). *Mammalia*, 65: 451-459.

Kuroda, N. 1934. Korean mammals preserved in the collection of Marquis Yamashina. *Journal of Mammalogy*, 15: 229-239.

Motokawa, M. 2003. Geographic variation in the Japanese white-toothed shrew *Crocidura dsinezumi*. *Acta Theriologica*, 48: 145-156.

Ohdachi, S. D., M. A. Iwasa, V. A. Nesterenko, H. Abe, R. Masuda and W. Haberl. 2004. Molecular phylogenetics of *Crocidura* shrews(Insectivora) in east and central Asia. *Journal of Mammalogy*, 85: 396-403.

This species is distribute through Jeju Island. It is classified in to the LC.

집필자: 오홍식(제주대학교)

큰귀박쥐

Tadarida insignis
(Blyth, 1862)

분류학적 위치

익수목(Chiroptera) 큰귀박쥐과(Molossidae)

영명: East Asian Free-tailed Bat

IUCN 범주: DD(정보부족)

● 요약

국내에 서식하는 박쥐 중 대형에 속하며, 꼬리의 1/3 이상이 퇴간막 밖으로 나와 있다. 1930년대 이후 국내에서의 관찰 기록이 없었으나, 2000년대 들어 충청도와 경상도에서 몇 차례 채집되었다. 국내 큰귀박쥐의 생태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 형태

꼬리의 30% 이상이 퇴간막 밖으로 나와 있으며, 몸은 흑갈색이다. 귀는 크고 둥글며, 머리 앞쪽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비막은 장거리 비행에 적합하도록 길고 좁은 협장형이다. 머리와 몸 81-94mm, 꼬리 46-58mm, 전완장 57-66mm, 귀 26-32mm, 뒷발 10-12mm, 무게 30-40g이다. 비막은 퇴간막 하단부에 부착되었다.

● 생물학적 특성

나방류를 주식으로 한다. 5-9월 집단에서는 어린 새끼와 아성체가 80% 이상을 차지한다. 7-8월 출산·포육집단을 형성한다. 높은 하늘을 매우 빠른 속도로 비행하며, 10-18kHz의 초음파 주파수대를 이용한다. 국내에서 서식하는 큰귀박쥐의 생태는 알려지지 않았다.

●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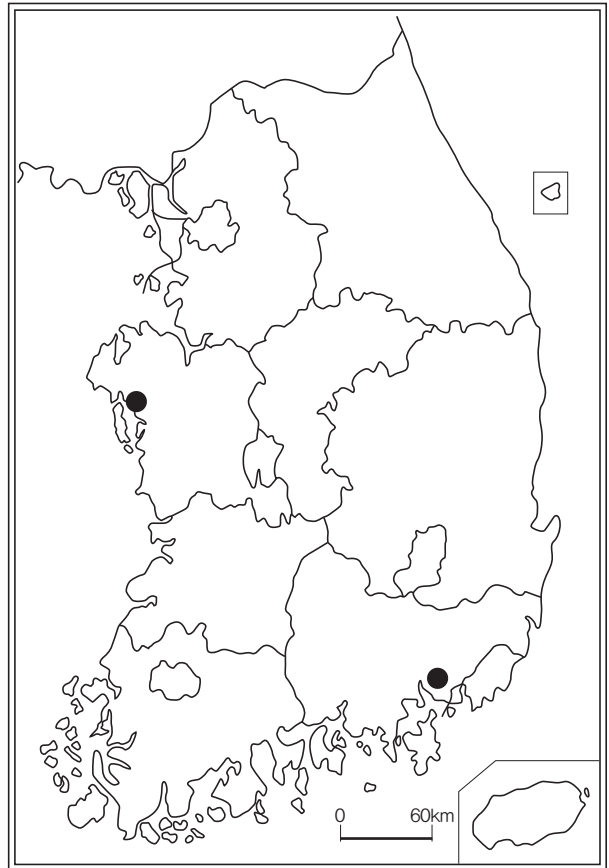
1930년대 이후 국내에서 관찰기록이 없었으나, 2000년 이후 부산과 충청도에서 확인되었다.

● 서식지 동향

서식지가 주로 해안 바위 절벽 틈새나 철근 콘크리트 건물 틈새로 본 종의 서식지에 대한 조사가 추가로 필요하다.

● 개체수 현황

현재 전국에 서식하는 큰귀박쥐의 개체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부족하다.



● 분류학적 특성

큰귀박쥐과는 12속 80여 종이 기록되어 있으며, 큰귀박쥐속은 대부분의 열대와 아열대 지역에 약 8종이 분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큰귀박쥐는 *Tadarida insignis*로 분류한다.

● 위협 요인과 보호 대책

구체적인 서식지와 생태에 관한 자료가 없다. 보호대책 수립을 위해서 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 특기 사항

국내에서의 채집 기록이 극히 드물고 서식지 및 생태에 관한 자료가 거의 없다.

● 평가 결과: LC

평가 결과는 LC로 사료된다. 현재 IUCN에서는 DD(정보부족종)로 취급한다.

● 참고문헌

윤명희, 한상훈, 오홍식, 김장근. 2004. 한국의 포유동물. 동방미디어.

윤명희. 2011. 한국의 척추동물(박쥐류). 국립생물자원관.

한상훈, Dai Fukui, 정철운, 최용근, 김선숙, 전주민. 2011. 산림성 박쥐류의 종다양성 및 계통연구 (1). 국립생물자원관.

Koopman, K. F. 1993. Order Chiroptera. In: Mammal species of the world. taxonomic and geographic reference, 2nd ed. D.E. Wilson and D.M. Reeder eds.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Washington and London, in association with the Amer. Soc. Mamm. pp. 137-241.

Tadarida insignis has been designated as one of the data deficient species(DD) by the IUCN red list. This species is classified in to the LC.

집필자: 집필자: 정철운(국립공원관리공단)

긴발톱침서

Sorex unguiculatus
(Bobson, 1890)

분류학적 위치

식충목(Insectivora) 침서과(Soricidae)

영명: Long-clawed Shrew

IUCN 범주: LC(관심대상)

● 요약

한반도 북부 고산지대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원, 1968) 생물학적 정보 미흡하다.

● 형태

국내 침서류 중에서 가장 대형에 속한다. 앞발이 크고 발톱이 긴 것이 특징이다. 머리와 몸통의 길이는 54-97mm, 꼬리의 길이는 40-53mm, 뒷발의 길이는 12.4-15.5mm, 귀의 길이는 6-8mm, 두개골 최대 길이는 18.6-21.5mm이다.

● 생물학적 특성

초원에서 산림에 이르는 다양한 환경에 서식하며, 특히 낙엽층과 부식토양층이 두터운 산림환경을 선호한다. 곤충, 지렁이, 다족류 등을 포식한다. 이외의 생태는 알려지지 않았다.

● 분포 현황

북한 동북부 지역에 분포한다. 국내에서는 지리산에서 채집 기록이 있다.

● 서식지 동향

정보가 부족하다.

● 개체수 현황

정보가 거의 없으나 개체군 밀도가 낮은 것으로 추측한다.

● 분류학적 특성

자료가 부족하다.

● 위협 요인과 보호 대책

정보가 부족하다.

● 특기 사항

채집 기록을 기초로 종에 대한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다.

● 평가 결과: DD

최근 지리산에서 채집 기록이 있으나,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함경도 지방에만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채집 기록 이후에 대한 정보가 없다.

● 참고문헌

- 원병휘. 1967. 「한국동식물도감」 제7권 동물편(포유류). 문교부.
- 원홍구. 1968. 조선집승류지. 과학원출판사.
- 윤명희, 한상훈, 오홍식, 김장근. 2004. 한국의 포유동물. 동방미디어, 서울.
- Abe, H., S. D. Ohdachi and K. Tsytulina. 2008. *Sorex unguiculatus*. In: IUCN 2011.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Version 2011.2.
- Won, C. 1996. Mammals of Korea: Current status and zoogeography. Ph.D dissertation of University of Arkansas.
- Won, C. M. and K. G. Smith. 1999. History and current status of mammals of the Korean Peninsula. Mammal Review, 29: 3-33.

Sorex unguiculatus was known to be distributed at Mt. Jiri. However, there are not much information to evaluate its status of endangerment.

집필자: 오홍식(제주대학교)

산달

Martes melampus
(Wagner, 1840)

분류학적 위치

식육목(Carnivora) 족제비과(Mustelidae)

영명: Japanese Marten

IUCN 범주: LC(관심대상)

● 요약

한반도에서 과거 포획 기록은 남아 있으나, 현재 서식 현황에 관한 자료는 부족하다.

● 형태

노란목도리담비와 크기가 비슷한 족제비과 동물이다. 머리와 몸통의 길이는 450–660mm, 꼬리의 길이는 190–370mm, 귀의 길이는 25mm, 뒷발의 길이는 12.5mm 정도이다. 수컷이 암컷에 비해 크며, 몸 전체적으로 황색 털이 나 있다. 꼬리는 길며, 족제비속 포유류에 비해 다리가 길다. 털의 색은 여름과 겨울 사이에 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생물학적 특성

야행성이며, 산림을 서식지로 이용하고, 돌 틈이나 나무 구멍을 은신처로 사용한다. 조류, 소형 설치류, 양서·파충류, 곤충, 과실 등을 먹는다. 단독생활을 하며, 여름철에 교미한 뒤 4–5월경에 새끼를 1–4마리 낳는다.

● 분포 현황

우리나라에서는 천안, 성환, 포천(광릉)에서 포획 기록이 남아 있으나 최근 서식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매우 부족하다. 일본에서는 북해도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분포한다.

● 서식지 동향

서식지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

● 개체수 현황

개체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

● 분류학적 특성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산달은 Kishida와 Mori에 의해 1923년에 *Martes melampus coreensis*로 분류되었다.

● 위협 요인과 보호 대책

위협 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

● 특기 사항

포획 기록만 남아 있다.

● 평가 결과: DD

한국산 산달은 천안에서 채집된 표본 2점을 근거로 *M. m. coreensis*라는 신아종으로 발표되었고, 발표 당시부터 매우 희귀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 이후 1960년대까지 몇 점의 모피가 판매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과도한 포획 등의 영향으로 최근에는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다. 분류학적 위치에 대한 검토 및 모식표본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IUCN에서는 국내 분포는 불확실하며, 일본에 분포하는 산달에는 별다른 위협 요인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관심대상으로 평가했다.

● 참고문헌

- 원병휘. 1967. 「한국동식물도감」 제7권 동물편(포유류). 문교부.
- 원홍구. 1968. 조선짐승류지. 과학원출판사.
- 윤명희, 한상훈, 오홍식, 김장근. 2004. 한국의 포유동물. 동방미디어, 서울.
- Abramov, A. and C. Wozencraft. 2008. *Martes melampus*. In: IUCN 2011.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Version 2011.2
- Ohdachi, S. D., Y. Ishibashi, M. A. Iwasa and T. Saitoh. 2009. The wild mammals of Japan. Shoukadoh, Kyoto. 250-251.
- Won, C. 1996. Mammals of Korea: Current status and zoogeography. Ph.D dissertation of University of Arkansas.

Martes melampus was known to be distributed in central Korean. However, taxonomic identity and distribution patterns are not clear yet.

집필자: 오홍식(제주대학교)

쇠뒤쥐

Sorex gracillimus
(Thomas, 1907)

분류학적 위치

식충목(Insectivora) 침서과(Soricidae)

영명: Slender Shrew

IUCN 범주: LC(관심대상)

● 요약

한반도에는 북부 지방에 주로 분포하는 종이며, 중국 동북부, 러시아, 일본 북해도 지역에 동일종이 분포한다.

● 형태

우리나라 침서류 중에서 가장 소형에 속한다. 머리와 몸통의 길이 47-60mm, 꼬리의 길이 40-51mm, 뒷발의 길이 10.3-12.1mm, 귀의 길이 4.8-6.5mm, 두골최대 길이 15.4-16.2mm이다. 등 부위는 암갈색, 배 부위는 은회색을 띤다. 꼬리가 긴 털로 덮여있다.

● 생물학적 특성

저지대에서 고산지대에 이르는 초원에서 침엽활엽수림대 등 다양한 환경에 서식하며, 한 배의 새끼 수는 6마리 내외이다.

● 분포 현황

북한 북동부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국내에는 지리산에서 채집기록이 있다.

● 서식지 동향

서식지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

● 개체수 현황

자료가 부족해 자세한 현황은 알 수 없으나, 매우 극소수가 서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분류학적 특성

분류학적 특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

● 위협 요인과 보호 대책

위협 요인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

● 특기 사항

현재까지 채집기록 이외에 자료가 거의 없어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 평가 결과: DD

최근 지리산에서 채집 기록이 있으나,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고산 지대에만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지리산에서 채집 기록 이후에 대한 정보가 없다.

● 참고문헌

- 원병휘. 1967. 「한국동식물도감」 제7권 동물편(포유류). 문교부.
- 원병휘, 이해풍. 1971. 한국산 포유동물의 생태에 관한 연구. 동국대 농림과학연구소 4: 173-186.
- 원흥구. 1968. 조선집승류지. 과학원출판사.
- 윤명희, 한상훈, 오홍식, 김장근. 2004. 한국의 포유동물. 동방미디어, 서울.
- Abe, H., S. D. Ohdachi and K. Tsytulina. 2008. *Sorex gracillimus*. In: IUCN 2011.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Version 2011.2.
- Won, C. M. and K. G. Smith. 1999. History and current status of mammals of the Korean Peninsula. Mammal Review, 29: 3-33.
- Won, C. 1996. Mammals of Korea: Current status and zoogeography. Ph.D dissertation of University of Arkansas.

Sorex gracillimus was known to be distributed at Mt. Jiri. However, there are not much informations to evaluate the status of its endangerment.

집필자: 오홍식(제주대학교)

쇠갈밭쥐

Lasiopodomys mandarinus
(Milne-Edwards, 1871)

분류학적 위치

설치목(Rodentia) 쥐과(Muridae)

영명: Mandarin Vole

IUCN 범주: LC(관심대상)

●요약

생물학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한 종이다.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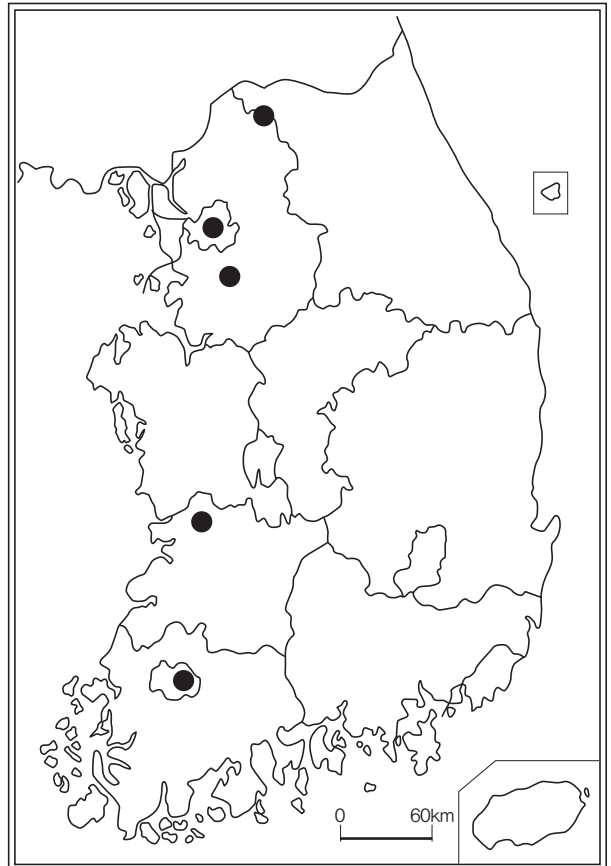
머리와 몸통의 길이는 95–115mm, 꼬리의 길이 28–45mm, 뒷발의 길이 16–22mm, 귀의 길이 11–12.5mm, 체중은 17–23g이다. 몸의 전체적인 털색은 암갈색이고, 꼬리의 길이가 머리와 몸통의 길이의 20–30%를 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생물학적 특성

현재까지 종의 생물학적 특성에 대해 자세히 연구된 자료가 부족하다.

●분포 현황

우리나라에서는 1930년대 서울특별시 청량리, 1940년대 전라북도 익산, 그리고 1950년대에 한탄강, 수원, 광주에서 채집 기록이 남아 있다. 해외에서는 중국 중부와 북동부, 몽골, 러시아 등지에도 동일한 종이 분포한다.



●서식지 동향

서식지 동향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하다.

●개체수 현황

채집 기록이 매우 적어 개체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분류학적 특성

본 종을 대상으로 한 분류학적 연구가 거의 없어 보다 자세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 위협 요인과 보호 대책

위협 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 특기사항

최근 경상북도 포항과 전라북도에서 쇠갈밭쥐로 보이는 개체가 포획되어 현재 유전자 분석이 진행되고 있다.

● 평가 결과: DD

평가 결과는 DD로 사료된다. 현재 IUCN에서는 LC(관심대상)으로 취급한다.

● 참고문헌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16996>

<http://www.bucknell.edu/msw3/browse.asp?s=y&id=13000228>

원병휘. 1967. 「한국동식물도감」 제7권 동물편(포유류). 문교부.

원홍구. 1968. 조선짐승류지. 과학원출판사.

윤명희, 한상훈, 오홍식, 김장근. 2004. 한국의 포유동물. 동방미디어, 서울.

Lasiopodomys mandarinus is classified as DD. More data are needed to protect this species.

집필자: 오홍식(제주대학교)

갯참서

Neomys fodiens
(Pennant, 1771)

분류학적 위치

식충목(Insectivora) 참서과(Soricidae)

영명: Urasian Water Shrew

IUCN 범주: LC(관심대상)

● 요약

수생 생활을 하는 참서과의 포유류로 최근 한반도 중부 이남에서도 서식이 확인되었다.

● 형태

머리와 몸통의 길이 76–87mm, 뒷발의 길이 17.0–21.5mm, 꼬리의 길이 60–71mm이다. 우리나라 뒤쥐과 동물 중에서 중형에 속한다. 등면과 배면의 경계가 뚜렷하다. 등면은 흑색 혹은 흑갈색, 배면에는 갈색과 회색털이 나 있다.

● 생물학적 특성

물속에 잠수해 어류, 수서곤충 등을 포식한다. 강기슭의 땅 속 또는 바위 틈 속 구멍에 마른 식물의 줄기나 낙엽 등을 깔고 보금자리를 만든다. 겨울에도 겨울잠을 자지 않고, 얼지 않은 소택지, 물웅덩이 주변에 은신처를 만들어 생활한다. 한 배의 새끼 수는 보통 6–8마리이며, 6–7월 사이에 출산한다.

● 분포 현황

한반도 북부 고원지대에 서식하는 종으로 알려졌으나, 최근에는 중부 이남에도 서식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 서식지 동향

평지의 하천, 강, 저수지, 늪지로부터 해발 2,600m의 고지대 산림 계곡까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개체수 현황

개체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 분류학적 특성

자료가 부족하다.

● 위협 요인과 보호 대책

서식지 주변 계곡 개발을 제한하고, 수질오염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특기 사항

최근까지 북한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온 종이라 서식지 보호에 필요한 와 생물학적 연구가 필요하다.

● 평가 결과: NE

한반도에서는 북한에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설악산 남쪽 계곡에서 2007년에 2마리가 처음으로 발견되었다. 종에 대한 자료가 없어 정확한 서식실태나 멸종위기 상태 등이 평가하기 어렵다.

● 참고문헌

- 원병휘. 1967. 「한국동식물도감」 제7권 동물편(포유류). 문교부.
- 원홍구. 1968. 조선집승류지. 과학원출판사.
- 윤명희, 한상훈, 오홍식, 김장근. 2004. 한국의 포유동물. 동방미디어, 서울.
- Hutterer, R., H. Meinig, S. Bertolino, B. Kryštufek, A. Amori, B. Sheftel, M. Stubbe, R. Samiya, J. Ariunbold, V. Buuveibaatar, S. Dorjderem, Ts. Monkhul, M. Otgonbaatar and M. Tsogbadrakh. 2008. *Neomys fodiens*. In: IUCN 2011.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Version 2011.2.
- Won, C. M. and K. G. Smith. 1999. History and current status of mammals of the Korean Peninsula. Mammal Review, 29: 3-33.
- Won, C. 1996. Mammals of Korea: Current status and zoogeography. Ph.D dissertation of University of Arkansas.

Neomys fodiens was known not to be distributed throughout Korea. However, 2 individuals were discovered at Mt. Seolak in 2007.

집필자: 오홍식(제주대학교)

뒤쥐

Sorex caecutiens
(Laxmann, 1788)

분류학적 위치

식충목(Insectivora) 침서과(Soricidae)

영명: Laxmann's Shrew

IUCN 범주: LC(관심대상)

● 요약

전국 산간 지역에 주로 서식하고 비교적 관찰은 어려우나 안정된 개체군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형태

머리와 몸통의 길이는 48–78mm, 꼬리의 길이 39–52mm, 뒷발의 길이 11.5–13.7mm, 귀의 길이 6.0–8.5mm이다. 뒤쥐속 포유류 중에서 중형이며, 여름철 등면의 색은 암적갈색, 배면은 회색이나 담갈색이며, 겨울철의 털은 여름에 비해 어두워진다.

● 생물학적 특성

낙엽층과 부식토양층이 두터운 환경을 선호하며 지표에서 활동한다. 곤충류, 거미류, 지네류 등을 주식으로 한다. 봄과 가을에 번식하며, 새끼는 보통 4–8마리를 낳는다. 수명은 1년 내외로 알려졌다.

● 분포 현황

전국의 산지 산림지대에 널리 분포한다.

● 서식지 동향

저지대에서 산지에 걸쳐 초원환경에서 산림환경에까지 널리 분포하지만, 일반적으로 산림 지역에 서식 개체수가 많다.

● 개체수 현황

서식하는 개체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나 개체군 밀도는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 분류학적 특성

제주도 한라산에서 1998년에 처음 채집된 한라산뒤쥐 *Sorex caecutiens hallamontanus*는 일본에 분포하는 *Sorex shinto*와 형태적으로는 유사하며, 분자유전학적 형질은 뒤쥐와 동일하다.

● 위협 요인과 보호 대책

분포범위가 넓고 다양한 환경에 서식하는 종이다. 서식지 개발 등에 의해 위협을 받는다.

● 특기 사항

종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 자료가 부족하다.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평가 결과: NE

주로 북한 지역에 널리 분포하는 종으로 알려져 왔으나 국내에서는 서울 교외에서 2개체의 관찰기록이 있었고, 최근 지리산에서 2개체가 관찰되었다. 전국적으로 서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서식지 분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김우룡, 이충규. 2006. 지리산 들쥐의 생태 및 식이물 분석에 관한 연구. 진주산업대학교 산업기술과학기술연구소보 13: 1-8.
- 원병휘. 1967. 「한국동식물도감」 제7권 동물편(포유류). 문교부.
- 원병휘, 이해풍. 1971. 한국산 포유동물의 생태에 관한 연구(II). 동국대 농림과학연구소 4: 173-186.
- 원홍구. 1968. 조선집승류지. 과학원출판사.
- 윤명희, 한상훈, 오홍식, 김장근. 2004. 한국의 포유동물. 동방미디어, 서울.
- Ohdachi, S. D., H. Abe and S. H. Han. 2003. Phylogenetical Positions of *Sorex* sp. (Insectivora, Mammalia) from Cheju Island and *S. caecutiens* from the Korean Peninsula, inferred from mitochondrial cytochrome b gene sequences. Zoological Science, 20: 91-95.
- Ohdachi, S. D., H. Abe, H. S. Oh and S. H. Han. 2005. Morphological relationships among populations in the *Sorex caecutiens/shinto* group (Eulipotyphla, Soricidae) in East Asia, with a description of a new subspecies from Cheju Island, Korea. Mammalian Biology, 70(6): 345-358.
- Sheftel, B., H. Henttonen, M. Stubbe, R. Samiya, J. Ariunbold, V. Buuveibaatar, S. Dorjderem, Ts. Monkhzul, M. Otgonbaatar and M. Tsogbadrakh. 2008. *Sorex caecutiens*. In: IUCN 2011.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Version 2011.2.
- Won, C. 1996. Mammals of Korea: Current status and zoogeography. Ph.D dissertation of University of Arkansas.
- Won, C. M. and K. G. Smith. 1999. History and current status of mammals of the Korean Peninsula. Mammal Review, 29: 3-33.

Sorex caecutiens was known to be distributed only in North Korea. However, the populations consisted of 2 individuals were reported to be found around Seoul and Mt. Jiri.

집필자: 김태욱(제주대학교)

큰발뒤쥐

Sorex isodon
(Turov, 1924)

분류학적 위치

식충목(Insectivora) 침서과(Soricidae)

영명: Even-toothed Shrew

IUCN 범주: DD(정보부족)

● 요약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서식 유무가 확인된 종이며, 추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형태

중형 침서류로 앞발가락의 발톱이 발달한 것이 특징이다. 머리와 몸통의 길이는 평균 67.5mm, 꼬리의 길이는 평균 42.89mm, 뒷발의 길이는 평균 13.42mm, 두골전장은 19.29mm 정도이다.

● 생물학적 특성

계곡 주변 침엽수림과 혼효림의 산림 지대에서 서식하며, 이외에 생물학적 정보가 미흡하다.

● 분포 현황

한반도 중부 내륙 산림 지대, 연해주, 바이칼 호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강원도 오대산에서 처음 채집되었다(Han *et al.*, 2000).

● 서식지 동향

자료가 부족하다.

● 개체수 현황

개체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나 개체군 밀도는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 분류학적 특성

정보가 부족하다.

● 위협 요인과 보호 대책

정보가 부족하다.

● 특기 사항

정보가 부족하다.

● 평가 결과: NE

최근 강원 오대산에서 채집되어 우리나라 미기록종으로 보고되었으나,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함경도 지방에만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채집 기록 이후에 대한 정보가 없다.

●참고문헌

원병희. 1967. 「한국동식물도감」제7권 동물편(포유류). 문교부.

원홍구. 1968. 조선집승류지. 과학원출판사.

윤명희, 한상훈, 오홍식, 김장근. 2004. 한국의 포유동물. 동방미디어, 서울.

Amori, G., H. Henttonen, M. Stubbe, R. Samiya, J. Ariunbold, V. Buuveibaatar, S. Dorjderem, Ts. Monkhzul, M. Otgonbaatar, M. Tsogbadrakh and P. Gankhuyag. 2008. *Sorex isodon*. In: IUCN 2011.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Version 2011.2.

Han, S. H., S. Ohdachi and H. Abe. 2000. New records of two *Sorex* species (Soricidae) from South Korea. *Mammal Study*, 25(2): 141-144.

Won, C. 1996. Mammals of Korea: Current status and zoogeography. Ph.D dissertation of University of Arkansas.

Sorex isodon was known to be distributed at Mt. Odea. Recently, however, there are not much informations to evaluate the status of its endangerment.

집필자: 오홍식(제주대학교)

큰침서

Sorex mirabilis
(Ognev, 1937)

분류학적 위치

식충목(Insectivora) 침서과(Soricidae)

영명: Ussuri Shrew

IUCN 범주: DD(정보부족)

● 요약

강원 북부의 산지 산림지대에서 처음으로 채집되어 한반도 중부 지역에도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Han *et al.*, 2000), 생물학적 정보는 미흡하다.

● 형태

국내 침서류 중에서 가장 대형에 속한다. 몸의 털은 가늘고 길며, 등면은 갈색, 배면은 담회색을 띤다. 꼬리의 상부는 갈색, 하부는 황백색이다.

● 생물학적 특성

침엽 및 낙엽활엽수림대 내의 바위가 많은 지역에 서식하며, 곤충이나 토양 동물을 먹고 생활한다. 생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 분포 현황

중국 북동부, 러시아 극동 지역, 중부 이북의 고산지대에 분포하며, 국내에서는 최근 강원도 산간 지역에 분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 서식지 동향

자료가 부족하다.

● 개체수 현황

서식하는 개체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 분류학적 특성

자료가 부족하다.

● 위협 요인과 보호 대책

위협 요인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

● 특기 사항

정보가 부족하다.

● 평가 결과: NE

최근 강원 오대산과 점봉산에서 채집되어 우리나라 미기록종으로 보고되었으나,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함경도 지방에만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채집 기록 이후에 대한 정보가 없다.

● 참고문헌

- 원병휘. 1967. 「한국동식물도감」 제7권 동물편(포유류). 문교부.
- 원홍구. 1968. 조선집승류지. 과학원출판사.
- 윤명희, 한상훈, 오홍식, 김장근. 2004. 한국의 포유동물. 동방미디어, 서울.
- Han, S. H., S. Ohdachi and H. Abe. 2000. New records of two *Sorex* species (Soricidae) from South Korea. *Mammal Study*, 25(2): 141-144.
- Tsytsulina, K. 2008. *Sorex mirabilis*. In: IUCN 2011.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Version 2011.2.
- Won, C. 1996. Mammals of Korea: Current status and zoogeography. Ph.D dissertation of University of Arkansas.

Sorex mirabilis was known to be distributed at Mt. Chombong and Odae. Recently, however, there are not much informations to evaluate the status of its endangerment.

집필자: 오홍식(제주대학교)

큰바다사자

Eumetopias jubatus
(Scherber, 1776)

분류학적 위치

기각아목(Pinnipedia) 바다사자과(Otariidae)

영명: Stellar Sea Lion

IUCN 범주: EN(위기)

● 요약

큰바다사자는 채식환경이 넓으며, 해양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로서 생태계의 균형 유지 및 해양의 건강성을 대변하는 종이다.

● 형태

큰바다사자는 중형의 바다사자과 동물로 몸집이 거대하고 강하게 보인다. 가장 큰 특징은 머리와 주둥이가 크고 넓으며, 머리의 크기에 비해 눈과 귓바퀴는 작다. 성숙한 개체의 수염은 길다. 성숙한 수컷을 제외하고 주둥이와 정수리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으며 이마가 없다. 성숙한 수컷은 두개골 꼭대기에 벼슬 모양의 돌출부가 있어 정수리와 주둥이가 구분된다. 번식기의 수컷은 목과 어깨 부근이 강건하고 긴 보호털이 늘어진 갈기털이 있고, 앞지느러미 발은 매우 길고 넓다. 수컷의 평균 체장은 2.8m, 평균 체중 566kg이며, 암컷은 평균 체장 2.3m, 평균 체중 273kg이다. 위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 하체 부위는 홀쭉하고 상체 부위가 우람하게 보여 사자와 같이 보인다. 성숙 개체의 체색은 등 쪽에서는 옅은 노랑 혹은 황갈색이며 배 쪽은 갈색으로 어두워지고 대조적으로 녹색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기각류와는 달리, 젖었을 때 색깔은 더욱 옅어져 회백색으로 보인다. 출생 시 새끼의 털은 흑갈색이며 생후 6개월이 되면 털갈이를 한다.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지느러미발은 검은색이다.

● 생물학적 특성

수컷의 수명은 15살 내외, 암컷은 4살부터 임신하기 시작하며, 오래 산 개체는 25년 전후까지 산다. 한 번 출산에 새끼 한 마리를 낳는다. 우리나라 연안에는 겨울과 봄에 동해와 남해 및 서해 남부에 드물게 매우 적은 수가 출현한다. 번식장소 주변의 해양에서 1년 내내 무리지어 생활한다. 어떤 수역에서는 먼 바다로 자주 나간다. 늦은 봄부터 여름 사이에 번식한다. 일부다처제이며 한 마리의 수컷과 15-16마리의 성숙한 암컷에 의해 형성된 일부다처제의 번식 집단(하렘)을 이루고, 암컷은 그 안에서 출산, 육아, 교미를 행한다.

● 분포 현황

황해와 동해북부, 오크츠크해 쿠릴 열도, 캄차카 반도, 베링해, 알류산 열도 및 캘리포니아 중부 연안을 주변 수변 수역의 연안과 대륙붕에 분포한다. 우리나라에는 동해를 따라 남해, 제주도를 거쳐 서해까지 출현한다.

● 서식지 동향

우리나라에는 번식장소가 없고, 겨울에서 봄에 걸쳐 출현하는 것은 사할린 주변과 캄차카 반도의 번식지에서 남하한 것으로, 황해에는 드물게 어린 수컷이 나타나고, 동해에는 주로 성체 수컷이 남하한다. 번식기 이외에도 때때로 상륙한다.

● 개체수 현황

1970년대 전 세계적으로 29만여 마리가 생존하는 것으로 추정했으나,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 분류학적 특성

큰바다사자는 기각아목 바다사자과에 속하는 해양포유류로 물개, 바다사자와 같은 과(family)에 포함되어 있다.

● 위협 요인과 보호 대책

과거 큰바다사자의 개체수 감소 및 멸종위기에 가장 큰 위협 요인은 어업의 대상이 되는 주요 어류의 감소 및 익사하거나 그물에 걸리어 죽거나 직접 포획이 개체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

● 특기 사항

본 종을 포함한 해양포유류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데, 2012년 제주도에서 한 개체가 발견되었다.

● 평가 결과: NA

우리나라에서는 방랑자 상태로 매우 드물게 발견된다.

● 참고문헌

원병오, 윤명희, 한상훈, 오홍식, 김장근. 2002. 한국의 포유동물, 동방미디어.

Gelatt, T. and L. Lowry. 2008. *Eumetopias jubatus*. In: IUCN 2011.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Version 2011.2.

Won, C. M. and K. G. Smith. 1999. History and current status of mammals of the Korean Peninsula. Mammal Society, *Mammals Review* 29(1): 3-33.

The individuals of *Eumetopias jubatus* were found as vagrant along the coast of the Korean Peninsula.

집필자: 최병진(한국자연환경연구소)

5. 연구진

5.1. 참여 연구진

성명	소속	참여 업무
오홍식	제주대학교	총괄
김태욱	제주대학교	집필

5.2. 자문진

성명	소속	참여 업무
양병국	국립환경과학원	자문위원
최태영	국립환경과학원	자문위원
김원명	국립환경과학원	자문위원
박용수	전북 장수군청	자문위원

5.2. 집필진

오홍식 OHS 제주대학교

(우) 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과학교육과
Hong-Shik Oh, Professor, Dept. of Science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102 Jejudaehakno Jeju-si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690-756, Republic of Korea

최병진 CBJ 한국자연환경연구소

(우) 122-837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15-87
Byoung-jin Choi, Chief, Korea Natural Environment Institute Co. Ltd, 3F Happy Plus Bld,
15-87 Daejo-dong Eunpyeong-gu, Seoul, 122-837, Republic of Korea

정철운 CCU 국립공원종복원기술원 여우복원팀

(우) 750-811 경북 영주시 순흥면 읍내리 순흥복지회관 2층 여우복원팀
Chul-un, Chung, Team Manager, Species Restoration Technology Institute, Korea National Park Service,
320, Eumnae-ri, Sunheung-myeon, Yeongju-si, Gyeongbuk, 750-811, Republic of Korea

김태욱 KTW 제주대학교

(우) 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과학교육과
Tae-wook Kim, Ph. D. course, Dept. of Science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102 Jejudaehakno Jeju-si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690-756, Republic of Korea

6. 적색목록 분류체계

학명	국명	범주	집필자
Order Insectivora 식충목			
Family Erinaceidae 고슴도치과			
<i>Erinaceus amurensis</i>	고슴도치	LC	OHS
Family Soricidae 참새과			
<i>Crocidura dsinezumi</i>	제주땃쥐	LC	OHS
<i>Crocidura lasiura</i>	땃쥐	LC	OHS
<i>Crocidura shantungensis</i>	작은땃쥐	LC	KTW
<i>Neomys fodiens</i>	갯참새	NE	OHS
<i>Sorex caecutiens</i>	뒤쥐	NE	KTW
<i>Sorex gracillimus</i>	쇠뒤쥐	DD	OHS
<i>Sorex isodon</i>	큰발뒤쥐	NE	OHS
<i>Sorex mirabilis</i>	큰참새	NE	OHS
<i>Sorex unguiculatus</i>	긴발톱참새	DD	OHS
Order Chiroptera 익수목			
Family Vespertilionidae 애기박쥐과			
<i>Myotis ikonnikovi</i>	쇠큰수염박쥐	LC	CCU
<i>Myotis formosus</i>	붉은박쥐	VU	CCU
<i>Plecotus auritus</i>	토끼박쥐	VU	CCU
<i>Nyctalus aviator</i>	멧박쥐	LC	CCU
<i>Vespertilio sinensis</i>	안주애기박쥐	LC	CCU
<i>Murina ussuriensis</i>	작은관코박쥐	EN	CCU
<i>Murina leucogaster</i>	관코박쥐	LC	CCU
Family Molossidae 큰귀박쥐과			
<i>Tadarida insignis</i>	큰귀박쥐	LC	CCU
Order Rodentia 설치목			
Family Sciuridae 청설모과			
<i>Pteromys volans</i>	하늘다람쥐	VU	OHS
Family Muridae 쥐과			
<i>Micromys minutus</i>	멧밭쥐	LC	OHS
<i>Tscherskia triton</i>	비단털쥐	LC	OHS

<i>Lasiopodomys mandarinus</i>	쇠갈발쥐	DD	OHS
Order Carnivora 식육목			
Family Canidae 개과			
<i>Canis lupus</i>	늑대	RE	OHS
<i>Vulpes vulpes</i>	여우	EN	CCU
Family Felidae 고양이과			
<i>Lynx lynx</i>	시라소니	RE	OHS
<i>Prionailurus bengalensis</i>	살쾨	VU	OHS
<i>Panthera pardus</i>	표범	RE	OHS
<i>Panthera tigris</i>	호랑이	RE	OHS
Family Ursidae 곰과			
<i>Ursus thibetanus</i>	반달가슴곰	EN	OHS
Family Mustelidae 족제비과			
<i>Mustela nivalis</i>	무산쇠족제비	VU	OHS
<i>Martes melampus</i>	산달	DD	OHS
<i>Martes flavigula</i>	담비	VU	OHS
<i>Meles leucurus</i>	오소리	NT	KTW
<i>Lutra lutra</i>	수달	VU	OHS
Suborder Pinnipedia 기각아목			
Family Otariidae 바다사자과			
<i>Eumetopias jubatus</i>	큰바다사자	NA	CBJ
<i>Zalophus japonicus</i>	바다사자	EX	CBJ
<i>Callorhinus ursinus</i>	물개	VU	CBJ
Family Phocidae 물범과			
<i>Phoca largha</i>	물범	EN	CBJ
Order Artiodactyla 소목			
Family Moschidae 사향노루과			
<i>Moschus moschiferus</i>	사향노루	CR	OHS
Family Cervidae 사슴과			
<i>Cervus nippon</i>	대륙사슴	RE	OHS
Family Bovidae 소과			
<i>Naemorhedus caudatus</i>	산양	VU	KTW

7. 참고문헌

- 국립공원관리공단국립공원연구원. 2010. 여우종 복원을 위한 서식지 및 환경특성 조사. 국립공원관리공단.
- 권구희. 2011. 극동아시아 대륙사슴(*Cervus nippon hortulorum*)의 보전 및 계통분류연구: 미토콘드리아 DNA cytochrome b 유전자의 염기서열 분석.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선숙. 2010. 동굴성 박쥐 7종의 동면생태와 행동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우룡, 이충규. 2006. 지리산 들쥐의 생태 및 식물 분식에 관한 연구. 진주산업대학교 산업기술과학기술연구 소보, 13: 1-8.
- 김정호. 1999. 경상북도 지역의 포유류 분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종택, 김진중, 김현철. 2007. 멸종위기종 한국 사향노루의 서식지 조사. 한국가축위생학회지, 30: 459-466.
- 문화재청. 1999. 천연기념물 산양과 사향노루의 분포와 생태 연구보고서. 문화재청.
- 박용수, 김종택, 이우신. 2008. 오대산국립공원 지역에 멸종위기종인 사향노루 복원을 위한 주요 서식지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11: 91-102.
- 박인주. 2008. 중국과 동북아 지역의 산양(*Naemorhedus caudatus*) 연구. 한국산양의 합리적인 복원과 활성화를 위한 양구군 국제심포지움자료집. 57-63쪽.
- 박정식. 2010. 점박이물범 관리 실태 및 보전방안. 보호대상해양생물 지정 및 관리 발전 방안 심포지엄. 국토해양부.
- 손성원. 1978. 경남 남서부 지역 박쥐류의 분포조사. 경남대학교 논문집 5: 349-361.
- 신남식, 윤희정, 유병호, 양병국, 권수완, 주승진, 용완율, 어경연. 2009. 환경부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보고서(토종여우의 인공증식 및 자연생태계 복원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환경부.
- 양두화, 김보현, 정대호, 정동혁, 정우진, 이배근. 2008. 지리산에 방사한 반달가슴곰의 행동권 크기 및 서식지 이용 특성 연구. 한국환경생태학회지, 22(4): 427-434.
- 양병국. 2002. 한국산 산양의 분류, 생태 및 개체군 현황.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영산강유역환경청. 2006. 서남해안 붉은박쥐 서식현황.
- 우한정, 최정일. 2002. 동강유역의 포유동물상. 한국육수학회지, 35: 331-336.
- 元炳杔, 禹漢貞. 1956. 鬱陵島の哺乳動物相 18pp. 林業試驗場, 서울.
- 元炳杔, 禹漢貞. 1958a. 韓國産鳥獸分布目錄, 96pp. 林業試驗場, 서울.
- 元炳杔, 禹漢貞. 1958b. 대륙밭쥐에 의한 林木의 被害. 農事院研報, 1: 129-137.
- 元炳杔, 禹漢貞. 1958c. 濟州道の哺乳類. 韓應動態誌, 1: 5-13.
- 元炳杔, 禹漢貞. 1959. 智異山の鳥獸類. 林試研報, 8: 126-136.
- 元炳杔, 禹漢貞. 1960. 鬱陵島産 애급쥐에 대하여. 韓應動態誌, V: 49-52.
- 元炳杔, 禹漢貞. 1961. 韓國産齧齒類의分類學的研究. 朝鮮學報, 21/22: 98-105. 日本奈良.
- 元炳杔. 1968. 韓國에서의 하늘다람쥐 *Pteromys volans aluco*의 번식기록(日文). 日本哺乳動物學會誌, 4: 400-402.
- 원병오. 1976. 韓國哺乳類目錄. 9pp. 慶熙大鳥類研究所.
- 원병휘, 이정일. 1975. 비단털쥐의 생태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논문집, 5: 271-291.
- 원병휘, 이해풍. 1969. 한국산 서류의 생태학적 연구. 동국대학교 농림과학연구소, 3: 89-113.
- 원병휘, 이해풍. 1969. 한국산 포유동물의 생태에 관한 연구. 동국대논문집, 6-7: 59-85.

- 원병휘, 이해풍. 1971. 한국산 포유동물의 생태에 관한 연구(II). 동국대 농림과학연구소, 4: 173-186.
- 원병휘. 1967. 「한국동식물도감」 제7권 동물편(포유류). 문교부.
- 원흥구. 1968. 조선집승류지. 과학원출판사.
- 윤명희, 손성원. 1989. 한국산 박쥐류의 계통분류학적 연구 1. Rhinolophidae의 1종과 Vespertilionidae의 6종에 대한 분류학적인 재검토 및 한국산 익수류상의 천이. Korean J. Zool., 32: 374-392.
- 윤명희, 한상훈, 오홍식, 김장근. 2004. 한국의 포유동물. 동방미디어. 서울.
- 윤명희. 2011. 한국의 척추동물(박쥐류). 국립생물자원관.
- 이배근, 양두화, 손장익, 이진홍, 석권희, 윤만진. 2008. 월악산 방사 산양의 행동권 분석. 한국환경생태학회 학술대회논문집, 49-51쪽.
- 이병희, 원창만, 조영석, 한상훈. 2008. 한반도 삵의 분류학적 재검토 및 지리적 변이 연구. 국립생물자원관.
- 이오선. 2007. 한국산 삵(*Prionailurus bengalensis*)의 식이습성 및 서식지 선호도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석사학위논문.
- 이은재. 2011. 강원도 삼척 산불 피해지역의 우점 설치류 3종의 생태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정일. 1989. 경상북도 포유동물 분포에 관한 기초 연구. 동국논집, 8: 385-419.
- 이정일. 1993. 강원도 포유동물의 분포밀도에 관한 기초 연구. 동국논집, 12: 49-78.
- 임신재. 2002. 들꿩의 분포, 행동 생태 및 서식지 이용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종렬. 2008. 이북에 서식하는 산양에 대하여. 한국산양의 합리적인 복원과 활성화를 위한 양구군 국제심포지움자료집. 57-63쪽.
- 정철운. 2011. 한국산 집박쥐(*Pipistrellus abramus*)의 행동권 및 반향정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영석, 원창만, 김주필. 2006. 한국 수달(*Lutra lutra*)의 분포 현황. 환경생물학회지, 24: 89-94.
- 최태영, 박종화. 2009. 농촌지역의 삵(*Prionailurus bengalensis*) 행동권. 한국환경생태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9(1): 56-58.
- 최태영, 최현명. 2007. 야생동물흔적도감-흔적으로 찾아가는 야생동물 생태 기행. 돌베개 출판, 파주.
- 최태영. 2002. 설악산국립공원의 산양특별보호구역 설정. 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최태영. 2007. 포유류의 도로횡단 특성과 행동권 분석을 통한 로드킬 저감방안.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상훈, Dai Fukui, 정철운, 최용근, 김선숙, 전주민. 2011. 산림성 박쥐류의 종다양성 및 계통연구 (1). 국립생물자원관. 6-7쪽.
- 한성용. 1998. 한국 수달의 생태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멸종위기종복원센터. 2009. 2007-2008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산양-.
- 환경부. 2006.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증식·복원 종합계획(2006-2015). 환경부.
- 환경부. 2009. 멸종위기 바다사자 복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복원계획.
- 中山知洋, 村山良子, 佐藤雅彦, 前田喜四雄. 2009. 北海道北部でのコテングコウモリ *Murina ussuriensis* の行動圏および隠れ家. 利尻研究, 28: 83-85.
- Abe, H., S. D. Ohdachi and K. Tsytsulina. 2008. *Sorex gracillimus*. In: IUCN 2011.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Version 2011.2.
- Abe, H., S. D. Ohdachi and K. Tsytsulina. 2008. *Sorex unguiculatus*. In: IUCN 2011. IUCN Red List of

- Threatened Species. Version 2011. 2.
- Abe, H., Yishie, N., Kaneco, Y., Maeda, K., Miura, S., Yoneda, M. 1994. A Pictorial Guide to the Mammals of Japan. Toukai Daigakku Shuppankai Press, Japan, pp. 38–70.
- Abramov, A. and C. Wozencraft. 2008. *Meles leucurus*. In: IUCN 2011.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Version 2011. 2.
- Abramov, A. and C. Wozencraft. 2008. *Martes melampus*. In: IUCN 2011.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Version 2011. 2.
- Abramov, A. V. 2002. Variation of the baculum structure of the Palearctic badger(Carnivora, Mustelidae, *Meles*). Russian Journal of Theriology, 1: 57–60.
- Abramov, A. V. and A. Y. Puzachenko. 2005. Sexual dimorphism of craniaological characters in Eurasian badgers, *Meles* spp. (Carnivora, Mustelidae). Zoologischer Anzeiger, 244: 11–29.
- Abramov, A., R. J. Timmins, S. Robertson, B. Long, Than Zaw and J.W. Duckworth. 2008. *Martes flavigula*. In: IUCN 2011.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Version 2011. 2.
- Allen, J. A. and C. Andrews. 1913. Mammals collected in Korea. Bull. Amer. Mus. Nat. Hist. Vol. 32, pp. 427–436.
- Amori, G., H. Henttonen, M. Stubbe, R. Samiya, J. Ariunbold, V. Buuveibaatar, S. Dorjderem, Ts. Monkhzul, M. Otgonbaatar, M. Tsogbadrakh and P. Gankhuyag. 2008. *Sorex isodon*. In: IUCN 2011.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Version 2011. 2.
- Aoki, B. (青木文一郎). 1913. A hand-list of Japanese and Formosan mammals. Annot. Zool. Japan, vol. 8, pt. 2, pp. 261–353.
- Aplin, K., D. Lunde, N. Batsaikhan, B. Kryštufek, H. Meinig and H. Henttonen. 2008. *Micromys minutus*. In: IUCN 2011.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Version 2011. 2.
- Aurioles, D. and T. Trillmich. 2008. *Zalophus japonicus*. In: IUCN 2011.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Version 2011. 2.
- Brass. 1904. *Felis tigris coreensis* Brass. Nutzbare Tiere Ostariensis, pp. 4–5(Korea).
- Breitenmoser, U., D. P. Mallon, M. von Arx and C. Breitenmoser-Wursten. 2008. *Lynx lynx*. In: IUCN 2011.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Version 2011. 2.
- Corbet, G. B. and J. E. Hill. 1991. *A World List of Mammalian Species*(Thir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 Corbet, G. B. 1978. The Mammals of the Palaearctic Region: A Taxonomic Review. British Museum(Natural History) and Cornell University Press, London and Ithaca, pp. 39–63.
- Domaniewski J. 1926. *Mustela (Kolonicus) sibirica wrenus* Domaniewski. Prace Zool. Mus. V. P. 53. Przywo Warszawa.
- Duckworth, J. W., J. MacKinnon and K. Tsytsulina. 2008. *Naemorhedus caudatus*. In: IUCN 2011.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Version 2011.2.
- Francis, C., P. Bates, G. Csorba, S. Molur and C. Srinivasulu. 2008. *Myotis formosus*. In: IUCN 2011.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Version 2011.2.
- Garshelis, D. L. and R. Steinmetz. 2008. *Ursus thibetanus*. In: IUCN 2011. IUCN Red List of Threatened

- Species. Version 2011.2.
- Gelatt, T. and L. Lowry. 2008. *Callorhinus ursinus*. In: IUCN 2011.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Version 2011. 2.
- Gelatt, T. and L. Lowry. 2008. *Eumetopias jubatus*. In: IUCN 2011.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Version 2011. 2.
- Giglioli, H. H. and T. Salvadori. 1887. Brief notes on the fauna of Korea and adjoining coast of Manchurica. P. Z. S., London.
- Han, S. H., S. Ohdachi and H. Abe. 2000. New records of two Sorex species (Soricidae) from South Korea. *Mammal Study*, 25(2): 141–144.
- Han, S. H., M. A. Iwasa, S. D. Ohdachi, H. S. Oh, H. Suzuki, K. Tsuchiya and H. Abe. 2002. Molecular phylogeny of *Crocidura* shrews in northeastern Asia: A special reference to specimens in Cheju Island, South Korea. *Acta Theriologica*, 47: 369–379.
- Harris, R. B. 2008. *Cervus nippon*. In: IUCN 2011.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Version 2011. 2.
- Henschel, P., L. Hunter, U. Breitenmoser, N. Purchase, C. Packer, I. Khorozyan, H. Bauer, L. Marker, E. Sogbohossou and C. Breitenmoser–Wursten. 2008. *Panthera pardus*. In: IUCN 2011.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Version 2011. 2.
- Heude, P. M. 1896. *Sus coreanus* Heude. *Memories d'Hist. Nat. de l'Emp. chinois*, 3, pp. 19–192. (Pusan, Korea). 1901. *Selenarctos ussuricus* Heude. *Mem. Conc. l'Hist. Wat. de l'Emp. ehin.*, 5. pl. 1. P. 2, pl. 2. Fig. 10. (Ussuri).
- Hollister, N. 1911. *Musculus parvipes* Hollister. *Proc. Biol. Soc., Wash.*, 24. P. 1. (Mokpo, Korea).
- Hutson, A. M., F. Spitzenberger, S. Aulagnier, I. Coroiu, A. Karataş, J. Juste, M. Paunovic, J. Palmeirim and P. Benda. 2008. *Plecotus auritus*. In: IUCN 2011.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Version 2011. 2.
- Hutterer, R., H. Meinig, S. Bertolino, B. Kryštufek, A. Amori, B. Sheftel, M. Stubbe, R. Samiya, J. Ariunbold, V. Buuveibaatar, S. Dorjderem, Ts. Monkzul, M. Otgonbaatar and M. Tsogbadrakh. 2008. *Neomys fodiens*. In: IUCN 2011.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Version 2011. 2.
- Iwasa, M. A., S. Ohdachi, S. H. Han, H. S. Oh, H. Abe and H. Suzuki. 2001. Karyotype and RFLP of the nuclear rDNA of *Crocidura* sp. on Cheju Island, South Korea (Mammalia, Insectivora). *Mammalia*, 65: 451–459.
- Jiang, X. L. and R. S. Hoffmann. 2001. A revision of the white-toothed shrews (*Crocidura*) of southern China. *Journal of Mammalogy*, 82: 1059–1079.
- Johnson, D. H and J. K Jones. 1955a. Three new rodents of the genera *Micromys* and *Apodemus* from Korea. *Proc. Biol. Soc. Wash.*, 68: 167–172.
- Johnson, D. H and J. K Jones. 1955b. A new chipmunk from Korea. *Proc. Biol. Soc. Wash.*, 68: 175–176.
- Jones, J. K. and D. H. Johnson. 1960. Review of the insectivores of Korea. *Mus. Nat. Histo, Kansas Univ.*, 9(22): 549–578, Lawrence, Kansa.
- Jones, J. K. and D. H. Johnson. 1965. Synopsis of the lagomorphs and rodents of Korea. *Mus. Nat. Hist., Kansas Univ.*, 16(2): 357–407, Lawrence, Kansas.

- Koh, H. S., Y. Jin, B. G. Yang, B. K. Lee, S. W. Heo and J. H. Jang. 2008. Taxonomic status of Siberian Flying Squirrel from Korea(*Pteromys volans aluco* Thomas 1907). Korean Journal of Systematic Zoology, 24(2): 169–172.
- Koopman, K. F. 1993. Order Chiroptera. In: Mammal species of the world, taxonomic and geographic reference, 2nd ed. D.E. Wilson and D.M. Reeder eds.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Washington and London, in association with the Amer. Soc. Mamm. pp. 137–241.
- Kuroda, N. 1923. On a collection of Japanese and Formosan mammals. 3(1): 599–611.
- Kuroda, N. 1934. Korean mammals preserved in the collection of Marquis Yamashina. Journal of Mammalogy, 15: 229–239.
- Kuroda, N. 1938. A list of the Japanese mammals. Publ. by the author, Tokyo. 1940. 原色日本哺乳類圖説. 311pp. 三省堂. 東京.
- Lee, M. Y., S. K. Park, Y. J. Hong, Y. J. Kim, I. Voloshina, A. Myslenkov, A. P. Saveljev, T. Y. Choi, R. Z. Piao, J. H. An, M. H. Lee, H. Lee and M. S. Min. 2008. Mitochondrial genetic diversity and phylogenetic relationships of Siberian Flying Squirrel(*Pteromys volans*) populations. Animal Cells and Systems, 12: 269–277.
- Lönnberg, E. 1922. Some remarks about Eastern hedgehogs. Ann. Mag. Nat. Hist., 9(3): 222–626.
- Lönnberg, E. 1923. Remarks on some Palaearctic bears. Proc. Z. S., pp. 85–95. London.
- Lowry, L. and V. Burkanov. 2008. *Phoca largha*. In: IUCN 2011.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Version 2011. 2.
- Macdonald, D. W. and J. C. Reynolds. 2008. *Vulpes vulpes*. In: IUCN 2011.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Version 2011. 2.
- Marmi, J., F. López-Giráldez, D. W. Macdonald, F. Calafell, E. Zholnerovskaya and X. Domingo-Roura. 2006. Mitochondrial DNA reveals a strong phylogeographic structure in the badger across Eurasia. Molecular Ecology, 15: 1007–1020.
- Mech, L. D. and L. Boitani. 2010. *Canis lupus*. In: IUCN 2011.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Version 2011. 2.
- Miquelle, D., Y. Darman and I. Seryodkin. 2011. *Panthera tigris* ssp. *altaica*. In: IUCN 2011.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Version 2011. 2.
- Motokawa, M. 2003. Geographic variation in the Japanese white-toothed shrew *Crocidura dsinezumi*. Acta Theriologica, 48: 145–156.
- Mori, T. 1923. “A list of Korean Vertebrates. Jour. Chosen Nat. Hist. Soc., 3: 23–27. (In Japanese).
- Motokawa, M., L. K. Lin, M. Harada and S. Hattori. 2003. Morphometric geographic variation in the Asian lesser white-toothed shrew *Crocidura shantungensis*(Mammalia, Insectivora) in east Asia. Zoological Science, 20: 789–795.
- National audubon society, 2008. Guide to MARINE MAMMALS OF THE WORLD. ALFRED A. KNOPF. 90–91.
- Nehring, A. 1891. *Mogera robusta* Nehring. Sitz-Berich. Ges. Naturf. Freu. p. 96., Berlin.
- Nowak, R. M. 1991. Walker's Mammals of the World. Vol. II(5th ed.). The Jones Hopkins Univ. Press.

Baltimore and London, 1629pp.

- Nyambayar, B., H. Mix and K. Tsytsulina. 2008. *Moschus moschiferus*. In: IUCN 2011.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Version 2011. 2.
- Ognev, S. I. 1927. *Myotis daubentonni ussuriensis* Ognev (near Vladivostok, Type in Ognev coll.) and *M. nattereri amurensis* Ognev (Amur river, Type in Zool. Mus., Moscow).
- Ohdachi, S. D., H. Abe and S. H. Han. 2003. Phylogenetical Positions of *Sorex* sp. (Insectivora, Mammalia) from Cheju Island and *S. caecutiens* from the Korean Peninsula, inferred from mitochondrial cytochrome b gene sequences. *Zoological Science*, 20: 91–95.
- Ohdachi, S. D., H. Abe, H. S. Oh and S. H. Han. 2005. Morphological relationships among populations in the *Sorex caecutiens/shinto* group (Eulipotyphla, Soricidae) in East Asia, with a description of a new subspecies from Cheju Island, Korea. *Mammalian Biology*, 70(6): 345–358.
- Ohdachi, S. D., Y. Ishibashi, M. A. Iwasa and T. Saitoh. 2009. The wild mammals of Japan. Shoukadoh, Kyoto. 250–251.
- Ohdachi, S. D., M. A. Iwasa, V. A. Nesterenko, H. Abe, R. Masuda and W. Haberl. 2004. Molecular phylogenetics of *Crocidura* shrews(Insectivora) in east and central Asia. *Journal of Mammalogy*, 85: 396–403.
- Ruiz-Olmo, J., A. Loy, C. Cianfrani, P. Yoxon, G. Yoxon, P.K. de Silva, A. Roos, M. Bisther, P. Hajkova and B. Zemanova. 2008. *Lutra lutra*. In: IUCN 2011.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Version 2011.2.
- Sanderson, J., S. Sunarto, A. Wilting, C. Driscoll, R. Lorica, J. Ross, A. Hearn, S. Mujkherjee, J. A. Khan, B. Habib and L. Grassman. 2008. *Prionailurus bengalensis*. In: IUCN 2011.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Version 2011. 2.
- Shar, S., D. Lkhagvasuren, H. Henttonen, T. Maran and I. Hanski. 2008. *Pteromys volans*. In: IUCN 2011.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Version 2011.2.
- Sheftel, B., H. Henttonen, M. Stubbe, R. Samiya, J. Ariunbold, V. Buuveibaatar, S. Dorjderem, Ts. Monkhul, M. Otgonbaatar and M. Tsogbadrakh. 2008. *Sorex caecutiens*. In: IUCN 2011.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Version 2011. 2.
- Song, S. Y., 1985. [A new subspecies of *Cricetulus triton* from Shaanxi, China]. *Acta Theriologica Sinica*, 56: 137–139. (in Chinese).
- Thomas, O. 1906. List of small mammals from Korea and Quelpart. *P. Z. S.*, pp. 858–865.
- Thomas, O. 1907. Second list of Mammals from Korea. *P. Z. S.*, pp. 462–466.
- Tikhonov, A., P. Cavallini, T. Maran, A. Kranz, J. Herrero, G. Giannatos, M. Stubbe, J. Conroy, B. Kryštufek, A. Abramov, C. Wozencraft, F. Reid and R. McDonald. 2008. *Mustela nivalis*. In: IUCN 2011.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Version 2011. 2.
- Tsytsulina, K. 2008. *Erinaceus amurensis*. In: IUCN 2011.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Version 2011. 2.
- Tsytsulina, K. 2008. *Murina ussuriensis*. In: IUCN 2011.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Version 2011. 2.

- Tsytsulina, K. 2008. *Sorex mirabilis*. In: IUCN 2011.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Version 2011. 2.
- Tsytsulina, K. 2008. *Tscherskia triton*. In: IUCN 2011.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Version 2011. 2.
- Uphyrkina, O., Johnson, W. E., Quigley, H. B., Miquelle, D. G., Marker, L., Bush, M. E. and S. J. O'Brien. 2001. Phylogenetics, genome diversity and origin of modern leopard, *Panthera pardus*. *Molecular Ecology*, 10: 2617.
- Wilson, R. and I. Reeder. 1993. *Mammal species of the world*.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New York.
- Won, P. O. 1961. Land mammals of Korea. pp. 36–64 In *Avi–mammalian fauna of Korea*. Inst. Agric., Suwon, Korea. 139pp.
- Won, C. 1996. Mammals of Korea: Current status and zoogeography. Ph.D dissertation of University of Arkansas.
- Won, C. M. and K. G. Smith. 1999. History and current status of mammals of the Korean Peninsula. *Mammal Review*, 29: 3–33.
- Won, P. O. 1961. Studies on the Avi–mammalian fauna of Korea from viewpoint of the forestry protection. In *Avi–mammalian fauna of Korea*. Inst. Agr., Suwon, Korea, pp. 50–53.
- Yoon, M. H. 1977. An investigation on the distribution of the Korean bats. Master's Thesis, Kyunghee Univ., pp. 1–34.
- Yoon, M. H. 1990. Taxonomical study on four *Myotis* (Vespertilionidae) species in Korea. *Kor. J. Syst. Zool.*, 6: 173–192.

8. 찾아보기

8.1. 국명 찾아보기

갯참서
고슴도치
관코박쥐
긴발톱참서
늑대
담비(노란목도리담비)
대륙사슴
뒤쥐
땃쥐
멧박쥐
멧발쥐
무산쇠족제비
물개
물범(잔점박이물범)
바다사자
반달가슴곰
붉은박쥐
비단털쥐
사향노루
산달
산양

삵
쇠갈발쥐
쇠뒤쥐(작은뒤쥐)
쇠큰수염박쥐
수달
시라소니(스라소니)
안주애기박쥐
여우
오소리
작은관코박쥐
작은땃쥐
제주땃쥐
큰바다사자
큰발뒤쥐
큰참서
토끼박쥐
표범
큰귀박쥐
하늘다람쥐
호랑이

8.2. 학명 찾아보기

Callorhinus ursinus
Canis lupus
Cervus nippon
Crocidura dsinezumi
Crocidura lasiura
Crocidura shantungensis
Erinaceus amurensis
Eumetopias jubatus
Lasiopodomys mandarinus

Lutra lutra
Lynx lynx
Martes flavigula
Martes melampus
Meles leucurus
Micromys minutus
Moschus moschiferus
Murina leucogaster
Murina ussuriensis

Mustela nivalis
Myotis formosus
Myotis ikonnikovi
Naemorhedus caudatus
Neomys fodiens
Nyctalus aviator
Panthera pardus
Panthera tigris
Phoca largha
Plecotus auritus
Prionailurus bengalensis
Pteromys volans

Sorex caecutiens
Sorex gracillimus
Sorex isodon
Sorex mirabilis
Sorex unguiculatus
Tadarida insignis
Tscherskia triton
Ursus thibetanus
Vespertilio sinensis
Vulpes vulpes
Zalophus japonicus

Red Data Book 4

한국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적색자료집
포유동물

Red Data Book of
Endangered Mammals in Korea

발행일 | 2012년 8월

발행인 | 국립생물자원관장 안연순

발행처 | 국립생물자원관

주소 | 인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우편번호 404-170)

전화 | 032)590-7118

팩스 | 032)590-7040

편집제작 | 자연과생태

©국립생물자원관 2012

정부간행물번호 11-00000000-000000-00

ISBN 978-89-94000-00-0 94470(세트)
978-89-94000-00-0 94470

Red Data Book of Endangered Mammals in Korea

정부간행물번호 11-1480592-000294-01

